



Cover Story 1

알렉산더 에크만의 <해머>

Cover Story 2 2026년도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COLUMN 해석에서 감응으로

알렉산더 에크만의 '해머' 예테보리 오페라 댄스컴퍼니

GöteborgsOperans Danskompani
Hammer by Alexander Ekman

Artistic Director **Katrín Hall**

11. 21 Fri - 22 Sat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금) 19:30 (토) 15:00



부산광역시 × (재)부산문화회관 2025년 대학생 작품제작·참여지원 사업

[작품제작 부문 공모 선정작]

| 극단 판플 | 연극 <시라노 2.0>
10. 18.(토) 17:00 / 10. 19.(일) 14:00 & 17:00
소극장6번출구

| 안디뮤직 | 음악극 <겉바속촉 부산>
11. 5.(수) 19:3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 아미치 델라 무지카 | 오페라 <놀부전>
11. 7.(금) 19:3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 DANCE PROJECT P&U |
무용 <프로젝트 P&U - 오래된 새로움>
11. 22.(토) 17:00
부산대학교 10.16기념관

| 한국민속악연구회 남쪽풍류 |
전통음악 <해원解冤, 풀어내리다.>
11. 29.(토) 19:30
부산대학교 10.16기념관

[참여지원 부문 제작 공연]

| 부산대학생연합 × 동서대학교 × (재)부산문화회관 |
시융합 제작뮤지컬 <한여름밤의 꿈>
11. 19.(수) 19: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부산원먼스 페스티벌 2025

BUSAN ONEMONTH FESTIVAL

釜山一个月的音乐节 | 釜山ワンマンフェスティバル



◆ 우리동네 문화살롱페스타 6th ◆

2025. 11.1 Sat. - 30 Sun.

부산 전역에서 11월 한달간 매일 릴레이로 열리는 30개의 음악공연!

프롬나드콘서트 in Jazz Vibes

부산스트릿페스타에서 진행되는 특별한 재즈무대와 라이징팀의 발코니 콘서트

일시 2025.11.01(토) 17:30-20:00, 11.02(일) 17:30-18:30

장소 부산스트릿페스타 광복로 특설무대

01 토요일 음악그룹 결 / 효정리BAND / 어센트 / 트레프앙상블

02 일요일 무드스페이스 / 홍영호식스텟

바다에서 피어난 어부들의 항쟁

해운

푸른 바다의 물결

뮤지컬

극작 · 연출
김정환

작곡 · 음악
강현민

각색 · 작사
이태경

2025. 11. 28.(금) 19:30 / 29.(토) 17: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주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The Korean Cultural & Arts Centers Association

주관  해운대문화회관  빅픽처스테이지
HAEUNDAE CULTURAL CENTER BIG PICTURE STAGE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티켓 R석(1층) 3만원, S석(2층) 2만원 인터넛예매 해운대문화회관 홈페이지 전화예매 051) 749-7651

할인 누림회원(40%), 초·중·고·단체·예술인패스 20명 이상(30%), 장애인·국가유공자(30%)

※ 누림회원, 학생증, 장애인카드 확인 후 매표소에서 티켓 발부



해운대문화회관 예매처



대학교향악축제

UNIVERSITY ORCHESTRA FESTIVAL IN BUSAN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11. 26.(수) 19:30 동의대학교

11. 27.(목) 19:30 경성대학교

11. 28.(금) 19:30 인제대학교

11. 29.(토) 17:00 부산대학교

11. 30.(일) 17:00 동아대학교



NOVEMBER 2025 VOL. **407**

발행인 차재근

편집인 남영희

편집책임 남양욱

편집위원 김성필, 박소윤, 박진홍, 박창희, 이정호, 최찬열

편집담당 박수빈

발행처 (재)부산문화회관

4853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76번길 1

Tel. 051 607 6000

발행일 2025년 10월 25일

디자인·제작 효민디앤피

- 8 Column
해석에서 감응으로
- 10 Cultural Issue
한국전통춤을 담은 레고의 세계로!
- 12 무대 뒤 사람들
의상디자이너 김현진
- 14 현대미술산책
익숙함을 의심하라, 마그리트가 건네는 질문
- 20 Cover Story 1
알렉산더 에크만의 <해머> 예테보리 오페라 댄스컴퍼니
- 24 Cover Story 2
2026년도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 28 Preview
- 36 문화가화제 1
2025 부산 원먼스 페스티벌
- 40 문화가화제 2
2025 부산소극장연극페스티벌
- 42 전시화제
- 44 Review
- 48 Program Guide
- 58 객석에서
- 59 New Book
- 60 BSCC News
- 64 2025 공연프로그램 안내

해석에서 감응으로

동시대 춤 비평의 윤리적 전환

글 최찬열 춤비평가



일러스트: 성시원

예술 작품의 의미는 작품 속에 은밀히 감추어진 어떤 본질이 아니다. 그것은 작품 내부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다른 몸(body, 체)들, 곧 관객이나 비평가, 세계와의 만남을 통해 드러난다. 읽기와 쓰기, 그리고 해석을 기다리는 미결정적인 중핵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핵은 미학적 잠재력이 충전된 장소이고, 그 잠재력은 해석 행위를 통해서 비로소 구체적으로 현현한다. 하지만 그 현실화 과정은 결코 단일한 방향으로 수렴하지 않는다. 다만 읽거나 보는 이에 따라, 또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질 뿐이다.

과거의 미학이 예술 작품을 본질과 형식의 문제로 다루었다면, 현대의 사유는 작품을 끊임없이 생성되고 변주되는 관계적 존재로 이해한다. 곧 예술의 의미는 작품 내부에 이미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작품의 세계와 해석자의 역사적 지평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드러난다. 가다머(Hans-Georg Gadamer)의 해석학이 말하듯, 작품의 의미는 고정된 본질이 아니라 ‘지평 융합’을 통해 새롭게 생성된다. 부리오(Nicolas Bourriaud)의 사유에서 예술은 더 이상 고립된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끊임없이 관계를 맺는 하나의 사건이다. 작품의 의미는 작가의 의도에 의해 봉인된 것이 아니라, 관객과 비평가, 그리고 사회적 맥락이 서로 얹혀 생성하는 의미의 장 안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이 의미 생성은 끝내 완결에 이르지 않는다. 라캉(Jacques Lacan)이 말하듯, 의미는 결코 실재에 도달하지 못한 채 지연되고 미끄러지며, 결핍의 자취를 따라 진동한다. 작품은 결핍을 둘러싼 욕망의 진동 속에서만 살아 숨 쉰다. 그렇기에 비평은 단순한 해석이 아니라, 결핍의 자리를 탐색하고, 실재의 잔여를 더듬는 행위이다. 요컨대 예술 작품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하나의 완결된 ‘체(體)’가 아니라, 의미 생성을 매개하는 관계적 장치, 혹은 열려 있는 생성의 무대이다. 그리고 그 장치를 작동시키는 것은 관객의 해석과 참여, 그리고 대화이다. 예술의 의미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만남과 관계 맺기를 통해 끊임없이 새롭게 생성되는 것이다.

바르트(Roland Barthes)는 이를 “저자의 죽음”이라 표현했다. 작품은 더 이상 예술가의 의도나 내면의 진실을 전달하는 통로가 아니라, 무수한 기표들이 교차하며 흐르는 언어의 장이다. 따라서 작품의 의미는 독자나 비평가가 그것을 읽고 사유하는 순간에 비로소 살아난다. 의미는 그때, 그 자리에서 발생하는 하나의 사건인 셈이다. 그는 “저자가 죽을 때, 독자가 태어난다”라고 말한다. 이는

작품의 의미를 생산하는 주체가 창작자에서 해석자로 이동했음을 뜻한다. 예술 작품은 더 이상 창작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라, 수많은 해석의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재생되는 장소이다. 작품은 닫힌 폐쇄계가 아니라, 관객이나 비평가의 시선이나 해석을 통해 열리고 다시 쓰이는 살아 있는 텍스트가 된다.

그렇다면 비평가는 어떤 존재인가? 그는 더 이상 작품의 감춰진 의미를 해독하는 해석자가 아니다 오히려 작품에서 생성되는 정동(affect)의 흐름에 참여하여 그것을 함께 만 들어가는 공동 창작자이다. 따라서 비평이란 단순히 예술 작품을 평가하거나 규정하는 언어적 절차가 아니다. 비평은 정동의 흐름을 이어 붙이고, 확장하는 창조적 실천이며, 몸과 언어, 감각과 사유를 교차시키는 또 하나의 예술 행위이다. 비평은 작품을 대상화하기보다, 그 안에서 솟아오르는 정동의 에너지를 온몸으로 느끼고 감응하는 행위이다.

그런데 근대적 예술관 속에서 예술가는 흔히 창조자 신(神)에, 예술 작품은 그가 창조한 자족적 우주에 비견되었다. 이 관념에 따르면 춤 작품 역시 안무가의 사유 속에 섰 행적으로 존재하던 의미를 무대 위로 옮겨 놓은 형상물로 여겨졌다. 곧 춤은 안무가가 구상한 내적 세계를 단순히 재현하는 몸짓의 총체, 혹은 기표의 구성적 체계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동시대의 춤 공연은 안무가의 의도와 무관한 예기치 못한 의미작용이 끊임없이 생성되는 개방적 장이다. 이러한 변화는 동시대 예술 전반의 중요한 특징, 즉 경계의 해체와 맞닿아 있다. 장르와 형식, 매체의 구분은 점점 무의미해지고, 서로 다른 물질적 감각의 층위들이 맞물리며 새로운 융복합의 미학을 만들어낸다. 춤 또한 예외가 아니다. 오늘날의 춤은 더 이상 순수한 몸짓 언어로 환원되지 않는다. 그것은 음악과 소리, 이미지와 발화, 개념과 언어, 이질적인 감각들이 끊임없이 섞이고 공명하는 살아 있는 '체'이다.

동시대의 춤은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기호 체계도, 내면을 재현하기 위한 장치도 아니다. 춤은 오직 춤으로 존재하기 위해, 움직임 그 자체로서 흐르고 발현되기 위해 있다. 이때 움직임의 주체는 춤추는 이의 의식도, 의미

“비평이란 작품의 판정이 아니라 작품을 완성하는 방법이다.”

- 발터 벤야민

도, 지시 대상도 아니다. 그것은 오로지 춤 자신일 뿐이다. 이처럼 자기 수행적(performative) 차원에 이른 춤에 건줄 때, 안무와 춤 보기, 창작과 수용의 경계는 점차 희미해진다. 춤은 누구의 것도 아닌 사이의 움직임으로 존재하며, 시간과 공간을 가로지르며 자신을 드러낸다. 들뢰즈(Gilles Deleuze)가 논한 자유 간접 화법은 이와 같은 원리를 철학적 언어로 변안한 개념이다. 그것은 단순한 문체 기법이 아니라, '누가 말하는가'의 경계를 해체하는 실험적 언어의 형식이다. 이 문체 속에서 말하는 자와 말해지는 자, 주체와 객체, 내부와 외부는 더 이상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화자는 더 이상 단일한 인격이 아니라, 타자의 언어에 감염된 다성적(多聲的) 존재, 곧 혼성적인 '체'가 된다. 비평의 언어 또한 이와 같다. 비평은 언제나 '나'의 말이 아니라, 타자의 정동이 내 안을 관통하며 내가 말하게 하는 언어이기 때문이다.

들뢰즈의 자유간접화법이 보여주듯, 안무가의 작품이 비평가의 눈길과 공명할 때, 그의 언어는 이미 춤추기 시작한다. 비평가의 문장은 작품을 재현하거나 번역하지 않는다. 대신, 작품이 남긴 감각의 흔적과 정동의 여운, 정서의 떨림에 응답한다. 그 문장은 분석보다 감응에, 설명보다 사유의 진동에 가까워진다. 따라서 춤 비평은 작품을 규정하거나 평가하는 권위의 언어가 아니라, 그것과 더불어 생성하는 또 하나의 살아 있는 '체'가 된다. 춤과 비평은 서로를 매개하며, 그 사이에서 둘이 얹혀드는 공명 '체'이자 배치 '체'를 구성하는 일, 그것이 춤 비평이다. 이렇게 춤과 언어가 서로의 경계를 허물며 스며드는 지대, 몸짓-감각과 춤추는 사유가 상호 감염되는 사이의 지대를 연다. 결국 춤과 비평은 모두 살아 있는 '체'이다 그리고 이 둘의 차이와 접촉, 감염과 공명 속에서 새로운 춤의 윤리가 태어난다. 사이의 예술, 그곳이 오늘날 춤 비평이 서야 할 자리이리라.

한국전통춤을 담은 레고의 세계로!

글 송현민 음악평론가

레고 블록은 직선과 점의 언어다. 반대로 한국의 전통 춤은 곡선과 호흡의 예술이다. 국립부산국악원 특별 전 ‘춤추는 레고’는 제8회 영남춤축제와 연계해 전통 춤의 선의 아름다움을 블록의 픽셀과 재미로 번역한 전시다. 전시는 영남춤축제가 개막한 8월 29일부터, 폐막한 9월 13일 이후에도 진행되어 12월 21일까지 국립부산국악원 국악체험관 일대에서 무료로 열린다.

■ 전통 춤이 너울거리는 ‘춤심(心)’의 지역, 영남

‘영남은 춤이요, 남도는 소리다’라는 말처럼 부산과 경상도는 춤의 고향이다. 영남춤축제는 이러한 말이 옛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축제의 장으로, 국립부산국악원이 주최하는 무용 축제다. 영남권을 중심으로 한 한국 전통춤을 조명하고, 각 춤의 대표 명인들이 무대에 오른다. 공연 외 춤 연구와 연계된 학술제, 라운드테이블 등도 펼쳐진다.

8월 29일 개막 공연은 ‘영고’였다. 영남 지역의 전통 춤에서 북은 신명을 일으키는 중심축이다. 이러한 북을 소재로 한 춤이 한데 모였다. 바닥에 얹어 놓은 대고(大鼓)를 여러 무용수가 돌아가며 두드리는 ‘무고’부터, 손으로 든 소고(小鼓)를 두드리는 진주교방굿거리, 그리고 아름답게 부른 꽃송이 같은 꽃 모자를 쓴 무용수들이 두드려 올리는 영남꽃북춤 등이 올랐다.

“춤바람이 무섭다”는 말처럼, 춤은 멋을 갖춘 예술이자, 평범한 이도 한 자락 춤사위를 구사하는 능력만 갖춘다면 멋쟁이로 만들어 주는 예술이다. 특히 부산



레고로 표현한 전통가면극 ‘동래야류’

이 춤에 강세인 이유는 동래학춤이나 동래한량춤 등 예로부터 춤의 고장으로 통했기 때문이다.

관객들의 성향도 남다르다. 판소리를 구사하는 소리꾼의 노래 사이로 추임새가 튀어나와 흥을 돋우는 곳이 남도라면, 부산은 춤사위 사이로 ‘추임새’가 나오는 유일한 지역이다. 멋을 살짝 적신 가벼운 춤사위에도 때로는 록 콘서트장처럼 강렬한 추임새가 나올 때도 있으니, ‘추임새’가 아닌 ‘춤임새’라는 말이 떠오르기도 한다.

이처럼 영남춤축제는 한국춤에 진심인 부산 시민들의 ‘춤심(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다. 무엇보다 이번 축제는 레고 전시와 맞물려 더욱 특별한 시간이었다.

■ 레고와 전통 춤, 이색적인 만남

국립부산국악원에는 ‘연악당’과 ‘예지당’이라는 불리는 공연장 외에 숨은 공간이 있다. 이번 영남춤축제를 시작으로 이 공간들을 전시실로 탈바꿈했고 ‘춤추는 레고’ 전시 펼쳐지고 있다.

국립부산국악원 지하 1층의 다목적홀로 들어서면 ‘인트로 영상’이 펼쳐진다. 레고 블록이 작가 콜린 진의 손길로 한국 전통 춤으로 구현되는 과정을 담은 영상이 펼쳐진다.

전시는 3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부드러운 선, 춤이 시작된다’라는 주제를 담은 실감 전시실에는 개막 공연을 장식한 ‘무고’부터 ‘선유락’ ‘춘앵전’ ‘동래학춤’ ‘금회북춤’ 등을 만날 수 있다. 두 번째, 디지털 자료 전시실에선 레고로 만든 탈춤과 탈을 만날 수 있다. ‘탈을 쓰고, 세상을 비추다’라는 주제를 품은 이 섹션에는 말뚝이, 제대 각시, 원앙반의 탈과

‘영노 과장’ ‘할미·영감 과장’ 같은 탈춤의 명장면들을 레고 블록으로 묘사해 놓았다.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것은 체험 공간에서 접할 수 있는 세 번째 섹션 ‘나만의 춤사위 만들기’다. 블록 하나가 관객의 감정, 기억, 이야기를 품고 움직인다. 영남 춤축제 공연에서 만난 춤의 여운을 블록에 담아본다. 세상에 없는 춤의 모양과 형태를 레고 블록으로 빚어보기도 한다.

지역 매체와 SNS에는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가족 단위 관람 인증이 이어졌다. 한국 전통춤을 보러온 ‘공연’ 관객이 ‘전시’로 자연스럽게 유입되었다. 공연축제와 전시 사이에 보이지 않는 다리가 작동하는 셈이다.

■ 공연과 만난 레고. 완구물에서 예술로

레고는 1932년 덴마크의 목수 올레 크리스티 안센(1891~1958)이 설립한 목공소에서 출발했다. 본래는 나무 장난감으로 제작되었으나, 점차 플라스틱 블록 완구로 전환되었다. ‘LEGO’라는 이름은 덴마크어 ‘leg godt’에서 유래했는데, ‘잘 놀자(play well)’라는 의미이다.

‘춤추는 레고’ 전의 작품들은 콜린 진(소진호) 작가가 만들었다. “춤사위의 여러 동작을 관찰해 찰나의 순간을 작품에 옮긴다”는 그의 발상과 창작처럼, 격자 모양의 블록들을 촘촘히 서로 맞물려 수직과 직각의 형태를 만들지만, 그 안에는 무용수의 표정과 움직임의 역동성, 의복의 화려함 등이 담겨 있다. 특히 무용수들의 움직임과 리듬도 블록의 반복적인 패턴과 간격 조절로 잘 묘사했다. 탈춤과 탈에 담긴 해학과 웃음도 눈과 입의 각도를 달리하여 다채롭게 표현했다.

‘한국의 전통예술’과 ‘서양의 완구’의 만남은 새롭지만, 사실 레고는 부지런히 공연예술의 언저리와 만나왔다. 그랜드 피아노의 작동 구조를 블록의 모형안으로 끌어들이는가 하면, 피아노·더블베이스·트럼펫·드럼 연주자의 자세와 역동성으로 재즈 앙상블을 묘사하기도 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은 발레 ‘호두까기 인형’일 것이다. 미국

의 보스턴 발레단은 연말 대표 레퍼토리인 ‘호두까기 인형’ 시즌에 맞춰 레고로 만든 너트크래커 조형물을 공연장 로비에 전시했다. 약 1.2m 높이로, 제작에만 52시간 이상이 투입된 초대형 레고 조형물이다. ‘호두까기 인형’ 공연 기간 로비에서 가장 먼저 관객을 환영해 준 이 조형물은 관객들이 즐길 포토존의 역할까지 겸하며 현장 분위기를 달궜다.

■ 놀이의 도구와 놀이의 춤이 만날 때

최근 전시는 굿즈, 즉 기념품으로 기억되곤 한다. 어떤 전시에 갔는지도 중요하지만, 그곳에서 획득한 ‘기념의 전리품’인 굿즈 선택과 획득도 중요한 시대다.

그런 점에서 <춤추는 레고>는 이러한 유행을 따르면서도, 남다른 차별점을 지닌 전시이기도 하다. 특히 ‘나만의 춤사위 만들기’ 섹션은 관객이 레고 블록으로 자신만의 춤사위를 만들어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무엇을 샀나”보다 “내 손으로 무엇을 만들어 봤나”라는 기억과 경험을 간직하게 된다. 남다른 체험의 순간을 굿즈처럼 간직하게 되는 것이다.

더불어 레고와 부산의 전통 춤의 묘한 연결고리도 느끼게 된다. 상기한 바와 같이 ‘레고’라는 이름은 ‘잘 놀자’라는 덴마크어로부터 연유된 것인데, 이러한 놀이성은 영남의 전통 춤에 잘 담겨 있다. 인류의 놀이 문화를 연구한 하위징아는 인간이 지닌 놀이의 본능에 빗대어 ‘호모루덴스’, 즉 ‘놀이하는 인간’이라는 말을 남겼는데, ‘호모루덴스’의 표기를 살짝 비틀어보면 ‘호모루덴스(Dance)’가 되기도 한다. 즉 인간을 둘러싼 문화 중 놀이와 춤은 어떻게든 통한다는 말일 것이다.

‘춤추는 레고’는 영남춤문화와의 만남과 기억을 남다르게 선사하는 전시다. 놀이의 성격을 품은 춤과 놀이의 도구인 레고가 만나고, 블록이 지닌 직각이 모여 어느새 전통 춤의 완곡한 곡선과 움직임을 만들어낸다. 12월 21일까지 무료로 만날 수 있으니, 부산의 명소인 국립부산국악원으로 향해보자. 더불어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동래학춤 소재로 한 국립부산국악원의 대표작 ‘춤바람 분데이’가 오르니, 영남 춤의 매력에 빠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의상디자이너 김현진

글 박나무 자유기고가

옷이 날개라 했다. 선녀는 옷을 감춘 나무꾼 때문에 하늘로 돌아가지 못하고 인간의 아내로 지상에 머물렀다. 아이들을 낳고 살다가 울고불며 애원한 끝에 옷을 돌려받아 결국 하늘로 돌아갔다는 설화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도, 몽골, 중국, 일본에서도 전해져오는 유명한 이야기다. 나라마다 혹은 지방마다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지만, 옷이 없어 돌아가지 못하는 신세는 같다. 옷은 남녀와 신분과 재산 등을 알려준다. 높은 사람은 좋은 옷을 입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보다 덜한 옷을 입는다. 부자는 비싼 옷을 입을 테고, 가난한 사람은 그런 옷을 갈망할 테지. 유골은 간데없어도 남은 옷과 장신구 등을 보면 왕이었는지 장군이었는지 함께 순장된 측근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겠다. 오직 사람만이 옷을 입는다. 옷은 결코 버릴 수 없는 욕망과 생존의 산물이다. 감히 선악과를 따먹은 이브 커플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알몸일 테고, 그랬다면 우리의 공연예술은 온통 저마다의 살색으로만 채워져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오늘 우리가 만난 이는 배우들에게 옷이라는 날개를 맞춰주는 김현진 의상디자이너. 갑자기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 배우에게 ‘옷’은 그 역할을 규정하는 첫눈의 도구이리라. 경찰관엔 경찰복을, 죄인에겐 죄수복을, 장군엔 겹옷을, 해녀엔 물옷을 입혀야겠다. 맞춤형 의상을 얻었을 때 이미 연기의 반쯤은 시작된다. “저도 시작은 배우였습니다. 배우가 자기 옷을 직접 만들거나 구해 입던 시절이 그리 오래전 이야기가 아닌데, 요즘에는 의상디자이너



검 제작자가 따로 존재하니, 많이 발전한 거죠. 배우로서의 역할도 재미있지만, 그 배우의 움직임과 역할에 딱 맞는 옷을 지어 입히고, 완성된 공연을 볼 때의 희열 같은 게 있더라구요. 저는 그 일에 잘 맞춰진 사람인가 봅니다.” 의류디자인을 따로 배우 적이 없는 그이가 하나의 공연을 떠맡아 의상 수십 벌을 척척 디자인하고 만들어내는 힘은 배우의 입장을 잘 아는 사람인 데서 출발한다. 대본을 통해 역할의 이미지를 상상하고, 배우의 신체 사이즈를 파악해, 아이디어를 더해 그림을 그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연출자, 배우와 함께 협의를 마치면 본격적인 제작에 들어간다. 거의 한 달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혼자서 하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는 사람을 써서 제작할 만큼의 수지가 나오진 않아요. 한정된 예산에서 맞춰내려면 혼자서 여러 명의 손과 발이 되어 움직이는 것 말고는 방도가 없어요. 지금은 그렇지만 장래에는 팀을 이뤄서 척척 해내는 게 꿈이기도 합니다. 제작한 의상을 보관하는 더 넓은 옷 창고도 갖고 싶구요. 작업실도 더 넓혀가고 싶구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기만 하네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문이 하나 생긴다. 역할에 적절한 옷을 구해 입힌다면 코디네이터의 역할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디자이너라는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 “연극이나 뮤지컬은 움직임의 예술입니다. 배우가 움직이는 데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는 요소는 없애면서, 특징을 잘 보여줘야죠. 기존의 옷을 구해다 입히면 오히려 불편한 데다, 입고 벗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서 따로 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역할이나 의상을 바꿔야 할 경우에는 단추보다 떼었다 붙였다 하는 벨크로로 제작해야 하고, 노출의 정도가 배우의 움직임을 방해할 수도 있으니 적절히 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형적인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가기보다는 그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아가고 싶은 게 디자이너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좀 더 다르게 예쁘게 멋있게 하려다 보니 품과 시간이 많이 듭니다.” 최근에 김현진 디자이너가 만들어낸 저승사자는 검은색 도포와 갓에서 벗어나 금색의 휘날림으로 치장한 멋드러진 아이돌처럼 나왔다. 데몬 헌터스의 저승사자와 김현진의 저승사자, 누가 더 멋있는지 겨뤄볼 만도 하겠다.

부산시립극단 가족뮤지컬 <미운 오리 새끼>를 맡았을 때가 의상디자이너로서 김현진에게 가장 어려웠고 또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오리를 비롯한 온갖 짐승들의 옷과 신발을 맞춰



<열세 번째 아이>에서 디자인한 저승사자 의상

입혀야 하는데 하필 코로나에 걸렸다. 격리된 상태로 만든 의상들을 문밖에 내어놓으면 스태프가 와서 걷어가고, 배우들에게 시착한 후 다시 돌아와 문고리에 걸린 걸 갖고 들어와 다시 수정하던 그 시절. 울면서 재봉틀만 마주하고 있을 때 디자이너의 역할과 고통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스님으로 치면 하한거 정도는 지나온 셈이겠다. “의상디자이너를 전업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하는 일마다 재미있고, 실력도 느는 것 같아요. 다음 공연은 이번 공연보다 잘하고, 그 다음 공연은 더 잘하는 김현진일 겁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스스로를 발견하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 힘들어도 행복함 속에 존재하는 삶이겠다. 얼마 안 되었다고 말하는 것치고는 꽤 많은 수십 편의 작품이 김현진 디자이너를 가득 채웠다. 10월엔 <슬픔이 찬란한 이유> <나는 단단한 아이> 등을 맡았고, 11월엔 <라이프 재킷> <세 번째 일등> <리어왕> 등을 예정하고 있다. 계속 발전하는 김현진을 발견하는 것, 본인에게나 우리에게나 참 괜찮은 일이겠다. 건투를 빈다.

익숙함을 의심하라, 마그리트가 건네는 질문

글 박송화 미학연구자, <새롭게 읽는 서양미술사> 저자

사회화를 통해 사람들은 기존의 보는 방식을 반복한다. 본다는 것은 정신 활동으로 연결되기에 관습적으로 보는 것은 관습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같다. 문제는 관습적 시선이 세상을 다채롭게 보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초현실주의 화가, 르네 마그리트(René Magritte, 1898~1967)는 평범하고 익숙한 것을 비틀어 관습적 시선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는 회화로 표현된 시(時)를 통해 우리를 “의식 있는 몽상”의 세계로 초대한다.

벨기에 출신의 이 초현실주의 화가는 젊은 시절 3년 정도 파리에 머문 것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나날을 자신의 고국에서 보냈다.

마그리트는 언제나 ‘중심’이랄 곳에서 멀리

있었으며 삶은 단조로웠지만, 평생을 넘쳐흐르는 상상력과 더불어 살았다. 마그리트에게 회화는 자신의 사고를 표현하고 타인과 교류하는 수단이었기에, 그는 화가보다는 ‘생각하는 사람’으로 불리는 것을 선호했다. 마그리트는 화가 이전에 철학자였는데, 철학자는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 의문을 품고 질문하는 사람이다. 다만 철학자와 달리 그는 관념으로 구성된 언어가 아닌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이미지를 활용했다.

1920년대 초기 활동 시기의 입체주의 경향과 1940년대 2차 대전 시기의 인상주의 경향을 제외하고, 마그리트는



르네 마그리트, <아르곤의 전투>, 1959, 캔버스에 유채, 50×61cm, 개인 소장

일관되게 사실주의 스타일을 고수했다. 그에게 양식상의 변화는 부차적인 것이었고, 대신 자신이 다루는 주요 주제를 평생에 걸쳐 발전, 변형, 결합, 상호참조, 종합하는 데 열중했다. 그의 작품에는 창문, 트럼펫, 거울 등의 사물들이 사진처럼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생생하게 묘사된 사물들은 현실을 재현하기는커녕, 기묘한 뒤바뀐 것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는 관람자의 상식과 시공간을 교란한다.

<아르곤의 전투>(1959)에는 바위가 무거움과 부동성이라는 본연의 특성을 벗어던지고 하늘을 배경으로 구름과 기

싸움을 하고 있다. 바위가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지, 구름이 움직이는지, 이 둘이 일시 정지하고 있는 것인지 모호하다. 이들을 중재하는 듯 가느다란 초승달이 둘 사이로 떠 올랐고, 뒤로 날이 밝아 온다. 제목의 ‘아르곤(Argonne)’은 프랑스 북동쪽, 독일과 가까운 지역으로 1차 대전의 치열한 격전지였다.

그림 속 사물들의 비정상적인 크기와 엉뚱한 배치 그리고 제목과 그림의 불일치는 이중으로 관람자를 혼란스럽게 하여 몽상의 세계로 끌어들인다. 어쩌면 공간에 대한 감각은 고정된 것이 아닌, 시간과 운동에 따른 나의 관찰과 기분에 의한 것은 아닐까? 이러한 상상은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면 시간과 공간이 관찰자에 따라 상대적임을 보여주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떠올리게 한다.

이처럼 마그리트는 사물을 정확하게 그리는 동시에 상식을 파괴하여 상황을 불명확하게 한다. 서양미술은 전통적으로 신이나 성인, 영웅과 지배자의 이념을 전파하는 수단이었기에 회화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사물을 충실히, 이상적으로 모방했고, 제목 역시 그림의 내용을 설명하는 장치로 기능했다. 이러한 회화는 고정관념, 편견을 재생산하며 세상은 역시 그런 것이라고 우리를 교육한다. 그러나 마그리트는 기존의 관습을 뒤집고는 우리에게 상식을 벗어나 세상의 신비와 마주할 것을 요청한다. 왜냐하면, 고정관념과 편견은 우리가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가로막기 때문이다. 화가는 자신의 무기로 ‘역설’을 활용한다.

역설이란 논리적으로 모순인 듯하지만, 진리를 암시하는 표현법이다. 우리의 삶은 역설로 가득 차 있는데, 인간은 “앞세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 몸부림치기도 하고, 평범한 인물이 위대한 업적을 통해 ‘작은 거인’이 되기도 한다. 세상은 결코 논리적으로 딱 들어맞는 곳이 아니며 오히려 개별 사물들의 무한한 잠재력이 펼쳐지는 장이다. 마그리트 회화의 역설적 표현은 현실 속 모순과 세계의 경이로움을 환기하는 장치이다. 그리고 이 역설은 익숙하고 일상적인 것이 등장할수록 충격은 배가된다. 평범한 것이야말로 우리의 관념이 고정된 대표적인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가 평범한 사물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헤겔의 휴일>(1958)에는 물컵과 우산이 등장하는데, 펼쳐진 우산 위에 물컵이 놓여있다. 우산은 비를 막기 위한 물건이다. 반



르네 마그리트, <헤겔의 휴일>, 1958, 캔버스에 유채, 61×50cm, 개인 소장

면 컵은 물을 담는 용기(用器)이다. 우산과 컵이 같이 있으니 두 사물의 특징이 더욱 도드라지면서도 물을 담는 동시에 막아내는 기묘한 역설이 펼쳐진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사물, 상황에는 하나의 의미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이 백과사전과 이론에서 사물을 규정하는 원리일 뿐이다.

반면 현실에는 다양한 의미가 공존하고 있으며, 그러한 의미들은 충돌을 일으키며 새로운 개념을 생성한다. 그 과정은 끊임없이 반복되는데, 이것이 철학자 헤겔이 말한 변증법이다. 모든 운동은 대립 속에서 일어나며 ‘나’는 ‘너’로 인해 다름을 이해하게 되고, 모순은 통일로 나아간다. 마그리트는 모순에서 통일로 나아가는 긴장된 운동을 평범한 사물들의 엉뚱한 결합을 통해 보여준다. 그는 만약 헤겔이 이 그림을 봤다면 휴가를 맞은 것처럼 기뻐할 것으로 생각하여 <헤겔의 휴일>이라 작품을 명명했다.

마그리트의 역설은 단어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르네 마그리트, <선율과 단어들>, 1964, 캔버스에 유채, 36.2×54.8cm, 시카고 미술관

우리는 의미와 글자가 결합한 ‘단어’로 세상을 이해한다. 이때 의미와 글자의 결합은 임의적인 것으로, ‘늑대와 비슷하지만, 사람을 잘 따르는 포유류’를 한국에서는 ‘개’, 미국에서는 ‘dog’라고 한다. 그리고 그와 닮은 동물을 그려놓고 우리는 그 이미지를 보고 ‘개’라고 말한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개’는 개의 ‘의미’와는 상관없이 사용되기도 하며, 개의 ‘이미지’는 ‘실제 개’를 가리키지 않을 때도 있다. 마그리트는 담뱃대를 사실적으로 그려놓고 그 아래 프랑스어로 ‘Ceci n'est pas une pipe(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고 글을 써서 단어의 뜻, 실제 사용, 이미지 간의 차이를 표현했다.

<선율과 단어들>(1964)은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시리즈 중 역설을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준다. 화면 가운데 파이프가 떠올라 있으며, 뒤로 사물의 그림자가 보인다. 파이프 아래에는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는 글자가 쓰여있고, 주변으로, 나무로 된 액자 테두리가 있다. 그런데 액자 위로 담뱃대에서 연기가 피어오른다! 파이프는 3차원의 사물이며 평면 위에서 공중 부양을 하는 것인가? 그러나 이 그림은 분명 2차원 평면이다. 따라서 이것은 실제 파이프가 아니며 파이프를 닮은 이미지일 뿐이다. 그림 속 요소들은 대립을 거듭하며 모순을 일으키고,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고 있다. 작품이 보여주는 역동적인 역설은 세상이란 일대일의 관습적 대응 관계가 아닌, 다채로운 의미가 솟아나는 곳임을 드러낸다.

마그리트에게 초현실이란 기이하고 요란한 것이 아닌, 일상을 다

른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비로소 서서히 드러나는 것이었다. 한때 번영했던 인도의 옛 도시에서 따온 <골콩드>(1953)에는 평범한 건물을 배경으로 검은 코트에 중산모(bowler hat) 쓴紳사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다. 아니, 떨어지는 듯, 멈춰있는 듯 모호하다. 그들은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익명의 사람들이다. ‘군중’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그들은 덩어리가 아닌 고유한 위치를 점한 각각의 개인들이다. 대도시 속 익명의 개인들을 이보다 더 탁월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처럼 마그리트가 관습적 시선을 거부하며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은 오히려 실제 세계의 모습이다.



르네 마그리트, <골콩드>, 1953, 캔버스에 유채, 81×100cm, 메넬 컬렉션, 휴스턴

INVITATION TO THE

가

가람아트홀	621-6669
가온아트홀	1600-1602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663-5361
공간소극장	611-8518
국립부산국악원	811-0114
글로벌아트홀	505-5995
금정문화회관	519-5661~2

대

동래문화회관	550-6611
대동대학교 D'ART홀	510-4838, 010-9429-7014
드림씨어터	1833-3755

무

무지크바움	070-7692-0747
-------	---------------

부

부산가톨릭센터 공간101.1	462-1870
부산메트로홀	1600-0316
부산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	605-5114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366-8114
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북구문화예술회관	309-4081
부산민주공원	790-7400
부산시민회관	630-5200
부산예술회관	612-1372
부산콘서트홀	640-8888

상

상원아트홀	1899-5435
소극장 6번출구	010-5232-1350
소민아트센터	991-2200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1644-2963

수아트홀	744-1415
신명천지소극장	515-7314
스페이스 움	557-3369

영

액터스소극장	611-6616
어댑터씨어터	0507-1388-1447
에저또소극장	852-9161
열린아트홀	527-0123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61
영화의전당	780-6000
용천지랄소극장	625-0767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일터소극장	635-5370

차

차성아트홀	728-0993
청춘나비아트홀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621-4005

해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효로인디아트홀 소극장	623-6232

B

BEXCO 오디토리움	740-7369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BOF아트홀	0507-1330-3001

K

KBS부산홀	620-7181
--------	----------

S

SM아트홀	1600-1602
-------	-----------

ARTS

SUN

MON

TUE

W

전
시
실

제21회 부산국제차어올림문화제

· 11월 7일(금)-11월 9일(일)

입장료 : 무료

문의 : 010-8549-6973

제19회 대한민국한서미술대전 전국공모전

· 11월 12일(수)-11월 15일(토)

입장료 : 무료

문의 : 010-6592-9648

제51회 부산미술대전

· 11월 25일(화)-12월 20일(토)

입장료 : 무료

문의 : 010-2796-1121

2

남구립예술단 합동연주회 Together, we sing
17:00

대 무료/부산광역시 남구청(607-4064)

부산거문고악회 제15회 정기연주회 <알음답다>
17:00

초대/부산거문고악회(0502-1900-4597)

3

4

5

9

10

11

12

16

제36회 이견음악회 - 노르웨이 챔버 오케스트라
현악 6중주 17:00

대 초대/이견홀딩스(1522-1271)

연극 <뽕아> 14:00

중 6만원·4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17

18

19

23

제12회 창작오케스트라의 밤 17:00

중 무료/(사)부산음악협회(634-1295)

24

25

26

30

2025 부산문화재단 <청년연출가 작품제작지원>
최우수 연출가 선정작 뮤지컬 '셔츠' 16:00

중 5만원/(재)부산문화재단(051-745-7293)

루오르 앙상블 창단연주회 19:30

초대/루오르 앙상블(010-9305-9496)

회향음악회 19:30

2만원/부산문화(160)

SUN

MON

TUE

WE

전시실

2025 한·중국제서화교류전

· 11월 19일(수)~11월 23일(일) 전시실 1,2
입장료 : 무료
문의 : 010-2839-1842

한글사랑 서예 한마당

· 11월 25일(화)~11월 30일(일) 전시실 1,2
입장료 : 무료
문의 : 010-9600-5738

2

3

4

5

해설이 있는 국악 힐링 콘서트
대 3만원(단체 관람시 할인)
(051-912-2025)

2025 대학생 작품제작-초
선정작 음악극<길바속>
소 전석무료/(재)부산문화

9

10

11

12

캐리와 슈퍼클라의 싱어롱 뮤직쇼 - 부산
11:00, 14:00
대 3만6천원/(1800-7672)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오
14:00
대 무료/(010-5504-09)

16

17

18

19

[부산] 최유리 콘서트 2025 : 머무름 16:00
대 15만4천원-14만3천원/티켓링크 고객센터
(1588-7890)

제17회 부산문화예술큰잔치 13:00
대 무료/(051-554-0159)

예술의 밤 19:30
대 무료/(051-320-834)

23

24

25

26

음악극 <천국으로 배달드립니다> 15:00
소 3만원/(010-2519-41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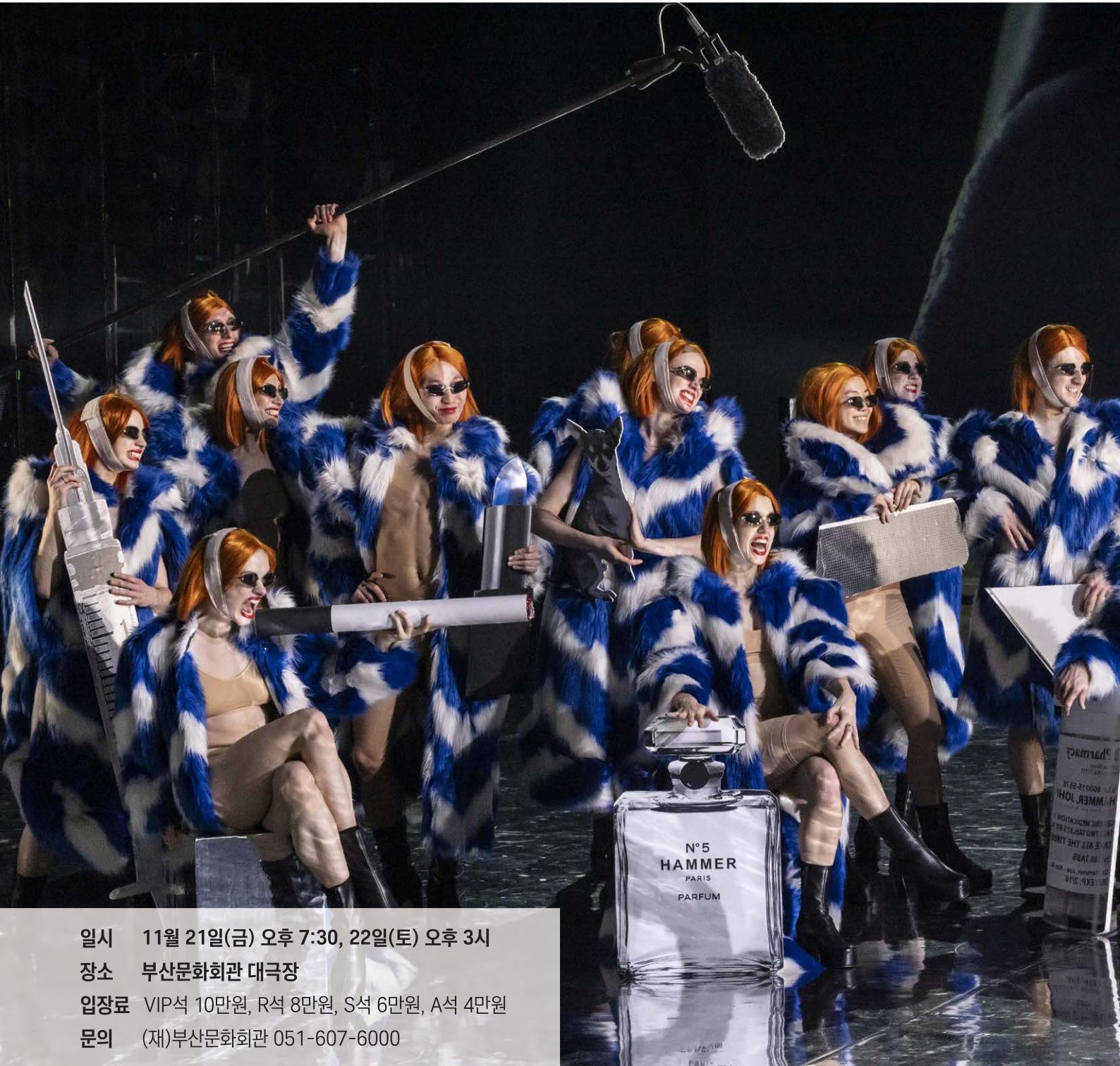
대학교향악축제 - 동
대 1만원/(재)부산문화회

30

대학교향악축제 - 동아대학교 17:00
대 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CD	THU	FRI	SAT
			1
	6	7	8
서트 10:30, 13:30 (인)/사단법인 소리 참여지원 사업 공모 부산> 19:30 회관(051-630-5243)	2025 대학생 작품제작-참여지원 사업 공모 선정작 오페라<놀부전> 19:30 전석무료/(재)부산문화회관(051-630-5243)	캐리와 슈퍼콜라의 싱어롱 뮤직쇼 - 부산 11:00, 14:00, 16:30 3만6천원/(1800-7672)	
	13	14	15
케스트라 정기연주회 (41)	제20회 희망불씨 콘서트 19:00 무료/(051-853-0429)	[부산] 최유리 콘서트 2025 : 머무름 18:00 15만4천원-14만3천원/티케팅크 고객센터 (1588-7890)	
	20	21	22
제15회 부산실버종합예술제 13:30 무료/(051-861-0119)	꿈의 오케스트라 '부산' 제9회 정기연주회 19:00 무료/(051-461-0325)	DK UNIVERSE <TIMELESS> - 부산 19:00 13만2천원-11만원/(010-2726-6659) 음악극 <천국으로 배달해드립니다> 15:00 3만원/(010-2519-4190)	
	27	28	29
대학교 19:30 관(607-6000) 대학교향악축제 - 경성대학교 19:30 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대학교향악축제 - 인제대학교 19:30 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연극 <오함마백씨행장 완판본> 19:30 4만원-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대학교향악축제 - 부산대학교 17:00 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연극 <오함마백씨행장 완판본> 14:00 4만원-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알렉산더 에크만의 <해머> 예테보리 오페라 댄스컴퍼니



일시 11월 21일(금) 오후 7:30, 22일(토) 오후 3시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VIP석 10만원, R석 8만원, S석 6만원, A석 4만원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051-607-6000

<해머>를 통한 강렬한 메시지 전달

세계적인 안무가 알렉산더 에크만이 에테보리 오페라 댄스컴퍼니와 함께한 최신작 <해머>가 11월 21일(금)과 22일(토), 이틀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무대에 오른다. 혁신과 도전의 아이콘으로 손꼽히는 에크만은 이번 작품을 통해 또 한 번 강렬한 메시지를 전한다. <해머>는 자아도취적인 온라인 세계와 현실 속 이타적인 관계를 춤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유머와 감동, 시각적 충격, 실험적인 움직임, 역동적인 군무까지 아우르며 현대 무용의 정수를 선보인다. 진짜와 가짜, 현실과 가상의 경계는 어디인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무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현대 무용의 경계를 확장하는 안무가

알렉산더 에크만은 스톡홀름 출신의 세계적인 안무가이자 연출가로, 전 세계 주요 극장과 오페라하우스, 미술관을 무대로 혁신적인 작업을 선보여왔다. 그는 스웨덴 왕립 오페라, 스페인 국립 무용단, 빈 국립 발레단 등 50여 개의 무용단과 협업하며 독창적인 안무 세계를 구축했다. 2006년 네덜란드 댄스 시어터(NDT)에서의 Flockwork를 시작으로, Lab 15(2007), Cacti(2010) 등의 작품을 발표하며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고, 안무뿐만 아니라 영상 작업과 음악 작곡에도 뛰어난 감각을 발휘하며 예술적 스펙트럼을 넓혀왔다. 또한 스톡홀름 현대미술관에서는 설치미술 작품도 선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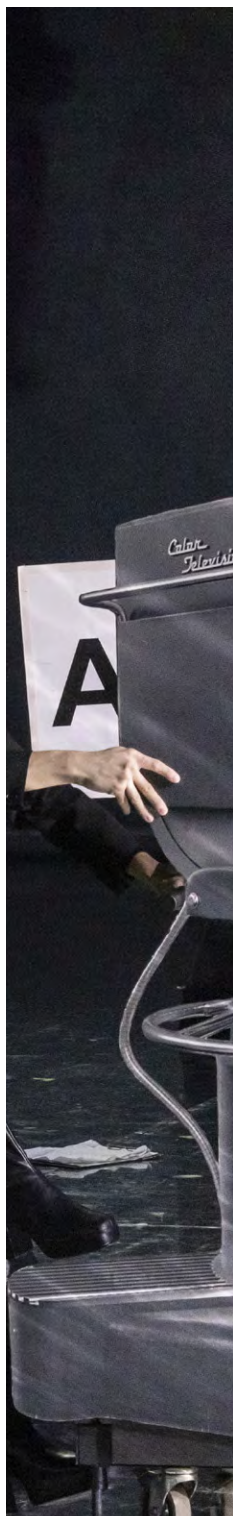
그의 작품은 유머와 강렬한 에너지를 바탕으로 전통과 실험이 조화를 이루는 독창적인 스타일로 널리 사랑받고 있다. 끊임없는 도전과 창의성으로 현대 무용의 경계를 확장하는 에크만의 작업은 단순한 공연을 넘어 감각을 흔드는 예술 경험을 제공하며, 현대 예술에 새로운 영감을 불어넣고 있다.

유럽 최고 현대무용단, 에테보리 오페라 댄스컴퍼니

알렉산더 에크만과 함께하는 에테보리 오페라 댄스컴퍼니는 아름답고 도전적이며 예측 불가능한 예술을 창조하기 위해 대답하고 혁신적인 선택을 추구하는 유럽 최고 수준의 현대 무용단이다. 20개국 이상에서 온 38명의 무용수들은 각자의 개성과 예술성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앙상블을 이룬다. 이들이 선보이는 무대는 압도적인 군무와 화려한 시각 효과를 결합해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삶처럼 예측할 수 없고 경이로운 순간들을 무대 위에 펼쳐내며 한계를 뛰어넘는 감각적 경험을 선사한다.

현대무용의 정수, 그 경계를 넘어서

강렬한 메시지, 유머와 감동, 시각적 충격과 실험적인 움직임을 담은 <해머>는 신체의 언어로 사회를 말하고, 무대 위에서 세계를 새롭게 그려낸다. 관객은 이 무대를 통해 익숙한 일상이 낯설게 보이고, 감각의 경계가 흔들리는 순간을 마주하게 된다. 단순한 공연을 넘어, 진짜 '현대 예술'의 현장을 경험할 기회가 될 것이다.



우리의 감각을 깨우는 작품, 알렉산더 에크만 안무 <해머>

글 이현정 LG아트센터장

이제 겨우 마흔이 넘은 스웨덴 출신의 안무가 알렉산더 에크만의 행보는 어딜가나 전 세계 공연 예술계의 이목을 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현재 전 세계 우수한 극장과 발레단, 현대무용단으로부터 가장 작업하고 싶어 하는 안무가로 손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고국 스웨덴에서 발레 학교를 졸업한 후, 16세부터 약 5년간 전문 무용수로 활동을 하다 스무 살이 갓 넘은 시점에 자신의 적성이 무용수보다는 안무가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스물한 살이라는 너무도 젊은 나이에 자신이 활동하던 세계적인 무용단 쿨베리 발레단에서 안무가로 데뷔할 기회를 갖게 된다. 그리고 다음 해 또 다른 세계 정상 무용단인 네덜란드 댄스 씨어터에서도 안무작을 올리며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옳았는지를 당당하게 증명한다. 스물을 갓 넘긴 나이로 세계적인 무용단에서 연거푸 안무작을 올린 그의 천재성도 대단하지만, 젊은 안무가에게 어떠한 편견도 없이 기회를 준 세계적인 무용단의 유연한 정책과 시스템, 안목이 더 부러운 대목이다. 이후 이 천재 안무가는 스물아홉의 나이로 <Cacti(선인장)>라는 작품으로 영국의 권위 있는 공연예술상인 '올리비에 어워드'에 노미네이션 되고, 이후 2014년 스웨덴 왕립 발레단을 위해 안무한 <백조의 호수>와 이듬해 창작한 <한여름 밤의 꿈> 그리고 그토록 꿈에 그리던 파리 오페라 발레단의 <플레이>까지 연이어 화제작을 만들며 세계적인 안무가의 반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게 된다.

누구도 무감각하게 두지 않는 에크만의 마법

에크만 작품의 특징을 규정짓는 가장 대표적인 것을 꼽으라면 무엇보다도 여타 다른 작품들과 비교 불가할 정도로 아름답고

독창적이며 스펙터클한 비주얼일 것이다. 그것이 발레든 현대무용이든 관계없이 그는 항상 관객의 뇌리에 오랫동안 기억될 인상적이고 아름다운 시각적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 그는 안무뿐 아니라 무대미술, 의상, 조명 디자인까지 도맡아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현대적으로 해석한 <백조의 호수>에서는 5,000리터의 물을 무대에 채우고 그 위에서 흑조 무리가 물보라를 일으키며 춤추는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했으며, 북유럽의 하지를 배경으로 한바탕 꿈과 환상의 세계를 구현한 <한여름 밤의 꿈>에서는 무대 가득 건초 더미를 쌓고 40여 명의 무용수들이 벚꽃을 내리치며 춤추는 장관을 연출해 관객들의 환호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또한 세 번의 시즌을 모두 전석 매진시키며, 공연 때마다 티켓 구하기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파리 오페라 발레의 <플레이>에서는 40,000개의 초록색 공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숨 막히는 비주얼을 만들어 낸 바 있다. 놀라울 정도로 아름답고 인상적인 비주얼을 자랑하지만, 그의 작품이 단지 시각적인 것에만 의존했다면 이 정도로 세계적인 안무가의 반열에 오르는 못했을 것이다. 그는 작품을 새롭게 해석하여 현대 관객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탁월한 작품 해석 능력과 스토리텔링, 독창적인 안무력까지 모두 뛰어나기에 기존 관객부터 새로운 젊은 관객들까지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다.

발레와 현대무용을 넘나들며 자신만의 새로운 작품을 만들고 있는 그는 자신의 고국인 스웨덴의 예테보리 댄스컴퍼니와도 세 번의 안무작을 내면서 깊은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에 서울과 부산에서 공연될 <해머(Hammer)>는 예테보리 댄스컴퍼니를 위해 안무한 작품 중 가장 최근작으로 2022년 초

연되었다. 예테보리는 수도 스톡홀름에 이은 스웨덴의 제2의 도시이자 항구 도시로, 말하자면 한국의 부산과 같은 곳이다. 예테보리 시에서 운영하는 오페라 극장의 상주 단체인 이 무용단은 아이슬란드 출신의 안무가 카트린 할의 리더십 아래 혁신과 도전을 주요 가치로 삼아 세계적인 안무가들과 작업하면서 실력 면에서나, 명성 면에서나 명실공히 스웨덴을 대표하는 현대무용단으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20여 개국 출신의 무용수들이 발산하는 문화적 다양성과 개성, 그리고 뛰어난 앙상블을 바탕으로 '유럽 현대무용의 최전선에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데, 이번 작품도 그러한 무용단의 개성과 특징이 잘 반영된 작품이다.

SNS 안에 갇힌 현대인들의 자화상

이번 작품 <해머> 역시 기존 현대 무용 작품에서 접할 수 없었던 압도적인 스케일과 독창적인 미감을 선보인다. 작품은 두 개의 파트로 나뉘어져 매우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완전히 다른 두 개의 공간 연출을 위해 1부와 2부 사이에 꽤 긴 인터미션(약 40분)이 주어진다. 공연은 두 사람이 얼굴을 맞대고 있는 듯한 모양을 한 희고 거대한 바닥이 드러나며 시작된다. 1부에서는 60년대 히피 문화를 상징하는 듯한 화려한 의상과 헤어을 한 무용수들이 나와 서정적인 음악에 맞춰 집단적이면서도 동시에 활기참과 따뜻함이 느껴지는 춤을 춘다. 서로가 눈을 마주치며 마치 집단 노동을 하듯, 또한 함께 어울려 춤추고 노래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듯 공동체의 밝은 에너지를 전달한다. 그러다가 분위기가 점점 바뀌면서 무용수들과 관객 모두가 핸드폰을 꺼내 들고 번쩍이는 불빛을 마주하며 작품은 끝난다. 인터미션 후에 만나게 되는 2부의 무대는 1부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이다. 2부는 검은색과 흰색의 날카로운 대비를 바탕으로 현대사회가 주는 싸늘한 개인주의를 표현한다. 마주하기보다 앞을 응시하며 서로를 밀치며 나아가고자 하는 욕망을 드러내는 사람들, 얼굴과 몸 속에 보형물을 넣고 똑같은 의상을 입은 사람

들, 자아를 잊은 채 오직 타인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현재 우리의 모습을 마주하게 된다. 그러다 무대는 어느새 한 편의 의미 없는 토크쇼 장으로 변한다. 즉, 2부는 집착적 자기도취와 진짜와 가짜가 구별될 수 없는 소셜 미디어 속의 모습으로 사는 현대인들을 풍자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간 후, 세계는 결국 균형을 되찾는 것으로 끝이 난다.

에크만의 작품은 직관적이고 직설적이다. 풍부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시각적으로 아름답고, 기발하고 때로는 쇼킹하지만 메시지 전달이 분명하고 주제를 발견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대중과 소통하고 싶은 에크만의 열망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 작품도 그렇다. <해머>는 에크만이 그리스 어느 도시의 식당을 방문했을 때의 경험에 기인해서 만들어졌다. 식당 안의 손님 중 누군가가 핸드폰으로 비디오를 찍기 시작하자 식당 안 모든 사람들이 안 보는 척하면서도 카메라를 의식하며 가식적인 모습을 연출하는 것을 보고 무엇이 진짜이고 가짜인지에 대한 의문과 더불어 핸드폰 카메라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세상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싶었다고 말한다.

시각적으로 압도적이면서도 세련된 무대 안에 날카롭고 분명한 주제를 유머와 풍자로 풀어내는 알렉산더 에크만, 그에게 극장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마법과도 같은 곳이다. 그리고 그는 이 마법이 관객 한 명 한 명에게 잘 전달되기를 바란다. 에크만은 한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나는 항상 극장의 마법에 대해 생각한다. 나에게 그 마법은 ‘현존’이다. 관객 모두가 함께 지금 여기에 존재하면서 자신의 삶이나 문제를 떠올리지 않고 완전히 몰입해 있는 순간, 그게 바로 마법이다.”

2025년 11월 부산의 어느 날, <해머>를 보러 다 같이 극장에 모인 우리들 모두가 이날만큼은 스웨덴에서 날아온 알렉산더 에크만이 던지는 질문과 마법의 세계에 기꺼이 빠져 보는 것은 어떨까.

예술로 빛나는 삶의 전환, 10년의 여정 위에 새로 그리는 무대

글 안주는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공연예술팀장

“공연을 본다는 건 단순한 취향의 선택이 아니라, 삶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는 경험이기도 하다.” 매년 시즌을 준비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올릴까’보다 ‘이 공연이 관객의 삶에 어떤 변화를 남길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한다. 공연 기획은 단순히 프로그램을 나열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과 예술이 만나는 순간을 설계하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2026년은 (재)부산문화회관이 재단법인으로 출범한 지 10년이 되는 해다. 그동안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민회관은 두 공연장의 특성을 살린 통합 시즌제를 운영하며, 서로 다른 공간의 색을 하나의 호흡으로 엮어가며 ‘BSCC 시즌’의 결을 완성해 왔다. 최근 부산에는 부산콘서트홀, 부산오페라하우스 등 새로운 공연장들이 문을 열며 예술을 만나는 길이 도시 곳곳으로 이어지고 있다. 부산문화회관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시민들이 더 다양한 예술을 가까

운 곳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의 폭과 깊이를 넓혀가고 있다. 공연장 간 협력을 통해 지역 전체의 공연예술 생태계를 풍성하게 만들고, 서울에 가지 않아도 부산에서 세계적인 무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콘텐츠의 질과 다양성 모두를 높여가고 있다.

이번 2026 BSCC시즌은 ‘부산문화회관 10주년, 예술로 빛나는 삶의 전환’이라는 슬로건 아래, 인간과 기술, 고전과 현대, 지역성과 세계성이 교차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특히 올해는 연극 장르에 다시 빛을 비춘다. ‘2026 대한민국연극제 부산’ 개최를 앞두고 <칼로막베스>, <홍도>, <로미오와 줄리엣 The Clown> 등 다양한 작품을 통해 부산의 연극 무대가 가진 생명력을 되살리고자 한다. 무용, 국악, 클래식, 뮤지컬을 넘어 연극은 여전히 사람의 언어로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는 장르이기 때문이다.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공연계 최고 권위의 상 - TONY AWARDS 6관왕 수상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2024년 브로드웨이에 진출해 제78회 토니 어워즈에서 작품상, 극본상, 연출상 등 총 6관왕을 석권한 월 애러슨과 박천휴의 대표작이 마침내 부산 무대에 오른다. 버려진 로봇으로 살아가던 두 헬퍼봇 ‘올리버’와 ‘클레어’가 우연한 만남을 통해 사랑의 감정과 그로 인한 상처를 배워가며, 사랑의 본질에 대해 묻는 따뜻하고 서정적인 작품이다. 2월 예정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연극 <시물라시옹>

기억이 불러온 가상은 현실의 위로일까, 망상일까

연극 <시물라시옹>

“실재와 가상의 경계가 사라진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는가” AI시대의 심리적 풍경을 세밀하게 그려내며, 사랑과 상실, 기술 발전이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기억과 정체성의 본질에 대해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진다.

1월 16일, 17일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뮤지컬 <인사이드 마>

진짜 나를 찾아가는 여정, 뮤지컬 <인사이드 마>

SNS 속 ‘보여지는 나’에 갇혀 살아가는 현대인의 이야기를 통해,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용기의 의미를 유쾌하게 풀어낸다. 화려한 이미지 뒤에 숨은 진짜 감정과 진심을 찾아가는 젊은 세대의 공감 뮤지컬. 3월 28일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연극 <칼로막베스>

피와 욕망, 권력에 눈먼 자들의 광기, 연극 <칼로막베스>

셰익스피어의 <맥베스>를 원작으로 한 고선웅 연출의 독창적인 해석 아래, 근 미래의 교화 시설 ‘세렝게티 베이’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무협액션극이다. 권력과 생존을 위해 칼을 든 인간들의 욕망과 폭력성을 한국적 감성과 강렬한 신체적 리듬으로 재해석한 이번 공연은 유머와 광기가 뒤섞인 압도적인 무대로 관객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4월 4일, 5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두 광대가 풀어내는 불멸의 사랑,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 The Clown>

광대 두 명이 셰익스피어의 고전을 자신들의 놀이로 재해석하며, 사랑과 죽음, 용서의 의미를 새롭게 바라본다. 유머와 슬픔이 공존하는 이 작품은 ‘사랑은 결국 삶을 향한 가장 용감한 선택’임을 전한다. 4월 24일, 25일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화류비련극 <홍도>

화류비련극의 레전드가 온다. 화류비련극 <홍도>

한국 연극사에서 신파를 새로 정의했다는 호평 일색의 화류비련극 <홍도>가 한층 원숙해져 돌아온다. 본 작품은 2015 이데일리 문화대상 연극부문 최우수상, 2016 예술의전당 예술대상 최우수상, 연출상을 받은 작품이다. 6월 12일, 13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집착에 눈먼 자들이 벌이는 그로테스크한 난장, 창극 <살로메>

소리꾼 김준수와 유태평양이 부산을 찾는다. 오스카 와일드의 원작을 한국 창극의 미학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사랑과 욕망, 광기로 무너지는 인간의 본능을 국악·서양악의 결합과 강렬한 시각 미학으로 풀어낸다. 8월 29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부산 클래식의 저력, 음악적 드라마의 완성

부산문화회관이 선사하는 클래식의 진심, 그 두 번째 이야기로 2025년, 브람스의 깊이 있는 음악 세계를 통해 지역 오케스트라의 저력을 선보였던 'Sound of Busan'이 2026년, 감성의 거장 차이콥스키를 통해 더 정제된 구성과 새로운 시선으로 다시 돌아온다.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2월 27일), 부산네오파하모닉 오케스트라(6월 19일), 유나이티드 코리안 오케스트라(8월 21일)가 함께 한다.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당신의 삶이 영화가 되는 시간, 시네마 파라디소 <Begin Again>

JTBC <슈퍼밴드>에서 우승하며 알려진 첼리스트 홍진호와 <팬텀싱어3> 출신으로 그룹 레떼아모르의 멤버이자 크로스오버 아티스트로 활발히 활동 중인 보컬리스트 박현수의 조인트 프로젝트로 국내 최고의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조운성과 의기투합한다. 3월 14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두 대의 피아노, 그 이상의 전율!

피아니스트 이혁&이효 듀오 <베토벤 합창 : 신들의 불꽃>

2025 쇼팽 콩쿠르 본선 진출자 피아니스트 이혁&이효의 만남으로 베토벤의 불꽃을 그리는 <베토벤 합창 : 신들의 불꽃>이 부산 무대에 오른다. '오케스트라보다 더 오케스트라다운' 편곡이라 불리는 리스트의 베토벤 교향곡 제9번 '합창'을 피아니스트 이혁과 이효가 오직 두 대의 피아노로 선보인다. 형제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치밀한 호흡으로 오케스트라와 합창이 어우러진 전 악장에 도전하며, 경이로운 감상의 시간을 선사한다. 3월 26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예술의초대' 11월호에 소개된 이혁&이효 듀오 콘서트가 연주자 사정으로 취소되었습니다. 관람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데뷔 70주년을 맞은, 건반 위의 구도자 <백건우 피아노 리사이틀>

1956년 부산에서 첫 독주회를 열며 70년 세월 동안 건반 앞에서 끊임없는 탐구를 이어온 '건반 위의 구도자' 백건우가, 슈베르트의 음악을 통해 또 한 번의



창극 <살로메>



홍진호 ©Sangwook Lee

박현수 ©Sangwook Lee



조운성

시네마 파라디소 <Begin Again>



<베토벤 합창: 신들의 불꽃>



<백건우 피아노 리사이틀>

깊은 울림과 새로운 여정을 관객과 나누는 특별한 무대가 펼쳐진다. 4월 3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라보>의 클래식 상자 - 하이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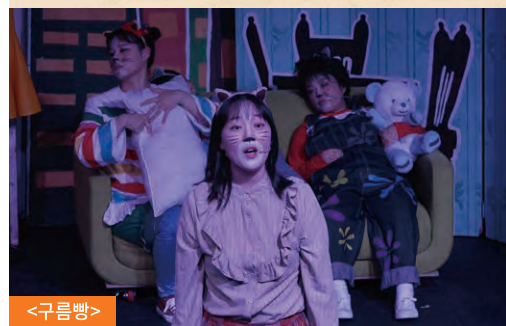
어린이들이 클래식을 친근하게 경험할 수 있는 '토요일의 키즈 클래식'이 2026년 새로운 시리즈로 돌아온다. 음악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예술교육형 프로그램으로, 고전시대 3대 거장 하이든·모차르트·베토벤을 주제로 선보인다. 첫 무대는 '고전음악의 아버지' 하이든이다. 시간여행 가이드 '라보'와 함께 오래된 '클래식 상자'를 열고 잠들어 있던 하이든을 깨우며 음악의 세계로 안내한다. 챔버오케스트라 연주와 미디어아트가 어우러진 <라보>의 클래식 상자 - 하이든>을 시작으로 모차르트와 베토벤편은 추후 공개 예정이다. 2월 28일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시대를 넘어 사랑받는 발레의 정수, 발레 <백조의 호수>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클래식 발레이자 발레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걸작 러시아 발레의 전설, 유리 그리고로비치가 빚어낸 명작 <백조의 호수>가 부산에서 올려진다. 3월 19일, 20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현대적 감각의 국악 시리즈 <살롱 드 국악>

오스트리아 출신 첼리스트 김 솔 다니엘과 한국의 가야금 연주자 윤다영이 2016년 독일 베를린에서 결성한 듀오 첼로가야금은 동양과 서양을 잇는 독창적인 사운드를 만들어낸다. 추다혜차지스는 소리꾼 추다혜를 중심으로 결성된 사이키델릭 사머닉 펑크 밴드다. 평안도, 제주도, 황해도 곳에서 쓰이는 무가와 레게, 재즈, 힙합, 뽕크, 록 등을 혼합해 그들만의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선보인다. <첼로가야금> 4월 10일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추다혜차지스> 4월 17일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가족과 어린이를 위한 무대도 한층 따뜻해졌다. <구름빵>, <블링블링 캐치! 티니핑 심포니>, <토장군을 찾아라!>가 그 중심에 있다. 특히 '토장군을 찾아라!'는 부산문화회관 신진예술인페스티벌을 통해 탄생한 창작 뮤지컬로, 청년 예술가들과 함께 만든 이 작품을 상설 프로그램으로 확장시키며 지역 예술의 가능성을 실천하고 있다.

예술은 언제나 사람을 향해 있다. 우리가 만드는 공연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고, 한순간의 울림이 오래 남는 기억이 되기를 바란다. 부산문화회관의 10년은 시민이 예술을 통해 스스로의 삶을 다시 바라본 시간이었다. 이제 우리는 그 여정의 다음 장을 연다. 예술이 삶을 비추고, 삶이 다시 예술로 이어지는 무대 위에서.



<2025년 대학생 작품제작·참여지원 사업>

청년 예술인을 위한 창작 무대

(재)부산문화회관이 부산광역시와 함께 지역대학생들과 청년 예술인들을 위한 무대를 마련한다. 부산광역시 주최, (재)부산문화회관 주관으로 추진되는 <2025년 대학생 작품제작·참여지원 사업>은 2022년부터 시작되어, 대학 및 지역 내 다양한 재능을 가진 예비 창작자들을 발굴 및 지원해 오고 있다. 그들의 수준 높은 작품을 제작 및 선보일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청년 예술인들을 비롯한 시민들에게도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받고 있다. 이번 연도는 사업 내 '작품제작 부문'과 참여(활동)지원 부문'으로 나누어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작품제작 부문의 경우, 공모를 통해 연극, 음악극, 오페라, 무용, 전통음악 5개 장르로 총 5개 팀을 선정하였다. 선정작은 10월 18일을 시작으로 11월 29일까지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소극장6번출구, 부산대학교 1016기념관 등 다양한 무대에서 만날 수 있다.

음악극 장르에서는 단체 '안디뮤직'의 음악극 <겔바속속 부산> 작품을 선보인다. '안디뮤직(An die Music)'은 부산을 기반으로 공연·제작·교육까지 아우르는 예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선정된 작품은 부산 사투리의 억척스러움과 따뜻한 정서를 영상·연극·해설을 결합해 풀어내고, 재즈·록·국악 사운드를 교차시켜 부산의 다채로운 이미지를 감



'안디뮤직' <겔바속속 부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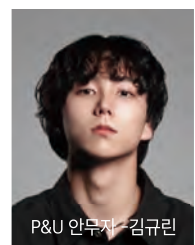
각적으로 표현한다. 본 공연은 11월 5일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무대에 오른다.

오페라 장르에서는 '아미치 델라 무지카 오페라단'의 창작 오페라 <놀부전>을 선보인다. 박창민 작곡, 김재희 대본의 이번 작품은 전통 설화 '홍부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탐욕과 갈등, 사회 풍자를 희극적 형식과 동시에 오페라로 연출하여 한국어 특유의 운율과 대사 중심 음악을 선보인다. 11월 7일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에서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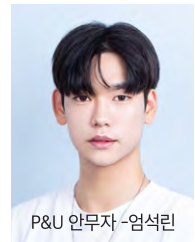


'아미치 델라 무지카 오페라단' <놀부전>

무용 장르에서는 청년 창작춤 프로젝트 팀 'DANCE PROJECT P&U'의 <프로젝트 P&U - 오래된 새로움> 작품을 선보인다. 부산대 한국무용 전공생들로 구성된 이 팀은 전통 춤의 깊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움직임을 실험하며 한국무용의 동시대적 표현을 탐구한다. 1부 <학, 깃들다>, 2부 <공존共存>으로 구성하여, 전통과 철학을 오늘의 몸으로 사유하고 표현하는 흔적으로 무대를 채운다. 11월 22일 부산대학교 내 1016기념관에서 관람할 수 있다.



P&U 안무자 -김규린



P&U 안무자 -임석린

전통음악 장르에서는 '한국민속음악연구회 남쪽풍류'의 무

작품제작 부문 공모 선정작

안디뮤직 | 음악극 <겔바속속 부산> 11월 5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아미치 델라 무지카 | 오페라 <놀부전> 11월 7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DANCE PROJECT P&U | 무용 <프로젝트 P&U - 오래된 새로움> 11월 22일 토요일 오후 5시 부산대학교 10.167기념관
 한국민속음악연구회 남쪽풍류 | 전통음악 <해원解冤, 풀어내리다> 11월 29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부산대학교 10.167기념관

참여지원 부문 제작 공연

부산대학생연합 × 동서대학교 × (재)부산문화회관 | AI융합 제작 뮤지컬 <한여름밤의 꿈>
 11월 19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전석 무료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051-630-5243~4



속음악 <해원解冤, 풀어내리다> 작품을 선보인다. 무속음악(굿 음악)의 원초적 생명력과 치유적 힘을 토대로, 관객이 '한명의 혼'이 되어 평안을 찾아가는 과정을 4막으로 풀어낸다.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물어 '살아있는 굿판'을 구현함으로써, 관객을 단순한 구경꾼이 아닌 치유의 주제로 이끈다. 11월 29일 부산대학교 내 1016기념관에서 관람할 수 있다.

참여(활동)지원 부문은 AI기술을 활용한 융합 제작 뮤지컬 <한여름밤의 꿈>을 부산대학생연합과 동서대학교 그리고 (재)부산문화회관이 공동제작으로 선보인다. ICT 기반 생성형 인공지능 뮤지컬로,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의 5대 희극 가운데 대표작인 <한여름밤의 꿈>을 동서대학교 뮤지컬 엔터테인먼트와 오세준 교수가 새롭게 각색하였다. ChatGPT(GPT-5)와 Perplexity Pro를 통해 대본과 가사 초안, 장면별 연출, 지문, 대사, 넘버 구조를 설계하였으며, SUNO Song Maker Capella를 활용해 가사와 스타일 가이드를 기반으로 음악 트랙과 보컬 샘플을 제작했다. 이를 통해 K-POP, 뮤지컬 넘버, EDM, 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음악적 구현을 시도한다. 이번 제작 공연은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음악적 구현을 시도한다.

또한, 동서대학교 산학협력단의 '2025년 산학 공동 기술개발 과제'에 <인공지능 기반 지역 대표 브랜드 문화 공연 뮤지컬 콘텐츠 개발> 과제로도 선정되어 인공지능과 공연예술의 융합을 통해 공연예술의 창작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과 동시에 지역의 대표 콘텐츠로 기대하고 있다. 공연은 11월 19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무대를 통해 처음 선보일 예정이다.

젊은 예술가들의 실험과 도전이 가득한 이번 무대는 관객에게 새로운 감동과 영감을 선사할 것이다. 부산에서 피어나는 새로운 예술의 순간을 직접 만나보길 바란다.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실내악 시리즈 IV

동행(同行)

동행 다양한 색채, 하나의 울림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선사하는 실내악의 정수인 기획음악회 실내악 시리즈 IV가 '동행'이란 주제로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부산시향의 비상임단원과 상임단원이 함께 무대에 오른다는 점에서, '동행'이라는 제목이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3중주부터 7중

주까지 다양한 편성의 음악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기회로 독일, 프랑스, 스웨덴, 이탈리아 출신 작곡가들 각각의 색채를 느낄 수 있는 뜻깊은 무대이다.

첫 곡은 스웨덴 낭만주의 작곡가이자 바이올리니스트였던 베르발트의 피아노와 목관악기를 위한 4중주다. 이 작품은 전통적인 피아노 4중주 구성과는 달리, 클라리넷, 바순, 호른이라는 목관 악기와 피아노가 어우러지는 독특한 편성이 특징이다. 섬세한 이 곡은 클라리넷 이지예, 바순 고수경, 호른 강민주, 피아노 이은정의 연주로 선보인다. 이어지는 두 번째 무대는 영화음악 '로미오와 줄리엣', '대부'로 잘 알려진 이탈리아 작곡가 로타의 플루트와 바이올린, 피아노를 위한 3중주다. 로타는 플루트를 사랑한 작곡가로, 플루트를 위한 다양한 실내악 작품을 남겼다. 이 곡은 강렬하면서도 긴장감 있는 구성과 로타 특유의 서정성이 어우러진 작품으로 바이올린 최연우, 플루트 배혜라, 피아노 이은정이 함께 연주한다.

세 번째 곡은 프랑스의 클래식 작곡가 라벨의 서주와 알



레그로이며, 정밀하고 섬세한 양상블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유연한 리듬감과 절제된 열정, 라벨 특유의 즉흥성이 살아있는 이 곡은 바이올린 임정은, 한운지, 비올라 황여진, 첼로 김판수, 클라리넷 이지예, 플루트 배혜라, 하프 정주희의 협연으로 연주된다. 마지막으로 선보이는 곡은 베토벤의 피아노 3중주 '거리의 노래'다. 베토벤의 실내악 중에서도 유쾌하고 밝은 분위기로 많은 사랑을 받는 이 작품은 오보에 조성현, 첼로 김판수, 피아노 이은정이 함께한다.

이번 '동행' 시리즈는 각기 다른 국적과 시대를 살아간 작곡가들의 음악이, 오늘날 하나의 무대 위에서 어떻게 조화롭게 만날 수 있는지를 증명해줄 것이다. 무엇보다 부산시향의 비상임단원과 상임단원이 함께 만들어내는 이번 무대는 '동행'이라는 이름처럼, 서로 다른 개성과 감성이 하나 되어 울려 퍼지는 진정한 음악적 동행의 순간을 관객에게 선사할 것이다.

11월 5일(수)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051-607-6000



연극 <빵아>

잊힌 장총, 역사를 말하다

2024년 한국 연극계를 뜨겁게 달군 화제작 <빵아>가 오는 11월 14일(금)부터 16일(일)까지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관객을 만난다. 이번 무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25 공연예술창작주체 사업으로 추진되는 ‘<빵아> 전국 화·세계화 프로젝트’의 첫걸음이다.

김은성 작가의 신작 <빵아>는 시나리오 소재를 찾던 한 물간 드라마 작가 ‘나나’가 낡은 99식 소총 ‘빵아’를 만나면서 시작된다. 한 자루의 총이 자신이 겪은 시간과 기억을 들려주는 순간, 무대는 과거와 현재, 현실과 허구의 경계를 넘나든다.

‘ 역사를 써먹으려는 작가’와 ‘ 역사를 살아낸 총’의 만남, 그 안에서 터져 나오는 질문은 단순한 역사극의 틀을 넘어선다.

<빵아>는 단순한 연극이 아니다. 연극, 무용, 음악, 영상이 결합된 다원융합극으로, 무대 위에서 장르의 경계를 허무는 실험이 펼쳐진다. 이 작품은 ‘뮤지컬과 전시, 신체극과 메타 연극’을 넘나들며 하나의 이야기를 여러 감각으로 체험하게 만든다.

시대의 폭력과 인간의 존엄이라는 주제를 다층적인 미디어 언어로 풀어내며, 관객에게 오감을 넘어선 깊은 몰입을 선사한다.

“제목을 정했어. 트리거. 총알을 발사하게 하는 방아쇠. 나는 이 작품을 나의 트리거로 만들 거야.” 이 대사처럼 <빵아>는 작가에게, 그리고 관객에게도 무언가를 ‘촉발시키는’ 방아쇠 같은 작품이 된다.



제공 (주)엠비제트컴퍼니

이번 부산 공연은 지역성과 협업의 의미가 크다. 지난 3월 부산문화회관이 함께 한 지역 공개 오디션에는 총 127명의 지역 예술인이 참여했으며, 그중 최종 3인이 주요 배역으로 발탁되었다. 드라마 작가 ‘나나’ 역에는 지난해 서울 공연에서 깊이 있는 연기를 선보인 부산 출신 전성민 배우가 다시 무대에 오른다. 낡은 장총 ‘빵아’ 역에는 부산 출신 배우 김지온이 새롭게 합류한다. 기존 멤버인 박동욱, 송상훈, 허영손, 박수야와 함께, 지역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이소희, 장희원, 박서후 배우가 멀티플레이어로 합류해 작품의 밀도를 더한다.

이번 <빵아> 무대를 단순한 상연 공간이 아니라, 지역 예술 생태계를 키워나가는 창작 기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특히 이번 무대는 ‘서울 중심’의 공연 유통 구조를 넘어, 지역 공연장이 창작 연극의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 공연 이후에도 2027년 영국 런던 초연을 위한 현지화 작업도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 본 프리뷰는 이주영 문화칼럼리스트의 칼럼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1월 14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11월 15일(토)~16일(일) 오후 2시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R석 6만원, S석 4만원

문의 02-6956-5699



젊은이들의 아름다운 선율, 부산의 미래를 울린다

2025 대학 교향악축제

하나 되는 무대, 다섯 대학의 빛나는 순간

<2025 대학 교향악축제>는 지역 대학의 문화적 자산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클래식 음악을 통해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하는 무대이다.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음악의 아름다움을 나누는 특별한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11월 26일부터 30일까지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며, 지역 대학들이 일자별로 참여해 각기 다른 매력을 담은 연주를 선보인다.

26일, 축제의 시작을 여는 무대는 동의대학교가 맡는다. 체계적인 전공 교육과 풍부한 공연 경험을 통해 전문적인 역량을 키우고, 서로의 음악을 존중하며 함께 무대를 완성해 나간다. 로시니의 <도둑까치> 서곡으로 시작해 하이든의 교향곡 제103번 내림 마장조, “북소리”로 마무리하는 총 8개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27일에는 경성대학교가 무대에 오른다. 박한솔의 용맹의 메아리로 포문을 열고, 슈베르트의 교향곡 제3번 D장조, D.200으로 마무리하는 5개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전공별 전문 교육을 바탕으로, 미래 음악인으로 성장하는 학생들의 열정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28일은 인제대학교가 이어받는다. 문병준의 Massive for Orchestra로 시작해 드보르작의 교향곡 제9번 마단조, Op. 95, “신세계로부터”까지, 6개 곡을 통해 음악의 본질을 탐구하는 학생들의 성장을 엿볼 수 있다.

29일은 국내 예술대학 중 가장 큰 규모인 부산대학교의 무대다. 베토벤의 <에그몬트> 서곡 마단조, 작품. 84로 시작하는 무대는 드보르작의 교향곡 제9번 마단조, OP. 95 “신세계로부터”로 마무리된다. 6개 프로그램을 통해, 젊은 연주자들의 실력과 잠재력을 경험할 수 있다.

30일, 축제의 마지막 날은 부산·경남 최초의 음악과로 개설되어 반세기가 넘는 전통을 이어온 동아대학교 음악학과의 무대다. 차이코프스키의 환상 서곡 ‘햄릿’ 작품. 67로 시작해 베토벤의 교향곡 제8번 바장조, 작품. 93으로 마무리해 총 6개의 연주가 펼쳐진다. 반세기 넘는 전통 위에 쌓인 음악적 깊이와 젊은 에너지가 어우러져 깊은 감동을 전할 예정이다.

부산 지역의 젊은 음악가들이 선사하는 아름다운 선율을 통해 클래식 음악의 매력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축제를 함께 즐겨보길 바란다.



11월 26일 수요일~30일 일요일 평일 오후 7시 30분, 주말 오후 5시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051-607-6000



연극 <오함마백씨행장 완판본>

삶과 노동의 순간

철거 노동자의 독백으로 풀어내는 연극 <오함마백씨행장 완판본>이 오는 11월 28일(금)과 29일(토), 오후 7시 30분과 오후 2시,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에서 관객을 만난다. 이 작품은 주인공 고윤호의 일상 공간과 철거를 진행하는 구옥의 공간, 그리고 기억의 공간들을 빛과 그림자, 오브제를 통해 이야기가 진행된다. 2023년 국립극단 '창작공감: 회곡' 공모에 선정된 이 회곡은 철거 현장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작가가 직접 직필한 '삶의 기록'으로 주목받았으며, 철거 노동자의 독백으로 구성된 회곡이 주는 메시지와 문학적인 은유로 연극계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무대는 새벽 출근을 준비하는 고윤호의 독백으로 시작된다. 그는 철거 노동자로, 낡은 구옥을 해체하거나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드는 일을 한다. 인물의 망치 가방에서 등장하는 다양한 오브제들은 때로는 등장인물이 되고, 상황을 상징하는 장치가 되어 극을 이끈다. 빛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핸드후래쉬, 철거 작업 조명, LED 조명으로 공간을 창조하고 확장시키며 변화한다. 빛이 만들어낸 그림자는 인물이 처한 감정과 현실을 담아내며, 극의 주제를 은유적으로 드러낸다. 철거가 끝난 곳에는 다져진 터만 남는 것처럼, 무대는 죽음을 떠나보낸 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

이 작품의 작가 이용훈은 회곡작가이자 시인으로, 2018년 '내일을 여는 작가' 신인상으로 등단하고, 2022년 첫 시집 <근무일지>를 출간했다. 공사 현장의 잡부, 택배 노동, 청소 노동 등 다양한 일을 경험했으며, <근무일지>와



<오함마백씨행장 완판본>은 그의 삶과 노동의 궤적이 고스란히 담긴 기록이라 할 수 있다. 삶과 노동의 구체적인 순간들은 이용훈 작가 특유의 시선과 시어로 서사화되어 있으며, 이는 작품 전반에 깊은 울림을 더한다.

연출은 오치운이 맡았다. 그는 보편적인 주제를 실험적인 연극 언어로 풀어내며, 관객이 연극 무대에서만 느낄 수 있는 작품을 연출했다. 배우로도 활동 중인 그는 2024년 <오함마백씨행장 완판본>으로 서울미래연극제에서 '연기상'을 수상했으며, 이번 공연에서 특유의 화법과 깊은 진정성으로 '고윤호' 인물을 창조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오함마백씨행장 완판본>은 철거라는 사회적 문제를 다루며, 메시지를 전달하는 주제 의식을 담고 있다. 한 철거 노동자의 삶과 죽음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살아가는 것'에 대한 질문과 마주하게 된다.

11월 28일(금) 오후 7시 30분, 11월 29일(토) 오후 2시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R석 4만원, S석 2만원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051-607-600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제50회 청소년 협연의 밤 2025 꿈과 감성이 있는 젊은 음악회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특별연주회 “청소년 협연의 밤”이 올해로 50번째 무대를 맞이한다. 오는 11월 21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은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학생들에게는 국악관현악단의 협연을 통한 자긍심 고취와 무대 경험을 제공하고, 국악 전공생들에게는 동기부여, 관객에게는 국악의 다채로운 매력을 선보이는 자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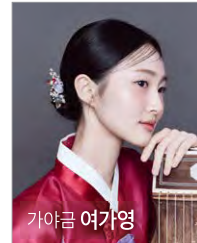
첫 무대는 해금 연주자 이종민이 선보이는 해금 협주곡 ‘혼불 V - 시김’이다. 최명희의 대하소설 혼불 제5권 ‘아소 님하’에서 받은 미학적 이미지를 해금 협주곡으로 풀어 넣어, 단조롭지 않은 선율로 감성을 자극한다. 이어지는 무대는 25현 가야금과 국악관현악을 위한 변주곡 ‘한오백년’이다. 메나리조로 되어 있는 민요 ‘한오백년’의 주제 선율과 이를 바탕으로 한 13개의 변주곡으로 구성된 곡으로, 25현 가야금의 다양한 주법과 전통적인 가야금의 특성을 여가영이 보여줄 예정이다. 세 번째는 피리 협주곡 ‘달의 눈물’이다. 한국 여인의 애환을 잘 담은 메나리 선율을 주제로 창작한 곡으로 피리 이준섭이 굽직한 떨림과 서의 울림으로 곡에 담긴 감정을 전달하고자 한다.

네 번째 무대는 3개의 현악기를 위한 산조협주곡 ‘시절풍류’다. 가야금 김민지, 거문고 김명진, 아쟁 정현정이 함께해 느린 장단에서 빠른 장단으로 이어지는 전통음악에서 가야금, 거문고, 소아쟁의 산조 가락에 맞게 관현악 구성으로 풀어낸다. 다섯 번째는 양금 연주자 김태경, 조훈화(더 금)가 연주하는 양금 협주곡 ‘양금시나위’다. 경기무속장단의 낙궁과 터벌림장단, 엇모리, 자진모리, 휘모리 위에 남도계면 선율을 입혀 개량 양금의 반음계적 표현과 투스틱을 활용하여 화려한 테크닉으로 타악적인 요소를 극대화하였다. 마지막 무대는 사물놀이와 국악관현악을 위한 ‘태양의 신’으로 암흑의 시대에 밝은 빛이 도래하여 간절한 기도와 염원하는 바들이 모두 이루어지고 희망으로 피어남을 표현한다. 사물놀이 심재환, 나철주, 서대원, 손상혁이 함께한다.

이번 공연은 제1회 협연자 출신 박성희(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성악 수석)의 사회와 이경은, 여승현의 지휘로 더욱 뜻깊은 무대가 될 예정이다. 다양한 악기, 깊이 있는 작품, 그리고 미래를 이끌 젊은 연주자들의 열정이 함께하는 자리, 제50회 청소년 협연의 밤 ‘2025 꿈과 감성이 있는 젊은 음악회’ 무대 그 의미 있는 순간을 함께해 보길 바란다.



해금 이종민



가야금 여가영



피리 이준섭



가야금 김민지 거문고 김명진 아쟁 정현정



양금 김태경, 조훈화(더 금)



사물놀이 서대원, 심재환, 나철주, 손상혁



11월 21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전석 5천원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지휘 이경은



지휘 여승현



해금 이종민



가야금 여가영



피리 이준섭



양금 김태경

양금 조훈화



거문고 김명진

아쟁 정현정

가야금 김민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50회 청소년 협연의 밤 꿈과 감성이 있는 젊은 음악회



사물놀이 심재환 나철주 서대원 손상혁

Program

사회 박성희

해금 협주곡 "혼불 V - 시김"
25현 가야금과 국악관현악을 위한 변주곡 "한오백년"
피리 협주곡 "달의 눈물"
3개의 현악기를 위한 산조협주곡 "시절풍류(時節風流)"
양금 협주곡 "양금시나위"
사물놀이와 국악관현악을 위한 "태양의 신"

2025. 11. 21. 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BMTMO SEASON 2025

11월 한달간 펼쳐지는 음악의 향연

부산 원먼스 페스티벌

우리동네 문화살롱페스타 6th

우리동네문화살롱

2025 부산원먼스페스티벌, '우리동네문화살롱페스타'가 6월에 이어서 오는 11월에도 개최된다. 부산원먼스페스티벌은 부산소공연장연합회가 주최·주관하고 부산광역시 후원하는 축제로 우리의 일상이 맞닿아 있는 부산의 각 지역 곳곳에 위치한 우리 동네 소공연장에서 클래식, 재즈, 국악, 인디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펼쳐지는 음악 축제이다. 시민들이 집 근처에 있는 예술공간에서 편하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다는 의미를 담은 '우리동네문화살롱페스타'는 한 달 동안 각 구에 위치한 소공연장에서 릴레이로 펼쳐지는 음악의 대향연으로, 공연장마다 특색있는 예술팀이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

라이징팀 콘테스트

부산의 신진 예술인을 발굴하고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부산 라이징팀 콘테스트'가 올해도 진행된다. 1차 심사는 지난 9월 29일 순수음악과 대중음악 두 분야로 나누어 참가팀들의 지원 서류와 연주 영상을 통해 완료했으며, 2차 심사는 경연대회 형식으

로 오는 10월 18일 토요일 오후 6시 'KT&G 상상마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시상은 각 분야별로 3개의 팀(총 6팀)에게 대상(부산시장상) 70만 원, 최우수상 50만 원, 장려상 30만 원의 상금 및 상장을 수여한다. 콘테스트 후에도 협회의 사업 및 프로그램을 통해 선별된 신진 예술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공연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프롬나드 콘서트

부산 원먼스페스티벌의 시작을 알리는 프롬나드 콘서트가 11월에는 색다르게 부산관광공사에서 주최하는 부산 스트리트 페스타와 연계하여 부산 남포동의 거리에서 열린다. 이번 프롬나드 콘서트는 11월 1~2일 이틀에 걸쳐 오후 5시 30분부터 약 한 시간 진행되며, 1일에는 '음악그룹 걸', '효정리 밴드'가, 2일에는 '무드 스페이스'와 '홍영호 식스텟'이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11월 1일에는 부산 라이징팀 콘테스트 1·2기 수상팀인 재즈밴드 '어센트'와 클래식 단체 '트레프 앙상블' 두 팀이 특별 무대에 오르게 된다. 7시 반부터 약 40분간 열리는 이 공연은 광복로의 한 건물 2층 발코니에서 거리를 향해 이색적인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며, 대중적인 곡들을 준비해 관객들과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는 연주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11월에 참여하는 소공연장으로는 오션컬처팩토리, 스페이스 수정, 비바아젤 챔버홀, 리얼라이즈, 나눌락, 금사락, 아트센트, 재즈프레소 레코드바, 공간 523, 포포스튜디오, BFGC 음악홀, 더 락, 기타고라스, 스페이스 움, 필슈파스, 음악공간 길, 살롱 드 부산 1023, 아포지테라스, 무사이, 센텀아트홀, BOF아트홀, 뮤지카코스, 금정아트홀, 전포와일드클럽, 아프리카, 유정1995, 담쟁이, 가람아트홀, 게네랄 파우제, 나무의자가 있으며, 이들 공연장에서 장르별로 다채로운 무대가 관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일시 11월 1일(토)~30일(일)

장소 부산지역 40여 개 소공연장

입장료 전석 1만 원

문의 (사)부산소공연장연합회 557-3369

<https://bsaha.or.kr/html/>

11월 1일(토) 오후 2:00 **오션컬처팩토리**

Layers Jazz Project

각 장르를 대표하는 뮤지션들이 만나 클래식과 재즈 두 장르가 하모니를 이루어 즉흥적이면서도 정교하고 리드미컬한 연주를 선보이는 팀으로, '우리가 사랑한 추억의 애니메이션'이란 주제로 특별한 클래식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 피아노/ 강혜인 •베이스/ 심규환 •드럼/ 홍영호
- 바이올린/ 이강주 •첼로/ 정혜주 •클라리넷/ 강철주



11월 2일(일) 오후 4:00 **스페이스 수정**

Fall, immersed in Classics

'클래프앙상블'은 창단 당시부터 클래식 음악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전파하기 위해 결성되었고, 매해 정기연주회를 개최하며 그동안 다양한 음악적 여정을 이어 왔다. 각기 다른 악기의 고유한 색깔을 하나로 엮어, 관객에게 새로운 음악적 경험을 선사하고자 한다.

- 바이올린/ 이동희, 김상희 •비올라/ 김민경 •첼로/ 이강수
- 피아노/ 이수민



11월 3일(월) 오후 7:30 **비바아일랜드 챔버홀**

Do you Like Ensemble?

라이크앙상블은 부산 경남지역의 중심으로 활동하는 음악인들이 모여 2015년에 창단되었고, 부산을 대표하는 연주자들이 모인 부산트리오와의 콜라보 공연과 함께 피아졸라의 사계도 감상할 수 있다.

- 바이올린/ 이진, 백재진 •첼로/ 조명환 •피아노/ 정은정, 권준



11월 4일(화) 오후 8:00 **리얼라이즈**

Let it bloom in you

폭발적인 에너지와 감성의 경계를 넘나드는 소프트록, 하드록 밴드 헤드터너. 강렬한 사운드와 드라마틱한 무대로 관객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는다. 무대를 흔들고, 심장을 울리는 그들의 음악을 경험하길 바란다.

- 보컬/ 김나인 •기타/ 장재호 •베이스/ 김진재 •드럼/ 이기태



11월 5일(수) 오후 7:30 **나눔락**

스크린의 선율 : 영화와 애니메이션 속 음악

이끌림 앙상블은 클래식부터 현대음악까지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아름답게 연주하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과 부산을 중심으로 창단 이후 앙상블뿐만 아니라 개인 연주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 청중들로부터 호평과 주목을 받고 있다.

- 바이올린/ 강혜원 •피아노/ 김다윤 •첼로/ 박우수 •플루트/ 오승은



11월 6일(목) 오후 7:00 **금사락**

Fall in Jazz Concert

보컬 최소진을 중심으로 구성된 퀸텟으로, 스탠다드 재즈부터 영화음악까지 다양한 장르를 선보이는 팀이다. 부산에서 활동하는 실력과 세션들로 구성되었다. 제멋처럼 가을의 낭만에 빠질 수 있는 분위기 있는 재즈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 보컬/ 최소진 •피아노/ 장세연 •색소폰/ 윤관형
- 베이스/ 신세영 •드럼/ 홍영호



11월 7일(금) 오후 7:00 **아트센터**

A Love until end of time

이 공연은 아름다운 선율과 섬세한 감정표현을 통해 음악이 주는 위로와 감동을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가을의 끝자락인 11월, 서정적인 한국 가곡과 웅장한 오페라, 감미로운 팝과 뮤지컬 넘버가 어우러져 한 편의 드라마 같은 무대를 선사한다.

- 테너/ 조윤환 •소프라노/ 박성희 •피아노/ 정희숙



11월 8일(토) 오후 8:30 **재즈프레스 레코드바**

위나밴드의 재즈 클럽 라이브

Jazz를 기반으로 팝, 가요 등 다양한 장르들을 위나밴드만의 유니크한 사운드로 편곡 및 재해석하여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져있는 공연 레퍼토리로 관객과 소통하는 음악을 지향한다. 연주자들 각각의 뛰어난 테크닉 또한 위나밴드만의 독보적인 사운드 퀄리티 및 감상 포인트다.

- 피아노/ 민주신 •베이스/ 박주민 •드럼/ 허여정



11월 9일(일) 오후 5:00 **공간523**

첼로와 피아노로 함께 듣는 '모던 판소리'

국악 그룹 <헤이브>는 한국 음악가와 클래식 음악가가 만나 우리나라 대표 성악 '판소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모던 판소리를 통해 우리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화·로·애·락을 남도의 굵은 성음과 아름다운 피아노, 마음을 울리는 첼로의 선율에 담아낸 곡들로 각자의 마음 한 편에 있을 희망과 꿈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란다.



11월 10일(월) 오후 8:00 **포포 스튜디오**

Starlit Tale

한 편의 동화처럼 여러분들을 음악 속 이야기로 초대한다. 별빛이 수놓인 밤, 조용히 스며드는 멜로디와 감미로운 보컬, 이 공연은 마음을 어루만지는 마법같은 순간을 선사한다. 현실은 잠시 멈추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속에 따뜻한 울림을 남길 라이브를 기대하길 바란다.

- 보컬·기타/ 존기븐스, 구차원



11월 11일(화) 오후 7:30 **BFGE 음악홀**

'Prism Strings' 현의 빛깔

이번 공연을 통해 부산 지역 관객들에게 클래식 기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역 관객분들께 좀 더 가까이 가고자 한다. 풍성한 프로그램과 연주로 클래식 기타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뜻깊은 무대가 될 것이다.

• 클래식기타/ 고충진, 박정현, 정어진



11월 12일(수) 오후 6:30 **더 락**

바람소리 오카리나 듀오 연주회

부산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오카리나와 팬플룻 연주가인 김준화와, 금속성 있는 독특한 소리가 나며 아이리쉬 휘슬로도 알려진 틴휘슬 연주가 장민석, 그리고 그에 걸맞는 아름다운 선율의 피아노 연주자 김정욱이 함께 선보일 오카리나 클래식 무대를 기대하길 바란다.

• 오카리나·팬플룻/ 김준화 • 틴휘슬/ 장민석 • 밴드/ 판다뮤직



11월 13일(목) 오후 7:30 **기타고라스**

기타, 마음을 물들이다

일반 대중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클래식 팝 가요, 영화 OST 등 친숙한 명곡들을 주로 연주하여 관객들의 호응도가 높으며 매 연주에서 여러 재미있는 요소와 입담 컨셉으로 관객과 가능한 가깝게 호흡하며 소통할 수 있는 연주회를 추구한다.

• 클래식기타/ 신성진, 윤병용



11월 14일(금) 오후 7:30 **스페이스 음**

메리 스트링 앙상블의 '9 Emotions'

역량 있는 각 연주자의 개성과 강렬한 표현력을 바탕으로 앙상블의 매력을 선보이며, 전통과 미래가 교차하는 무대를 만들어 가고 있다. 깊이 있는 해석과 풍성한 사운드로 마음을 울리는 연주를 선사하여 모든 이들에게 클래식 음악이 주는 감동과 위로를 선물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단체이다.

• 바이올린/ 원아름, 전수민, 표혜진, 김민규 • 비올라/ 양승호, 이상혁
• 첼로/ 문혜정, 송예슬 • 콘트라베이스/ 이재원



11월 15일(토) 오후 7:00 **필립파스**

클라온의 선율

클라온은 2019년 창단되어 신선한 기획과 탄탄한 실력으로 많은 관객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바이올린/ 박은경 • 클라리넷/ 이한석
• 피아노/ 박다은



11월 16일(일) 오후 2:00 **음악공간 킷**

뜨락과 노다가세

국악그룹 뜨락은 뜨거운 열정의 '뜨'와 '락'을 담아, 전통과 컨템포러리의 크로스오버를 시도하는 단체다. '옛것이 지루하지 않고 재밌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전통의 틀은 지키되 동시대 감성을 더한 진정성 있는 창작으로 대중과 소통한다.



11월 17일(월) 오후 6:30 **살롱 드 부산 1023**

Concert 美夢

악기 고유의 개성과 소리를 섬세하게 조합해 새로운 음악적 감성을 창조한다. 서정적이고 감각적인 연주를 통해 관객과 깊이 소통하며, 신선한 음악적 경험을 선물하는 것이 미몽의 목표다.

• 기타/ 안석호 • 피아노/ 김영준 • 드럼/ 유한수 • 가야금/ 김태리
• 플룻/ 김경희 • 베이스/ 고보성



11월 18일(화) 오후 7:30 **아포지테라스**

낮설지만 낮익은: 클래식과의 첫 만남

녹턴 스트링 콰르텟은 주요 공연장 및 지역 문화행사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다. 특히 가족 단위 관객을 위한 편안한 공연으로 클래식 음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의 일상에 스며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할 예정이다.

• 바이올린/ 금잔디, 김준형 • 비올라/ 이상엽 • 첼로/ 김동준



11월 19일(수) 오후 7:30 **무사이**

아싸라비아

2011년에 만들어진 아이씨밴드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는 세상, 사람과 자연의 분기점으로서 음악을 통해 서로의 소통을 위한 창작활동을 하는 3인조 어쿠스틱 밴드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회문제나, 자연에 대한 공감 그리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이야기들을 노래로 만들고 공연하고 있다.

• 보컬·퍼커션/ 심종석 • 보컬·기타·하모니카/ 황태현
• 보컬·기타·카주/ 김창하



11월 20일(목) 오후 7:00 **센텀아트홀**

Tango en el Cine 영화 속 탱고

다양한 의미를 통해 누구나 탱고 음악을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 매력을 전달하고자 하는 팀이다. 누에보 탱고의 창시자인 아스토르 피아졸라야의 명곡과 더불어, 친친탱고의 자작곡을 연주하며 그들만의 색깔로 빛나는 음악을 선사한다.

• 반도네온/ 김종완 • 피아노/ 이안나 • 바이올린/ 강소연
• 퍼커션/ 이영훈



11월 21일(금) 오후 7:30 **BOF아트홀**

트롯테너 김지현의 노래세상

트롯테너 김지현은 독창적인 테너 성악을 바탕으로 클래식과 트로트를 넘나드는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한 크로스오버 뮤지션. 오페라 무대에서 다져진 탄탄한 실력과 감성적 표현력으로 트로트에 새로운 해석을 더하며,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무대로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한다.

•트롯테너/ 김지현 •바리톤/ 장병혁, 부산주니어뮤지컬단



11월 26일(수) 오후 6:30 **유정1995**

Melody in the Mountain

가을에 어울리는 서정적이고 풍부한 감성의 곡들로 깊은 울림을 선사하며, 게스트 연주자 최웅은 독주와 함께 3중주 협연, 그리고 특수악기(Guitar Ron)으로 독창적인 무대를 더할 예정이다. 클래식, 영화음악, 남미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클래식 기타/ 서승완, 김경태 •게스트/ 최웅



11월 22일(토) 오후 7:00 **뮤지카오스**

오페라와 영화 음악의 향연

테너 김준연은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다져진 탄탄한 오페라 및 성악 연주 경력을 바탕으로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부산 경남을 대표하는 루체 현악 앙상블과의 협업 공연에서도 그의 뛰어난 음악성과 오페라적 감성이 돋보일 것으로 기대해주시길 바란다.



11월 27일(목) 오후 7:30 **담쟁이**

맛 있는 콘서트

가요, 클래식, 팝, 탭 등 편·작곡해서 연주하는 삼방울자매는 누구나 쉽고 즐겁게 음악에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삼방울자매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클래식 무대를 즐겁게 감상하길 바란다.

•첼로/ 문혜정 •바이올린/ 원아름 •피아노/ 정은희



11월 23일(일) 오후 5:00 **금정아트홀**

클래식과 현대의 만남

예술을 통한 국민의 정서 함양 고취와 전문 연주인들의 활동을 지원하며 문화예술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공연을 통한 사회적 기부 활동까지 모든 목적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또한, 고전적인 현악 앙상블의 매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내고, 청중에게 클래식 음악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소개하고자 한다.



11월 28일(금) 오후 7:30 **가람아트홀**

Latin Breeze

기타와 콘트라베이스, 퍼커션이라는 독특한 편성은 리듬과 멜로디, 하모니의 균형을 섬세하게 살리면서도 기존 클래식 기타 공연과는 차별화된 다채로운 사운드를 선보인다. 클래식과 월드뮤직의 경계를 허물고 하나로 어우러지는 열정의 라틴음악에 빠져보길 바란다.

•기타/ 김경태 •콘트라베이스/ 김대경 •퍼커션/ 이영훈



11월 24일(월) 오후 7:00 **전포와일드클럽**

Retro Futurism: Indie Live Night

밴드라는 색깔을 유지하면서 보다 접근하기 편한 사운드, 그리고 특색있는 보컬의 음색이 더해져서 개성이 넘치는 다양한 음악들을 선보이고 있는 버닝소다와, 포크, 팝, 랩 뮤직 등 다양한 음악을 플레이하는 우주왕복선 사이드미러는 소년의 목소리와 가사로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선보이고자 한다.

•보컬/ 기타/ 백승원 •기타/ 김선훈, 강재근 •보컬/ 미소



11월 29일(토) 오후 1:00 **게네랄 파우제**

FROM

다양한 장르의 익숙한 곡들을 재즈라는 장르에 접목하여 누구나 친근하게 들을 수 있는 연주를 제공한다. 각기 실력과 연주자들로 오랜 시간 함께 합을 맞추어 온 팀으로 리더 민주신의 입담과 아티스트들의 꾸밈없는 이야기로 진행되어 수준 높은 연주를 선보일 것이다.

•피아노/ 민주신 •퍼커션/ 김비오 •반도네온/ 김종완



11월 25일(화) 오후 7:00 **아프리카**

영화를 품은 재즈

재즈 보컬리스트이자 작사, 작곡가인 이효정의 오리지널 곡들과 새롭게 재해석한 재즈 스탠더드를 들려주는 이시대의 노래하는 음유시인 효정리밴드와 함께 영화음악을 주제로 다양하고 특별한 재즈무대를 감상해주시길 바란다.

•보컬/ 이효정 •콘트라베이스/ 박주민 •피아노/ 장세연
•드럼/ Alain O. Samada



11월 30일(일) 오후 7:00 **나뭇잎자**

하늘타리 나눔 콘서트

하늘타리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음악을 통한 사회 공헌을 목표로 활동하며,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희망을 전달하고 있다. 하늘타리의 활동은 음악이 가진 힘을 사회에 환원하고 좋은 사례로 평가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과 기부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보컬/ 기타/ 차은결, 최근호, 조하늘, 이경은, 신정아



2025
제13회 부산소극장축제
연극포스티벌



일시 10월 31일(금)~11월 15일(토)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5:00

개막식 오후 6:30, 폐막식 오후 4:00

입장료 전석 3만 원(사전예매 시 50% 할인)

문의 051-723-2013

장소 나다소극장, 소극장6번출구, 레몬트리소극장,
하늘바람소극장, 공간소극장, 용천지탈 소극장,
열리아트홀, 액터스소극장

축제의 계절, 가을. 2025년 부산소극장연극페스티벌이 13번째 시즌으로 돌아왔다. 올해는 부산부터 통영까지, 총 8편의 작품이 무대에 오른다. 부산소극장연극페스티벌은 지역 소극장 문화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매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상업적 기획 일색인 공연계 흐름 속에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깊은 감동을 주기 위해 소극장만이 가질 수 있는 매력을 듬뿍 담아 연극을 만들어 사람들과 만나고 있다. 연극과 소극장이 함께 빛어내는 진정성 있는 무대 속 어떤 그림이 채워질지 감동의 현장을 직접 만나보길 바란다.

아버지와 살면

- 극단 판플 (개막작 / 지역 우수 초청공연)

10월 31일(금)~11월 2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5:00 **나다소극장**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3년 후, 히로시마 도서관에서 일하는 미쓰에는 원폭으로 사랑하는 이들을 잃고 홀로 살아남았다는 죄책감 속에서 지낸다. 그러던 어느 날, 도서관을 찾은 청년 기노시타와 마주하며 잊고 지냈던 설렘을 느끼지만, 행복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를 다그치며 마음을 닫는다. 그때, 딸의 굳게 닫힌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아버지 다케조는 딸을 위해 ‘연애 응원단장’을 자처하고 나선다. 익살과 따뜻함으로 무장한 다케조와 죄책감에 갇힌 미쓰에, 두 사람의 팽팽한 거품은 과연 누구의 마음을 움직이게 될 것인가.

- 연출 | 양재영
- 출연 | 박찬영, 유시화

새들의 회의

- 극단 맥 (지역 우수 초청공연)

11월 2일(일)~4일(화)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5:00 소극장 6번출구



하늘을 나는 새들이 모여 자신들을 이끌 위해
한 왕을 찾아야 한다고 결심한다. 그들은 신비로운 왕 “시모르”를
찾아 떠나기로 하고, 후프새가 길을 안내한다. 하지만 시모르를
만나기 위해서는 일곱 개의 계곡을 통과해야 한다. 이 계곡들은
탐욕, 사랑, 지식, 자유, 통일, 경이로움, 그리고 죽음을 의미한다.
수많은 새가 이 여정에서 포기하거나 죽음을 맞지만, 결국 시모르
에게 도착한 그들이 마주한 것은 거대한 거울이었고, 이 거울 속
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 그들이 찾던 시모르는 바로 그
들 자신이었고, 참된 깨달음과 자기 발견의 과정이 곧 여정의 목
적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 작, 연출 | 세르쥬 바르부샤
- 출연 | 이태규, 심미란, 손혜윤, 마상렬, 홍성률, 신수아

티끌 모아 티끌

- 극단 데일리드라마 (젊은 연출가 소개전)

11월 3일(월)~5일(수) 오후 7:30 레몬트리 소극장

낡은 구두가게에서 구두를 닦는 지지는 세상
의 모든 발과 그 발의 주인이 걷는 길에 대해
사색한다. 어느 날 이 가게의 단골 손님인 티티와 비비가 만나 서



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소유권 이전'과 '재분배 업무'라는 각자 직업의 특성을 살려 연대하기로 의기투합한다. 그러던 중 귀족 아가씨 미미와 하인 피피가 등장하여 이들의 연합에 변수가 발생한다.

- 작, 연출 | 이영섭
- 출연 | 박상규, 황창기, 방도용, 강정희, 심선화

웨딩드레스

- 극단 아센 (지역 우수 초청공연)

11월 6일(목)~8일(토)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5:00 하늘바람소극장



남편을 오래전에 여의고 홀로 사는 엄마와 나 이 마흔이 넘도록 시집도 가지 않은 노처녀 딸. 그녀들은 서로 떨어져 살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왕래하며 지낸다. 그녀들의 만남은 시집가라는 엄마의 성화와 엄마의 일상에 대한 딸의 불만 가득한 충고로 늘 티격태격이다. 상대에 대한 애정을 각자의 방식으로 강요하며 서로에게 생채기를 내고 살아가는 그녀들의 마음속 깊은 이면에는 가족에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깊은 외로움을 지닌 엄마와 딸로서의 서로에게 안쓰러움과 애정이 공존한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엄마' 그 엄마의 가슴속에 언제나 아련한 이름, '딸'. 모녀의 일상 속 다툼과 각기 다른 사랑 방식을 통해 이 시대 가족의 의미와 가족 간의 진정한 이해와 사랑에 대한 가치를 되돌아본다.

- 연출 | 호민
- 출연 | 구민주, 황장미

ㅋㅋㅋ

- 공연예술창작집단 어니언킹
(지역 우수 초청공연)

11월 7일(금)~9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5:00 공간소극장



어린 시절의 기억 속에 있던 누군가와 노년에 다시 만난다면 어떨까? 힘겹게 노년을 보내는 두 노인. 이루지 못했던 어린 시절의 사랑을 노인이 되어 만난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이야기다. 시골 농촌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며 싹을 틔웠던 사랑이 이제야 다시 나타나 겨우 이야기를 나눈다. 좁다란 골목길을 걷고 또 걸으며, 지난 그 시절의 이야기를 나눈다. 지난 기억이 선명해질 때까지, 행복했던 순간이 선명하게 되살아날 때까지, 그리고 두 사람의 인연이 끊어질 수밖에 없던 이유가 선명해질 때까지.

- 연출 | 전상배
- 출연 | 황미애, 전성호

봄이오면

- 극단 벚수골 (지역 교류 초청공연 - 통영)

11월 11일(화)~12일(수) 오후 7:30 용천지탈소극장



'우리 책방' 주인인 경호와 치매에 걸린 두향. 책방을 폐업하려고 책을 정리하고 있는 경호에게 두향이 다가와 '매화' 책을 건네주며 이들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두향은 경호에게 편지 쓰는 것을 도와달라며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 두향에게는 자신의 첫사랑인 남자친구가 있고, 자신의 꿈은 남자 친구를 선생님이로 만드는 것과 한글을 배우는 것, 자신의 책을 내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두향이 들고 온 '매화' 책을 읽어본다.

- 대표, 연출 | 장창석
- 작가 | 김선율
- 출연 | 이규성, 김현수

먼지 위의 글자

- 극단 쫓대잡이 (창작 낭독 우수작 초청공연)

11월 12일(수)~14일(금) 오후 7:30 열린아트홀



고독사 현장을 정리하는 특수청소부 성남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는데, 죽은 이들과 대화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 특별한 능력을 살려 특수청소부 일을 하게 되었고, 말 없이 떠난 이들의 방에서, 성남은 아직 끝나지 않은 대화를 이어간다. 우연히 동네 일간지의 인터뷰를 하게 되고, 그 인터뷰 영상을 보게 된 영민은 그런 성남의 이야기를 책으로 내기 위해 성남을 만나 계속해서 설득하게 된다.

- 작, 연출 | 박소민
- 출연 | 권혁진, 박찬영, 우지현, 박명정, 강정희, 황은비, 손정훈, 이영봉, 김범수

어항속 물고기

- 부두연극단 (폐막작 / 지역 우수 초청공연)

11월 13일(목)~15일(토)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5:00 액터소극장



소년 같은 소녀(프티 피유)와 여성같은 남자 성인(그랑드 므시외)이 어느 날 호숫가에서 우연히 만나 한 집에서 살게 된다.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른 이 두 사람은 상처와 그들이 많은 소외자들이다. 상징적으로 소녀는 거드랑이에 물고기의 아가미가 돌아나 있으며 성인 남자는 몸속에 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소녀의 부모가 자동차 사고로 죽게 되고 남자는 헤어진 사생아 아들을 만나려는 계획을 통해 두 사람은 서서히 하나가 되며 각자의 정체성을 찾게 된다.

- 작가 | 레오노르 콩피노
- 연출 | 이성규
- 출연 | 김경수, 김선이

서담 개인전

<다섯 개의 소원을 하늘에 걸었다>

그림과 글, 그리고 국악이 어우러진 서담 작가의 첫 기획 전시

일시 11월 1일(토) ~ 11월 13일(목), 14:00~20:00

장소 갤러리 쌤(수영역 4번 출구, 지하상가 입구)

이벤트 갤러리 연주회 'K-비긴어게인'- 11월 7일
(금), 19: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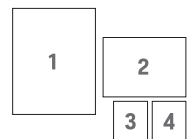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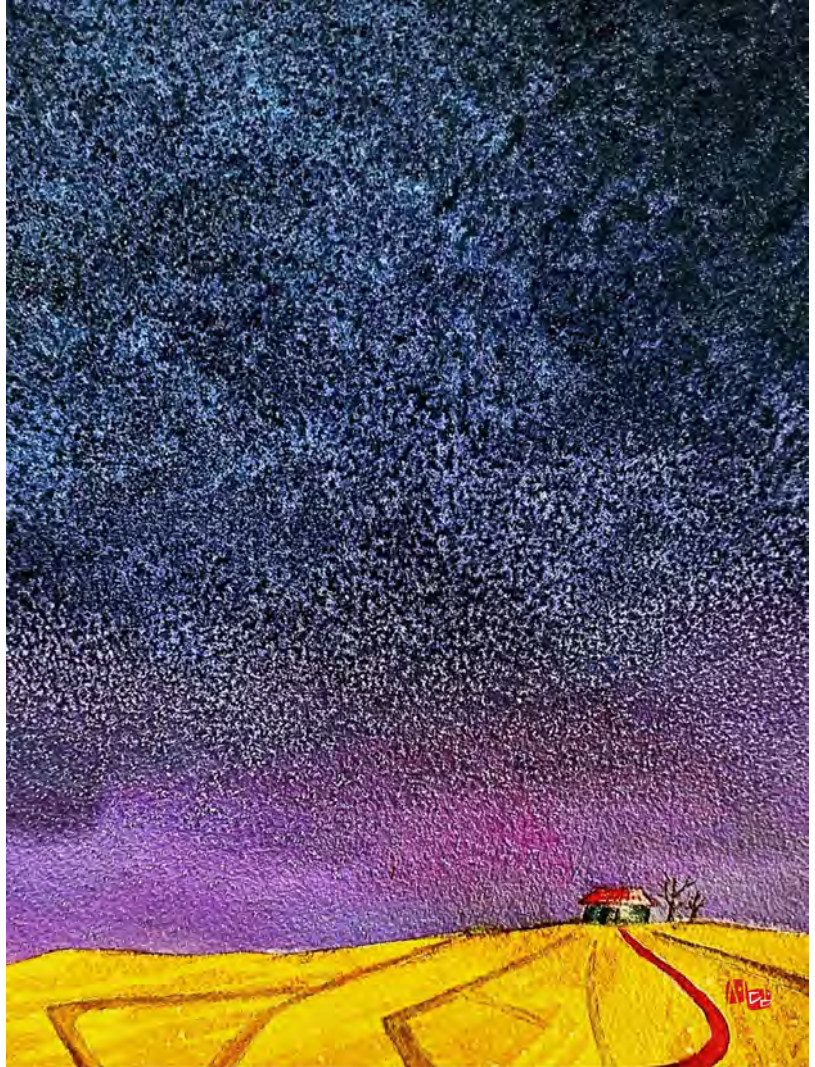
문의 서현인(010-2396-0540)

해금 연주자이자 공연기획자로 오랜 시간 무대와 함께 살아온 서담(본명 서현인)이 개인전 <다섯 개의 소원을 하늘에 걸었다>를 연다. 전시는 11월 1일(토)부터 13일(목)까지 수영역 인근 갤러리 쌤에서 진행되며, 7일(금) 저녁 7시에는 국악과 시각예술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연주 이벤트 'K-비긴어게인'이 열린다.

이번 전시는 그림과 글, 그리고 국악이 하나의 결로 이어지는 복합예술의 장으로, 작가의 음악적 감성과 회화적 상상력이 한자리에 어우러진다.

음악에서 회화로 이어진 예술의 확장

서담 작가는 오랫동안 해금 연주자이자 공연기획자로 무대의 중심을 지켜왔다. 관객의 호흡과 박수로 완성되는 공연예술의 세계에서 관객과 호흡하며 감정을 나눈 뒤, 보다 내밀한 감정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 회화와 글이라는 또 다른 표현 방식을 선택했다. 작품에는 오랜 음악 활동에서 비롯된 리듬감과 가락의 움직임이 녹아 있으며, 선과 색채 속에 장단이 흐르고 국악의 정서가 깃들여 있다.



- 1 다시 사랑한다면
- 2 동백타령
- 3 블루문
- 4 낮에뜬달

작가는 글과 그림을 함께 구성해 감정의 울림을 극대화하고, 보는 이로 하여금 작품 속 이야기를 스스로 완성하게 한다.

예술의 문턱을 낮추다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시각예술의 접근성을 높이는 새로운 방식을 시도한다. 전시 작품은 원화뿐만 아니라 아크릴 액자, 캔버스, 굿즈 등 다양한 형태와 크기로 제작되며, 관람객이 부담 없이 예술을 가까이할 수 있도록 소액 판매 방식으로 진행되며, 예술이 더 이상 ‘소수의 감상’이 아니라 ‘모두의 일상’이 되기를 바란다.

전시 기간 중인 11월 7일(금) 저녁 7시, 서담은 자신의 오랜 음악 동료들과 함께 갤러리 연주회 'K-비건어게인'을 선보인다. 이 공연은 그의 전직 동료이자 국악계 연주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되었으며, 피리 박순자, 가야금 김명수, 거문고 주윤정, 해금 서현인, 타악 박재현, 건반 김예진으로 이루어진 6인의 연주자가 무대를 꾸민다.

서담의 예술, 삶의 위로가 되기를

그는 이번 전시를 통해 음악과 미술이 서로 다른 언어이지만 결국 같은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예술이 사람의 마음을 잇는 다리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한다.



부산시립교향악단 독일 순회 공연

글 김보현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준비해 온 부산시립교향악단의 독일 순회 공연, 자그마치 7박 10일간의 여정이 시작되었다. 9월 23일 무직페스트 베를린과 25일 BR 무지카 비바의 무대에 오르는 부산시향의 독일 순회 공연은 그야말로 초대형 프로젝트로, 백여 명에 달하는 전체 인원이, 클래식 음악의 시작이자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로 순회 공연을 떠나는 매우 뜻깊은 일이다. 이 순회 공연을 성공적으로 성사시키기 위해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과 재단법

인 부산문화회관은 물론이고 부산시, 문화체육관광부, 주독일한국문화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BNK부산은행이 함께 힘을 모았다.

무사히 베를린에 도착해 여독을 채 풀기도 전에 베를린 필하모니로 향했다. 수 세기에 달하는 동안 클래식 음악의 중심부였던 독일, 그중에서도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상주하는 극장이라니 가슴이 벅차올랐다. 베를린 필하모니는 세계대전 당시 영국 폭격기가 파괴한 공연장을 대체하기 위해 지어진 곳으로, 1963년 10월 15일, 베를린 필의 최장수 지휘자인 카라얀의 베토벤 '교향곡 제9번'으로 그 화려한 개관을 알린 베를린의 대표적인 공연장이다. 그곳에서 열리는 무직페스트 베를린은 올해만 해도 26개의 예술단체와 44명의 협연자가 베를린에 모여 연주하는 세계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는 음악제 중 하나다. 그 음악제가 부산시향의 폐막 연주로 마치는 것이다. 2,440석의 규모를 자랑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대극장을 찾은 관객들은 유럽에서 하는 여타 공연들처럼 대다수가 현지인들이었고, 독일 교민, 유학생 관객들은 상대적으로 소수였다. 고국의 교향악단이 방문해 고향의 향수를 느끼



베를린 필하모니에서의 부산시향

고 서로 위로의 감정을 주고받는 위문 음악회가 아닌 그야말로 ‘무직페스트 베를린의 폐막 공연’이라는 타이틀에 어울리는 객석 분위기였다.

공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빈리히 호프 박사(양 페스티벌의 예술감독)가 공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진 후 자연스럽게 공연은 시작되었고, 기립박수 사례가 계속되었다. 한국 출신의 여성으로서 현대 음악에 큰 획을 남긴 재독작곡가 박-파안 영희(이하 박영희)는 휠체어에 몸을 의지해야 함에도 공연장을 찾았고, 박영희의 ‘소리’와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연주를 마쳤을 때는 마치 공연이 끝난 것처럼 수많은 관객이 찬사를 보냈다. 작곡가가 불편한 몸을 일으켜 박수에 화답하니 그 열기는 더욱 뜨거워졌다. 지난 9월 13일 부산콘서트홀에서 호흡을 맞춘 바 있는 벤 킴과 라벨의 ‘왼손을 위한 피아노 협주곡’이 이어졌고 이내 인터미션이 시작되었다.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에서는 독일로 떠나기 전 관객들에게 한국의 미와 부산시향을 알리기 위한 기념품으로 부채를 2,000개 가까이 제작했다. 동양화와 한글이 어우러진 부채는 공연 전부터 로비에서 관객들에게 증정되었는데, 인터미션에 더욱 큰 관심을 불러일으켜 준비해 간 수량이 모두 소진되었다. 한국에서부터 힘들게 준비해 간 보람이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한편, 한국과 사뭇 다른 인터미션의 로비 분위기는 매우 흥미로웠다. 로비 한복판에 차려진 바에서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와인이나 샴페인 등을 마시며 자유롭게 공연에 대한 답론을 주고받는 모습은 조용조용하게 휴식을 즐기는 한국 관객들의 모습과는 색다르게 다가왔다.

인터미션 후 이어진 메시앙의 ‘승천, 네 개의 교향적 명상곡’과 시벨리우스의 ‘교향곡 제7번’ 역시 수많은 관객의 기립박수를 받았고, 이로써 베를린 공연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날의 연주는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베를린 현지 언론인 TAGESSPIEGEL(타게스슈피겔), Berliner Morgenpost(베를리너 모르겐포스트) 등에서 호평을 받으며 성공적인 문화 교류였음을 입증했다.



공연 전 로비에서의 부채 기념품 증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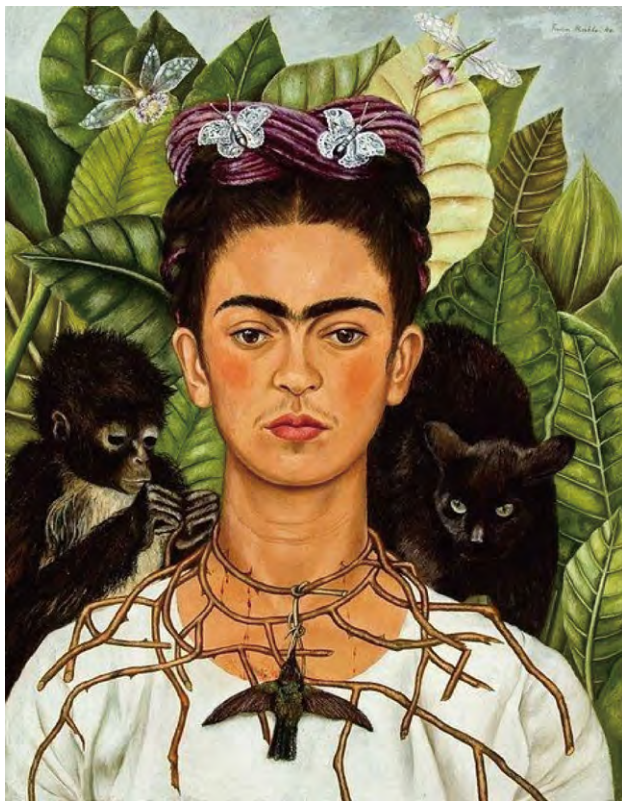
25일 뮌헨에서의 공연 일정이 시작되었다. 전 세계의 관광객이 뮌헨으로 모여드는 ‘옥토버페스트’의 여파인지 뮌헨 레지덴츠 주변은 많은 인파로 붐볐다. 뮌헨 레지덴츠는 옛 바이에른 왕조의 왕궁으로 그 안에 위치하는 헤라클레스 홀은 루트비히 1세의 왕좌실이었는데 세계대전을 거치며 재건되면서 콘서트홀로 개방된 곳이다. 헤라클레스 홀을 비롯한 뮌헨의 여러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BR 무지카 비바는 미래지향적이면서도 실험적인 음악이 관객을 만나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현대 음악 무대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헤라클레스 홀의 분위기는 베를린에서보다 좀 더 포근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였고, 그곳에서의 무대를 마친 부산시향은 역시 마찬가지로 큰 박수를 받았다. 두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데서 오는 만족감이었을까, 지휘자와 단원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 있었다.

긴 시간 동안 준비해 온 독일 순회 공연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이로써 부산시립교향악단은 무직페스트 베를린의 폐막 무대와 BR 무지카 비바 무대에 동시에 오른 최초의 아시아 교향악단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되었다. 이 타이틀은 무대 위의 연주자들과 그들을 이끄는 지휘자, 그리고 그 무대 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피와 땀이 이루어낸 성과이자, 부산시향에 애정을 가지고 공연장을 찾는 관객들의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의 해외 공연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이번 독일 순회 공연은 앞으로의 부산에 클래식 물결을 일으키는데 중심이 될 부산시향의 미래에 큰 자양분이 될 것이다. Auf Wiedersehen, Deutschland!(안녕히 계세요, 독일!)

“삶이여 만세!” 앞으로 사소한 불평은 하지 않기로 했다

- 부산문화회관의 ‘프리다 칼로 레플리카전’을 보고

글 박창희 경성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스토리랩 수작 대표



가시 목걸이를 한 자화상, 1940

열정과 고통. 멕시코 현대미술의 아이콘이라 불리는 프리다 칼로(1907~1954)의 삶을 두 단어로 압축하면 이것이 아닐까 싶다. 열정은 뜨겁게 맞닥뜨리는 삶의 기쁨이요, 고통은 견뎌내야 하는 운명적 상황이다. 열정과 고통이 교호(交互)하고 상보(相補)할 때 예술의 꽃이 핀다. 꽃이 피기까지 열정은 활활 타올라야 하고, 고통은 더 고통스러워야 하리.

부산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열린 ‘프리다 칼로 레플리카전(8월 28일~10월 19일)’은 삶의 고통과 상처를 딛고 일어난 한 여성의 점묘화다. 레플리카(replica)는 원작을 특수 복제한 작품으로, 원화의 질감보다 더 사실적이다. 전시회엔 프리다 칼로의 다채로운 자화상과 주요 작품, 일기, 사진 등 80여 점이 소개됐다. 그의 일대기와 어록, 그를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까지 상영된 걸 보니, 프리다 칼로를 제대로 입체적으로 조명한 기획전이다. 영화 제목이 ‘프리다, 삶이여 영원하라’(93분)였는데, 무슨 애기를 하려는지 금방 감이 왔다. 고통과 절망이 삶을 괴롭힐지라도, 버텨라, 살아가라는 것이었다. 삶이란 결코 만만하지도, 통속적이지도 않기에 역경을 딛고 일어서라는 전언일 테다. 영화를 억지로 볼 필요는 없다. 프리다의 삶 자체가 영화보다 더 영화 같기 때문이다.

프리다 칼로의 작품세계는 자신의 고통스럽고 복잡한 인생을 사실적으로 반영한 자전적 예술로 평가받는다. 그에게 운명은 가혹했다. 프리다는 어린 시절 소아마비를 앓았고, 청소년기엔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해 평생 육체적 고통과 장애를 안고 살아야 했다. 이 때문에 30회 이상의 수술과 수차례의 유산 등 누구도 쉽게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 고통은 일상이었다. 꺼안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었다. 이러한 경험은 그녀의 작품의 배경 또는 주제에 그대로 투영되었다. 그녀가 남긴 143점의 회화 중 약 55점이 병상에서 그린 자화상일 정도로 자전적 성향이 뚜렷하다.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작품 속에는 깊은 상처와 고통이 떠올거린다. 전시회 초입에 등장하는 ‘벨벳 드레스를 입은 자화상’부터 가만히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 이목구비가 뚜렷한 미녀의 시선이 폐부를 찌른다. 뭔가를 호소하는 듯 애원하는 듯한 표정이다. 관람자는 자화상의 시선에 눌러 발걸음을 떼지 못한다. 프리다의 자화상은 이처럼 서사적이다. 그의 자화상은 자신의 신체적 고통과 아픈 내면, 사랑과 분노, 욕망, 슬픔을 숨김없이 담아낸다. 남편 디에고 리베라와의 불안정한 결혼 생활, 반복된 유산과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에 관한 고민은 자신의 얼굴, 신체, 붉은 핀과 눈물, 원숭이, 해부된 기관 등의 모티프로 직설적으로 표현된다. 대표작인 ‘헨리 포드 병원’에서 유산의 고통과 피를 흘리는 자신, 산산조각 난 척추와 골반, 떠다니는 꽃은 사실주의적인 묘사와 초현실적 상징이 교차하는 프리다의 독자적 화법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로테스크하고 괴기스런 표현 기법에도 불구하고, 관람자의 발걸음을 붙잡고 있는 것은 무슨 연유일까? 아마 삶을 대하는 경건한 자세, 불굴의 재할 의지, 그림에 대한 열정 때문이 아닐까 싶다. 프리다의 그림을 보고 있노라면 나도 모르게 공감하고 동화되면서 프리다의 팬이 돼 버리는 것 같다. 도저한 예술의 힘이다.

프리다는 자신의 기구한 삶을 예술로 승화하며 “내 그림은 나를 그린 것일 뿐, 내 현실을 이야기한다”며 자신의 작품세계가 초현실주의로 분류하는 것을 경계했다. 사실주의냐, 초현실주의냐를 두고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그녀의 그림은 현대 세계 미술사에서 독보적이고 자율적인 여성 예술가의 상징으로 평가받고 있다.

프리다의 그림이 던지는 메시지는 강렬하다. 프리다의 다큐멘터리에서 언급되곤 했지만, 요즘 인터넷과 SNS 등에서는 불굴의 화가 프리다의 어록과 명언 모음이 화제다. 어록 5개만 간추려 소개한다.

- ① 나는 자주 혼자이기 때문에 자화상을 그린다. 나는 내가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다.
- ② 우리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견딜 수 있다. 고통 속에서도 살아가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
- ③ 난 아프지 않아요. 그저 고통 난 것 뿐이에요. 하지만 그림만 그릴 수 있다면 살아있는 게 행복해요.
- ④ 발, 왜 네가 필요해? 날 수 있는 날개가 있는데....
- ⑤ 꽃이 죽지 않도록 나는 꽃을 그린다.

육체적 고통과 신체적 한계는 프리다의 자유를 빼앗아 가지 못했다. 그녀는 육체 대신 상상력으로 하늘을 날았다. 그리고 꽃이 죽지 않도록 꽃을 그렸다. 아름다움을 지키고 싶다면, 표현하고 기록하자. 당신의 시선이 머문 순간은 누군가에게 영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일깨운다. 프리다는 자신을 걱정하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난 죽지 않았어요.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거든요. 그림이 그 이유예요.” 이 대목은 불우한 처지를 예술혼으로 뚫어나간 한국의 화가 이중섭을 생각하게 만든다.

자신의 운명을 직감한 프리다는 혼신을 다해 마지막 작품을 그린다. 작품 제목은 ‘살이여 만세!(Viva La Vida! 1954)’. 1954년은 프리다가 붓을 놓은 해다. 장엄한 종국이었다. 아니, 영원한 삶의 선언이었다.

전시회를 보고 나오면서 사지 멀쩡한 나를 발견하곤 부끄러워졌다. 앞으로 사소한 불평불만은 하지 않기로 했다.



Viva La Vida!(살이여 만세!), 1954

부산문화회관

제63회 부산예술제 가곡과 아리아의 밤

일 시 | 11월 1일(토) 오후 5:00 **중극장**
입 장 료 | 무료
문 의 | (사)부산음악협회 051-634-1295



올해 예술제는 NEXT WAVE : 부산, 미래를 그리다를 주제로 도시의 모든 공간이 예술이 되는 상상력 가득한 축제로 펼쳐진다. 그 가운데 열리는 '가곡과 아리아의 밤'은 부산청년오케스트라와 함께 하는 특별한 무대로, 클래식 음악의 서정성과 예술성을 시민들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다. 소프라노 양효정, 윤비연, 권소라, 변향숙을 비롯해 테너 김희수, 전병호, 바리톤 윤풍원이 출연하며, 해설은 김윤선이 맡아 공연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부산청년오케스트라는 매회 차마다 뛰어난 역량을 지닌 지휘자와 함께 협업해 왔으며, 이번 무대에서는 지휘자 정병휘와 함께 수준 높은 연주를 선보일 계획이다.

노엘합창단 제64회 정기연주회

일 시 | 11월 12일(수) 오후 7:30 **대극장**
입 장 료 | 전석 초대
문 의 | 노엘합창단 010-4183-2293



1961년 창단되어 60년이 넘는 시간동안 부산합창과 부산음악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노엘합창단이 가지는 64번째 정기연주회이다. 이번 연주의 타이틀은 평화(Shalom)로 나라간의 크고 작은 분쟁과 욕심으로 인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세상 환경 속에서 합창을 통한 평화를 누리자는 작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번 연주의 지휘는 부산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를 역임한 김강규 지휘자가 맡고, 피아니스트 윤민화가 반주를 맡는다. 초대연주자로 한국인 최초로 신시네티대학에서 색소폰으로 연주학 박사 학위를 받은 색소폰리스트 윤여민이 함께 하고, 바이올리니스트 조현미와 첼리스트 김판수가 협연한다.

부산거문고악회 제15회 정기연주회 '알음답다'

일 시 | 11월 2일(일) 오후 5:00 **중극장**
입 장 료 | 전석 초대
문 의 | 부산거문고악회 0502-1900-4597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우리 음악을 토대로 거문고라는 악기가 고정된 시선을 탈피하고 초월하여 다양한 시선으로 감흥의 경계를 넘어서고자 한다. 부산 유일의 거문고 앙상블 단체인 부산거문고악회는 알음답다의 옛말인 '알음답다'라는 주제로 공연하고자 한다. '알'은 어떤 존재가 생기기 전에, 맨 처음 씨앗을 가리키고 '음'은 씨앗에 싹이 트는 것을 가리킨다. 부산거문고악회 단원들 모두가 저마다의 씨앗을 무대 위에서 싹을 틔우고, 거문고 음악을 통해 본인들이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를 아름답게 꽃피운다. 나아가서 거문고의 아름다움이 관객들에게 오롯이 전달되기를 바란다.

36회 이견음악회- 노르웨이 챔버 오케스트라 현악 6중주

일 시 | 11월 16일(일) 오후 5:00 **대극장**
입 장 료 | 전석 초대
문 의 | 이견홀딩스 1522-1271



올해 36회째를 맞는 이견음악회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매년 광주, 서울, 인천,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고품격 클래식 공연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이견의 故 박영주회장의 기획으로 1990년 가을, 인천의 한 공장에서 소박하게 막을 올린 이견음악회는 지역사회에 음악을 통한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고자 시작된 예술지원활동이다. 이번 공연에는 노르웨이 챔버 오케스트라를 초청하여 그 깊이 있는 음악성과 창의적인 무대를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 음악을 통해 누구나 삶의 율림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문화 격차 해소와 예술 향유 기회의 확대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상준쇼 44

일 시 | 11월 8일(토) 오후 3:00, 6:00 **중극장**
입 장 료 | 전석 4만4천원
문 의 | MBC C&I 02-789-0114



단 하나의 마이크로 단 한 사람이 오르는 국내 유일 코미디쇼. 20년 차 코미디언, 44세 이상준의 새로운 시작인 <이상준쇼 44>가 여러분을 찾아가는다. 유튜브 채널 '이상준쇼'에서 꾸준히 선보여온 스탠드업 코미디 콘텐트를 오프라인 무대에서 확장한 프로젝트다. 대본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무대 진행과 즉흥적인 상황을 통해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생생한 웃음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상준 특유의 사방토론 형식의 개그와 현실감 넘치는 관객 소통형 개그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많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객의 반응에 따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세상에서 딱 한 번 볼 수 있는 무대가 펼쳐진다.

이야기로 듣는 독일 가곡

일 시 | 11월 18일(화) 오후 7:30 **챔버홀**
입 장 료 | 전석 2만원 (학생 50% 할인)
문 의 | 음악연구 지음 010-2474-2561



독일 예술가곡은 종종 어렵고 낯설게 느껴지지만, 그 안에는 삶의 이야기와 감정이 녹아 있는 진한 예술의 향기가 담겨 있다. 이번 공연은 그 중에서도 이야기를 품은 가곡, '담시(Ballade)' 작품들을 모아, 스토리와 대화가 있는 독일 가곡의 특별한 매력을 전하고자 한다. 한글 자막과 해설, 세심한 음악적 표현을 더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느낄 수 있도록 준비했다. 늘 들어왔던 연가곡 중심의 무대에서 벗어나, 새롭고 다채로운 독일 가곡의 세계를 함께 경험하며, 음악을 통해 느끼는 이해의 즐거움과 예술의 따뜻함을 함께 나누고 싶다.

출연

바리톤 지광윤, 피아니스트 이가은, 해설 나성인

피아니스트 홍선화 독주회

일 시 | 11월 20일(목)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2만원 (학생 할인 50%)
 문 의 | 아트뉴욕 051-242-8479



명확한 해석과 우아하고 품위 있는 음색으로 관객의 감성을 이끌어내는 연주자라는 평을 받는 피아니스트 홍선화의 독주회.

프랑스, 아일랜드 초청 포

함 미국 뉴욕 카네기홀 등의 세계 대형 무대 등에서 초청 연주하며 십여 년간 활발히 연주 생활을 이어가던 중 2018년 귀국 독주회를 시작으로 지역 주요 무대를 통해 부산, 경남을 거점으로 여러 층의 관객들과 소통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브람스의 내면의 감정을 표현한 마지막 피아노 독주곡과, 라벨 특유의 세련된 고전주의적 형식과 인상주의 화성의 색채가 결합된 곡, 연주자의 뛰어난 기교가 요구되는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독주곡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2회 창작오케스트라의 밤

일 시 | 11월 23일(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사)부산음악협회 051-634-1295



제12회 창작오케스트라의 밤은 총 7개의 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있다. 작곡 김규리의 <두드림>, 김지현의 <사랑>, 배진희의 <작별하지 않는다>, 김하

람의 <Fragment of Reminiscence>, 백은숙의 <Impression for Orchestra>, 박명환의 <Is Not a Question>, 백현주의 <노는 게 제일 좋아> 까지.

함께하는 부산청년오케스트라는 매회 연주마다 우수한 역량의 초청 지휘자와 함께 협업하며 기량을 선보인다. 본 공연에는 지휘자 이동신이 협업하고, 해설자 이지훈이 함께해 깊이 있는 창작 오케스트라의 밤을 보낼 예정이다.

루오르 앙상블 창단연주회

일 시 | 11월 25일(화)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초대
 문 의 | 루오르 앙상블 010-9305-9496



부산에서 창단되는 오르간 듀오 앙상블 '루오르(LOURE)'는 지역의 음악 문화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자 한다.

오르간 음악은 깊이와 표

현력이 풍부하지만 대중에게는 다소 낯선 영역이었다. 이번 앙상블은 전통적인 클래식 레퍼토리뿐 아니라 대중적으로 친숙한 음악까지 폭넓게 선보이며, 오르간의 가능성과 매력을 시민들에게 가까이 전한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보기 드문 전문 오르간 연주 단체로서, 부산의 문화적 정체성과 예술적 다양성을 확장하고 새로운 음악의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다. 1부는 각 연주자가 개성있는 해석으로 색채를 들려주는 솔로 무대이고, 2부는 두 연주자가 함께하는 듀오 무대다.

회향음악회

일 시 | 11월 26일(수)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부산문화 1600-1803



대한민국 1세대 피아니스트로서 한국 음악계에 큰 발자취를 남긴故 한동일 교수를 추모하기 위한 음악회를 마련하였다.

한동일 교수가 아끼는 제자들이 평소 한동일 교수가 좋아하는 곡들과 평소 연주하던 곡들을 연주한다. 서울과 부산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실력 있는 피아니스트들이 함께 모여 교수님을 그리워하며 만든 음악회이다.

·출연

피아니스트 이선경, 김민정, 이정원, 김설화

해설이 있는 국악 힐링 콘서트

일 시 | 11월 5일(수) 오전 10:30, 오후 1:30
대극장
 입장료 | 3만원(단체 관람시 할인)
 문 의 | 051-912-2025



“국악은 어렵다”라는 편견을 깨고자 해설이 있는 국악 힐링 콘서트를 기획했다. 우리 전통음악의 아름다움과 깊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곡목과 배경을 친근하게 풀어주며, 단순한 관람을 넘어 소통과 공감을 이끌어내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익숙하지 않은 국악을 해설과 함께 접하게 함으로써 청소년들은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을 높이고, 동시에 바쁜 일상과 학업 속에서 지친 마음을 음악으로 위로받는 치유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다.

나아가 국악의 현대적 가치와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여, 청소년들이 전통과 현재를 잇는 문화적 감수성을 기르고 건강한 정서 발달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다.

·주최, 주관 : 세광아트컴퍼니

캐리와 슈퍼콜라 싱어롱 뮤직쇼 - 부산

일시 | 11월 8일(토) 오전 11:00, 오후 2:00,
 오후 4:30, 11월 9일(일) 오전 11:00,
 오후 2:00 **대극장**
 입장료 | R석 3만6천원
 문 의 | 1800-7672



캐리tv 하이라이트 명곡들이 눈과 귀를 사로잡는 한상 퍼포먼스와 함께 무대 위에 펼쳐진다. MC 유니 & 토미와 스페셜 MC가 꾸미는 다채로운 레크리에이션의 재미를 직접 느껴볼 수 있다.

캐리와 친구들이 전하는 뽕뽕 터지는 웃음과 함께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와 어린이-온 가족의 사랑을 듬뿍 받은 역대 명곡 하이라이트, 각종 게임과 퀴즈로 객석과 무대가 하나 되는 짜릿한 순간과 화려한 퍼포먼스와 신나는 노래, 객석 참여형 게임, 감동적인 성장 서사까지 재미와 감동을 모두 담았다. 잊을 수 없는 노래, 함께 부르던 그 멜로디를 다같이 즐겨보는 시간이 될 예정이다.

최유리 콘서트 2025 : 머무름

일 시 | 11월 15일(토) 오후 6:00,
11월 16일(일) 오후 4:00 대극장
입 장 료 | R석 15만4천원, S석 14만3천원
문 의 | 티켓링크 1588-7890



▽▽
폭발적인 관심을 받으며 공연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싱어송라이터 최유리의 부산 첫 단독 콘서트가 부산시민회관에서 개최된다. 최근에는 MBC '놀면 뭐하니?'의 '80s MBC 서울가요제'에 출연하며 유니크한 음색과 섬세한 감정선으로 독보적인 존재감을 입증하고 있다.

음악 속에 담긴 자신의 이야기를 관객들과 공유하며 깊은 공감을 이끌어내고 여운을 남긴다. 지난해 11월 개최한 단독 콘서트 '우리의 언어' 이후 약 1년 만의 공연으로, 최유리의 데뷔 첫 부산 단독 콘서트이자, 데뷔 이후 매 공연마다 매진을 기록하며 뜨거운 사랑을 받아온 그녀의 또 다른 발자취가 될 것이다.

음악극 '천국으로 배달해드립니다'

일 시 | 11월 22일(토)~23일(일) 오후 3:00
소극장
입 장 료 | 3만원
문 의 | 010-2519-4190



▽▽
초겨울, 망해버린 서커스단의 단원 다섯이 아무도 오지 않는 지하 창고에 숨어 살고 있다. 이들은 흩어진 단원들과 전당포에 맡긴 소품, 동물들을 찾아 더 멋진 공연을 하리라 소망하며 봄을 기다린다. 서커스단이 지하 창고에 숨어든 지 한 달쯤 되는 어느 날, 납치범들이 한 소년을 납치해 창고에 가두고 문을 잠궈버린다.

아무도 찾지 않는 지하 창고에서 힘겨운 나날을 보내는 서커스단의 행복을 재밌게 그리고 있다. 이제, 다시 무대를 꿈꾸는 이들의 이야기를 만나보길 바란다.

출연

김기태, 손상훈, 강규민, 고유라, 박준희, 장한솔, 장재영, 김유민

제17회 부산문화예술큰잔치

일 시 | 11월 18일(화) 오후 1:00 대극장
입 장 료 | 무료
문 의 | 051-554-0159



▽▽
부산광역시문화원연합회(회장 박수용)는 부산시 16개 구·군 문화원 100,000여 명의 문화교실 수강생들이 1년간 갈고 닦은 배움을 발표하는 장을 마련하여 부산시 문화 발전을 도모하고자 기획하였다. 참여하는 팀은 시니어모델, 한가락이든소리꾼, 해운대현악앙상블, 라인댄스팀, 여섯소리, 연제춤사랑무용단, 오카리나팀, 국악한마당, 열두줄가야금, 동래학춤공연팀, 부산복병산콰이어, 영도하모니카, 트롯트장구반, 까멜리아라인댄스, 은빛청춘오카리나, 기장문화원사물놀이팀까지 총 16팀으로, 전통과 현대, 음악과 춤, 열정과 감동이 어우러진 공연을 통해 관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음악

11월 금정수요음악회

일 시 | 11월 5일, 12일, 19일, 26일
(수)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 장 료 | 전석 1만원
문 의 | 금정문화회관 051-519-5664

▽▽
11월 금정문화회관이 선보이는 '금정수요음악회'는 찬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저녁, 관객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성악, 실내악, 비올라 독주의 무대를 준비하였다.



5일 <보헤미안 랩소디>

창단 4년 차 예술단체인 아토뮤직이 자코모 푸치니의 오페라 라보엠을 중심으로 감성적인 무대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에서는 가난하지만 열정 넘치는 젊은 보헤미안들의 뜨거운 사랑을 노래한다.



12일 <부산듀엣래식 제3회 정기연주회 '운명'>

바흐의 사냥 칸타타 중 '양들은 평화로이 풀을 뜯고'를 시작으로 슈만의 '피아노 5중주 작품번호 44', 브람스의 '교향곡 3번' 그리고 베토벤의 '운명'을 연주한다.

DK UNIVERSE <TIMELESS> - 부산

일 시 | 11월 22일(토) 오후 7:00 대극장
입 장 료 | R석 13만2천원, S석 11만원
문 의 | 010-2726-6659



▽▽
DK는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을 시작으로 DK 유니버스 '타임리스'를 개최하고 시간과 세대를 초월한 감동을 선사하며 팬들과 음악으로 소통한다.

극강의 고음과 따뜻한 인성을 겸비한 DK는 '타임리스(TIMELESS)'라는 키워드를 통해 DK만이 가진 음악적 불변의 가치와 감동, 올 한 해 일어난 일들과 감정들을 공연장에 저장하듯 연출하여 환상적인 시간을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 9월 발매한 '가만히 눈을 감고' 무대와 '이미 아름다운 그대', '부탁' 등을 선보이며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DK가 이번 투어 콘서트에서는 또 어떤 무대로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낼지 기대를 모은다.



19일 <가영 비올라 독주회 'The Romantic Breath'>

비올라의 풍부하고 감미로운 음색을 중심으로 한 서정적인 무대를 선보인다. 협연으로는 피아니스트 알렉세이 레베데프가 함께하며, 요한 벤첼 칼리보다의 '비올라와 피아노를 위한 녹턴 작품번호' 외 3곡을 선보인다.



26일 <Sing 그러날, Sing Along!!>

관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뮤지컬, OST, 대중음악 등 친근한 곡들로 구성된 이번 무대에서는 요한 슈트라우스의 '오페레타 <박쥐> 중 삼페인의 노래' 외 16곡을 선보인다.

제11주년 부산예술성악회

일 시 | 11월 5일(수) 오후 6:00

금정문화회관 금빛샘홀

입 장 료 | 초대

문 의 | 010-3884-4623



▼▼ TDC 체임버오케스트라와 협연으로 매달 정기 음악회를 개최하여 실력을 쌓으면서 연1회 오케스트라와 협연 음악회를 개최하고 있다.

K-가곡으로 음악적 국위를 선양하는 시대에 맞춰 아름다운 우리가곡과 오페라에 나오는 주옥같은 아리아곡으로 전문 성악가와 아마추어로 열정이 가득한 음악가들의 향연, 소프라노 조 신미 교수의 음악 감동으로 펼쳐진다. '그리운 금강산', '향수', '눈'으로 시작해 'Granada(그라나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으로 끝나는 공연은 총 25개의 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있다.

드림문화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힐링음악회

일 시 | 11월 6일(목)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 장 료 | 전석 무료(1인 4매)

문 의 | 해운대문화회관 051-749-7651



▼▼ 「2025년 구·군 문예회관 공연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기획된 이번 공연은 마음의 여유를 잃은 관객들에게 음악을 통해 위로와 활력을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제공하고자 기획되었다.

클래식, 뮤지컬, 오페라, 애니메이션 OST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며, 세대와 취향을 넘어선 공감의 무대로 마련되는 이번 공연에는 오페라 전문 오케스트라 '드림문화오케스트라'와 지휘 장진규, 팝페라가수 고은솔과 바리톤 정건우가 협연으로 함께한다. 관객들은 익숙하면서도 감동적인 선율 속에서 일상에 지친 마음을 다독이는 따뜻한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일리아 라쉬코프스키, 라흐마니노프 3개의 피아노 협주곡

일 시 | 11월 7일(금) 오후 7:30

부산콘서트홀

입 장 료 | VIP석 11만원, R석 9만원, S석 6만원, A석 4만원

문 의 | 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02-6292-9366



▼▼ 피아노의 제왕 라흐마니노프, 그의 혼을 깨우는 피아니스트의 연주 릴레이가 펼쳐진다. 세 개의 피아노 협주곡과 함께 몰아치는 감정의 파도, 러시아 낭만주의의 절정을 한 자리에서 만난다.

명불허전 라흐마니노프 스페셜리스트이자 신들린 듯한 타건과 테크닉으로 세계 유수의 콩쿠르를 제패한 피아니스트 일리아 라쉬코프스키의 연주가 펼쳐진다. 피아노 협주곡 1번 올림바단조, 작품번호 1과 피아노 협주곡 2번 다단조, 작품번호 18, 피아노 협주곡 3번 라단조, 작품번호 30. 세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중과 함께 살아 숨 쉬는 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와 지휘자 최영선이 함께해 수준 높은 음악을 선보인다.

영도문화예술회관 영상화 공연 레드카펫 시리즈

일 시 | 11월 8일(토)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

(대공연장), 절영홀(소공연장)

입 장 료 | 각 영화 및 공연 각각 예매무로 (1인 2매, 사전예매 필수)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051-419-5571~4



▼▼ 영화와 거장들의 라이브 영화음악 콘서트를 함께 즐기는 '레드카펫 시리즈'를 하루 종일 선보인다. 영화음악의 두 거장인 엔니오 모리코네와 히사이시조의 대표작을 스크린으로 먼저 만난 후, 저녁에는 그 감동을 라이브 오케스트라 연주로 완성하는 특별한 기획이다.

프로그램

- 오전 10시 봉래홀 <시네마천국> 상영
- 오후 2시 절영홀 <하울의 움직이는 성> 상영
- 오후 5시 30분 봉래홀 <영화음악콘서트>

목요상설음악회 아트살롱 재즈 만지작작 남미를 가다 bossa nova

일 시 | 11월 13일(목) 오후 7:30

동래문화회관 소극장

입 장 료 | 전석 무료

문 의 | 동래문화회관 051-550-6611



▼▼ 삶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재즈의 일상의 순간들이 재즈가 되는 공간을 표현하는 인문학 콘서트이다. 만지작(作) Ent는 음악과 인문학의 조화를 통해 지역 사회와 소통하며, 관객들에게 풍부한 예술적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내 재즈 신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연주자들과 협업하여, 다양한 실험적 작품과 정통 재즈의 경계를 넘어 더욱 쉽고 재미있게 재즈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된 공연이다.

카페, 식당, 쇼펄에서 들었던 음악의 스토리를 더하고 알아가면서 삶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재즈의 일상의 순간들이 재즈가 되는 공간, 재즈 만지작(作)과 함께하길 바란다.

오페라 잔니 스키키

일 시 | 11월 15일(토) 오후 5:00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대공연장)

입 장 료 | 일반 2만원, 정기회원 1만5천원, VIP 1만원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051-419-5571~4



▼▼ 오페라 <잔니 스키키>는 유쾌한 웃음을 자아내는 코미디이지만 단순한 희극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유산을 둘러싸고 갈라지는 가족들, 욕망에 눈먼 인간 군상의 모습은 1299년 피렌체의 이야기임에도 오늘날에도 낯설지 않게 다가온다.

이 코미디는 단순한 장르적 대비를 넘어, 인간 삶의 또 다른 얼굴을 보여준다. 웃음도 눈물도 결국은 같은 인간의 이야기라는 것. 그것이 푸치니가 전하려 한 메시지일 것이다. “과연 옳고 그름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잔니 스키키>가 살아 있는 이유일 것이다. 오페라 가이드 김성민의 해설 후 본 공연이 진행된다.

영도문화예술회관 수요상설공연 onStage 4계절의 아름다움을 재즈로 풀어낸다 : 4 Seasons 4 Jazz Concert

일 시 | 11월 19일(수)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절영홀(소공연장)
입 장 료 | 일반 1만원, 할인대상 5천원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051-419-5571~4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재즈 특유의 유려한 가사를 노래하는 재즈 보컬 정화과, 그녀와 오랜 시간 호흡을 맞춘 피아노·콘트라베이스 듀오가 함께 하는 “정화 and her Duo”, 그리고 색소폰니스트이자 클라리넷니스트 김동기가 무대에 오른다. 이들은 대중적인 레퍼토리와 계절의 감각을 담은 곡들을 통해 재즈에 익숙하지 않은 관객들도 사계절의 정취와 재즈의 매력을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공연은 자연이 전해주는 행복을 다시금 기억하게 만드는 시간이 될 것이다.

멜로어썸의 두 가지 음악 이야기 Night with you

일 시 | 11월 20일(목) 오후 7:3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입 장 료 | 전석 1만원
문 의 | 동래문화회관 051-550-6611



클래식과 재즈 및 밴드를 넘나드는 수준높은 퓨전음악 단체 멜로어썸의 공연으로 1부는 클래식, 2부는 재즈밴드의 다채로운 공연이다. 멜로어썸은 클래식, 재즈, 영화, OST, 팝 등 다양한 장르를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트리오와 함께 콘트라베이스, 드럼, 보컬 구성으로 선보이는 전문 연주팀이다. 각 곡은 멜로어썸만의 스타일로 직접 편곡하여 연주하며, 정교한 연주와 무대매너로 관객과의 교감을 최우선으로 한다. 마음 따뜻해지는 음악의 밤으로 여러분을 초대한다. 이번 공연에선 멜로어썸 앙상블 대표 홍정민과, 전해빈, 변은석, 이기백, 정소희, 윤혜성, 김진훈, 김성민이 함께 한다.

제27회 남구문화예술회 음악회 정기연주회 UN 평화의 콘서트

일 시 | 11월 19일(수) 오후 7:00
경성대 콘서트홀
입 장 료 | 전석 무료
문 의 | 010-7136-5573



가을밤의 고운 정취 속, 마음을 울리는 선율로 채워질 제27회 남구음악회 정기연주회가 열린다. 올해부터는 ‘평화의 콘서트’로 이름을 바꾸어 평화와 화합을 노래하는 무대로 도약한다. 이 무대가 지친 마음을 회복하고 용기를 얻는 치유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세대를 아우르고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를 만들기 위해 소프라노 이윤정, 김정은, 테너의 박천수와 강학윤, 바리톤 김훈, 색소폰니스트 손태호, 피아노 박찬혁, 김은희, 최혜련과 장애·비장애 협업 크로스오버 밴드 ‘아이노스 밴드’와 청솔합창단이 함께할 예정이다. 아름다운 화음과 멜로디로 진한 감동과 새로운 활력을 주는 멋진 무대가 될 것이다.

지브리&디즈니 영화음악 FESTA

일 시 | 11월 22일(토) 오후 1:00, 5:00
부산콘서트홀
입 장 료 | VIP석 10만원, R석 8만원, S석 6만원, A석 5만원
문 의 | 010-8675-4559



남녀노소,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축제와 같은 공연인 지브리&디즈니 영화음악 FESTA 서울 페스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투어가 부산으로 찾아간다. ‘히사이시 조’의 대표곡들을 풍부한 오케스트라와 다채로운 악기의 협연으로 서울 페스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만의 매력으로 들어볼 수 있는 기회이다. 춤추는 지휘자 백윤학 지휘자가 들려주는 디즈니 100주년 기념 애니메이션 OST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펼쳐진다. 지브리와 디즈니 각각 6곡이 준비되어 있으며, 바이올린 박진희와 마림바 김하영, 보컬 이희주가 함께하는 무대는 지브리와 디즈니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특별한 선물이 될 무대다.

제28회 라이징뮤지션 콘서트 음악으로 만나는 사계절

일 시 | 11월 20일(목) 오후 7:30
울속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 장 료 | 전석 1만원
문 의 | 울속도문화회관 051-220-5811~14



클래식 비발디 <사계>를 중심으로 각 계절의 분위기를 담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계절순으로 선보인다. 음악을 통해 사계절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고 뮤브앙상블의 자체 편곡을 통해 새로운 음악적 해석을 담았다. 클래식뿐 아니라 발라드, 대중가요 등 함께 구성하여 관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이다. 이처럼 익숙한 선율에 새로운 해석을 더해, 사계절의 정서를 다채롭게 풀어낸 이번 무대는 관객 모두의 감성을 두드릴 것이다. 뮤브앙상블과 함께하는 이 특별한 무대가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따뜻한 공연이 되길 기대한다.

2025 영화의전당 마티네 11월 심현정의 영화음악콘서트 - 구원과 고독의 멜로디

일 시 | 11월 26일(수) 오전 11: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 장 료 | 전석 2만원
문 의 | (재)영화의전당 051-780-6060



21세기 대한민국의 영화 음악을 이끌어가고 있는 작곡가들을 중심으로, 매월 색다른 주제가 어우러진 영화음악콘서트이다. 올해는 영화음악가 심현정이 호스트로 참여하여 최고의 연주자들과 함께 관객을 찾아가는. 11월은 구원과 고독의 멜로디를 주제로 어둡고 비정한 세상을 보여주는 영화가 준비되어 있다. 납치된 옆집 꼬마를 찾아 나서는 <아저씨>, 정의감에 불타는 형사 이야기 <악질경찰>, 어둡지만 따뜻한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감성 스릴러 <조용한 세상>, 요괴와 8일간의 분투를 보여주는 오컬트 영화 <제8일의 밤> 등 각기 다른 색깔의 스타일리시한 영화 네 편의 이야기와 음악을 만나본다.

제102회 명품콘서트 **울속도에서 듣는 온 세상의 가을**

일 시 | 11월 26일(수) 오후 7:30
울속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 장 료 | 1층 2만원, 2층 1만원
문 의 | 울속도문화회관 051-220-5811~14



『울속도에서 듣는 온 세상의 가을』이라는 타이틀로 102회 명품콘서트가 개최된다. 이번 무대는 부산지휘자합창단의 무대로 울속도의 아름다운 풍경과 그와 어울리는 음악으로 꾸며진다.

The Ludlows(영화 '가을의 전설' 테마), 아, 가을인가, 산들바람, 기차는 8시에 떠나네(Te Treno Fevgi Stis Ochto, M.Theodorakis), Autumn Leaves, Abendlied(저녁 노래), 가을 우체국 앞에서, Lay a Garland(화관을 내려놓고) 등이 연주된다. 이번 무대는 'United Korean Orchestra(U.K.O.)' 웅장한 오케스트라가 함께할 예정이다.

HELLO 오르간

일 시 | 11월 27일(목) 오전 11:00
부산콘서트홀
입 장 료 | 전석 3만원
문 의 | 클래식부산 051-640-8826



수백 개의 파이프와 수십 개의 스탑이 만들어내는 파이프 오르간의 복잡하고 정교한 음색은, 오르간이 지나온 시간과 공간, 그리고 인간의 감성을 소리로 새겨온 역사 그 자체다.

이번 공연은 오르간이라는 악기의 기술적 구조와 음악적 매력을 깊이 있게 탐구하고, 그 안에 담긴 예술적 가치를 다양한 시선에서 조명하는 시간이다. 중앙일보 음악전문기자 김호정이 콘서트 가이드로 함께하며, 오르간의 기원과 진화, 파이프와 스탑의 구조와 기능 등 청중에게 오르간의 세계를 흥미롭게 풀어낸다. 또한 국제적으로 활약 중인 오르가니스트 최규미가 무대에 올라, 프랑스 낭만 레퍼토리를 선보인다.

제18회 스페셜 아티스트 **해리포터&지브리 OST 콘서트**

일 시 | 11월 27일(목) 오후 7:30
울속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 장 료 | 1층 2만원, 2층 1만원
문 의 | 울속도문화회관 051-220-5811~14



해리포터와 지브리 OST를 들으며 환상의 세계로 빠져보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한다. 해리포터와 지브리 애니메이션은 세대를 넘어 많은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음악으로 두 작품의 음악을 함께 연주함으로써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연주를 맡은 홀톤심포니오케스트라(Whole Tone Symphony Orchestra)는 폭넓은 프로그램의 정기연주회와 지역 행사, 축제 및 특별기획공연 활동 등을 통해 문화적 발전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이다. 이번 공연을 통해서 각자의 마음 속에 간직된 환상의 세계를 다시 떠올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목요상설음악회 아트살롱 **청년예술가들의 희망의 선율 오페라 '라 보엠'**

일 시 | 11월 27일(목) 오후 7:3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입 장 료 | 전석무료
문 의 | 동래문화회관 051-550-6611



3월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동래문화회관에서 열리는 목요상설음악회 아트살롱은 매주 다른 주제로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특별한 문화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11월의 아트살롱에서는 청년예술가들의 '어려운 현실속에서도, 예술과 사랑은 여전히 삶의 가장 순수한 이유가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오페라 '라 보엠' 공연이 펼쳐진다. 오페라 '라 보엠'은 이탈리아 작곡가 자코모 푸치니의 대표작 중 하나로 선율이 풍부하고 가장 극적인 효과를 잘 표현하는 걸작으로 평가받는다. 이번 무대를 통해 동래문화회관은 예술을 향한 순수한 열정이 전하는 울림을 관객들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

40회 굿모닝콘서트 **아침에 브릴란테(Brillante) 한 잔**

일 시 | 11월 28일(금) 오전 11:00
울속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 장 료 | 전석 1만5천원(커피포함)
문 의 | 울속도문화회관 051-220-5811~14



자연 속 정원에 자리 잡은 울속도문화회관에서 모닝커피와 함께 공연을 즐기는 굿모닝콘서트! 반짝이는 아침, 음악으로 하루를 활기치게 여는 공연으로

한국가곡, 뮤지컬, 팝페라 등 다양한 장르를 한 무대에 담아 관객에게 새로운 감동과 밝은 선율로 희망과 즐거움을 선사하고자 한다. 클래식과 팝을 넘나드는 곡들로 클래식의 깊이와 대중음악의 친근함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상쾌한 아침 공기 속에서 울려 퍼지는 선율은 하루의 시작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커피 한 잔의 향기처럼 은은하게 번지는 음악의 감동을 굿모닝콘서트에서 함께 느껴보길 바란다.

부산솔로이스츠앙상블 **시그니처 콘서트 X**

일 시 | 11월 30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 장 료 | 전석 3만원
문 의 | 010-8524-0069



부산솔로이스츠앙상블은 2015년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동문 연주자들로 결성된 부산시 지정 전문예술단체로, 지휘자 없이도 견고하고 완성도 높은 앙상블을 선보이며 각자의 음악적 색채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독창적인 무대를 만들어가고 있다. 국내외 정상급 연주자들과의 협연을 통해 예술적 완성도가 높은 무대를 선사하고 다양한 레퍼토리를 통해 넓은 음악 영역을 보여주고 있다. 2025년 창단 10주년을 맞이하여 제10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하며 “젊은 음악, 새로운 시도, 공감할 수 있는 클래식”이라는 슬로건 아래, 더욱 참신하고 열정적인 연주 활동으로 클래식 음악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갈 것이다.

무용

Peter Pan SHADOWLAND

블랙코미디 발레 '피터팬'

일 시 | 11월 1일(토)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대공연장)

입 장 료 | 일반 2만원, 정기회원 1만5천원,
VIP회원 1만원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051-419-5571~4



▼▼
어린 시절의 환상과 성찰의 순간을 교차시키며, 관객에게 웃음과 긴장, 그리고 깊은 울림을 전하는 무대를 선사한다. 기존 동화의 내용이 아닌 새로운 시각으로 재해석하여 만든 블랙코미디 발레 <피터팬>은 인간 내면의 성장 과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특히 '그림자'라는 모티브를 통해 자신의 어두운 면을 인정하지 않는 미숙함을 드러내며, 그림자를 마주할 때 진정한 성숙이 이루어진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발레, 현대무용, 비보잉 등 다양한 장르의 융합을 통해 초현실적이고 환상적인 무대를 구현함으로써 관객에게 상상력과 감동을 동시에 제공하고자 한다.

연극

효로인닷컴 배우네트워크 국외작가전 2탄

알베르 까뮈의 '오해'

일 시 | 10월 23일(목)~11월 29일(토)

수·목·금 오후 7:30, 토 오후 4:00

효로인닷컴홀 소극장

입 장 료 | 3만원 (예약필수)

문 의 | 051-623-6232



▼▼
독립예술기획사 효로인닷컴(대표 이성민)의 배우네트워크가 25년 두 번째 국외작가전으로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이자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알베르 까뮈의 희곡 <오해>(Le Malentendu)를 무대에 올린다.

1944년 발표된 알베르 까뮈의 희곡 <오해>는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남자 안과, 그를 알아보지 못한 어머니와 여동생 마르타가 벌이는 비극적 사건을 그린 작품이다. 연출 이성민을 비롯해 인현식, 전상미/유주영(더블캐스팅), 양연주, 김다애, 김기백 등 오랫동안 실력을 다져온 중장년의 배우들과 신인 배우들이 출연한다.

HELLO 발레 발레의 초대

일 시 | 11월 14일(금) 오후 7:30

15일(토) 오후 5:00 부산콘서트홀

입 장 료 | 전석 3만원

문 의 | 클래식부산 051-640-8824



▼▼
부산콘서트홀에서 발레의 아름다움을 만나는 특별한 무대가 열린다. 김주원 예술감독의 해설과 함께 클래식 발레 작품 <호두까기 인형>, <백조의 호수>, <스프링 워터>, <라 실피드>는 물론, 부산오페라하우스 발레단의 창작작품 <샤이닝 웨이브>까지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진다.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이번 공연은 김광현 음악감독이 이끄는 클래식부산 오케스트라 55인조의 라이브 연주가 함께하며 더욱 깊은 감동을 전한다.

발레의 아름다움과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하모니가 어우러지는 이번 무대는 부산콘서트홀을 찾는 관객 모두에게 잊지 못할 특별한 예술의 순간을 선사할 것이다.

모던테이بل 다크니스 품바

일 시 | 11월 29일(토) 오후 5: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 장 료 | 전석 3만원

문 의 | (재)영화의전당 051-780-6060



▼▼
그 자체가 유일무이한 예술 장르라는 찬사를 받는 한국 무용계의 젊은 안무가 김재덕, 그가 이끄는 무용단 모던테이블의 <다크니스 품바>가 영화의전당

무대에 오른다.

다크니스 품바는 한국의 전통적 소재인 '품바'를 현대무용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품바는 노래로 구걸하며 떠돌던 사람, '각설이'를 뜻하기도 하며, 작품은 그들에 대한 멸시나 학대, 그리고 민초들의 마음 깊은 곳에 쌓였던 울분과 억울함을 소리로 뿜어낸다. 무대 위 암흑에서 느껴지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무용수들은 끝없이 춤을 추고 노래한다.

연극 나비

일 시 | 11월 5일(수) 오전 10:00, 오후 7:30,

6일(목) 오후 7:30

울속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 장 료 | 1층 3만원, 2층 1만원

문 의 | 울속도문화회관 051-220-5811~14



▼▼
조선 왕 인조의 내면을 통해 국가·가정·민중의 갈등과 한향녀들의 비극을 드러내며, 오늘의 자화상을 성찰하게 한다. 무대는 영상·라이브·국악·한국무용을 결합해 현실과 꿈의 대비를 극대화하며, 상징과 감정을 풍부히 전달한다.

이번 공연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25년 지역예술도약지원사업 지원을 받아 작품을 2차 제작·레퍼토리화한 작품이다. 인조와 대신들, 인조와 소현세자, 인조와 한향녀들, 이는 국정, 가정, 민중으로 대변되며 그 중심에 존재하는 인조의 갈등과 고뇌하는 내면을 들여다보으로써 얼마나 인간이 외로운 존재이며 보잘 것 없고, 불안이라는 보이지 않는 실체에 내약한 존재인지를 보여준다.

연극 걸리버 여행기 줌 인 아웃

일 시 | 11월 14일(금) 오후 7:30,

15일(토) 오후 2:00, 5: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 장 료 | 전석 3만원

문 의 | (재)영화의전당 051-780-6060



▼▼
호기심 많은 아이 바다는 낯선 여행길에 오른다. 그곳은 우리가 알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곳. 말은 통하지 않고, 규칙은 엉뚱하며, 사람들은 때로는 거인처럼 커다랗게,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다가온다.

그곳에서 바다는 놀라운 만남과 예상하지 못한 신비한 일들을 겪는다. 커졌다 작아졌다, 잃었다 다시 찾는 모험을 이어가며 점점 더 용감해진다. 바다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누구일까?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일까?" 낯선 모험 속에서 펼쳐지는 현실과 환상을 넘나드는 이야기로 생동감 넘치는 연출과 연극적 상상력이 더해진 극단 하땅세만의 참신한 무대가 예정된다.

뮤지컬

런던레코드-부산

일 시 | 9월 12일(금)~12월 28일(일)
금 오후 7:00, 토 오후 2:00, 5:30,
일·공휴일 오후 2:00 **가온아트홀 2관**
입 장 료 | 전석 6만원
문 의 | 010-3495-8291



런던 외곽에 위치한 낡고 오래된 레코드 샵. 주인 존은 오늘도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해 본다. 하지만 텅 빈 레코드 샵에는 쓸쓸한 음악만 흘러 나오고 손님 구경

한 지 오래된 앨범들은 먼지만 가득 쌓여있다.

그때, 커다란 가방을 들고 성큼 들어온 손님 찰리와 오디션에 떨어진 스칼렛이 풀이 죽은 채 존의 레코드 샵으로 들어온다. 레코드 샵 주인 존이 헤성처럼 등장해 전 세계인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전설처럼 사라진 밴드의 리더라는 것을 알게 된다. 공통점 없는 이 세 명의 만남은 음악으로 하나가 되어 가고 서로의 상처를 위로해주며 한 팀이 되어 간다.

‘위키드’ 내한 공연(WICKED The Musical)-부산

일 시 | 25년 11월 13일(목)~26년 1월 18일(일)
화·수·목 오후 7:30, 금 오후 2:30,
7:30, 일 오후 3:00 **드림씨어터**
*11월 16일(일) 오후 2:00, 7:00
*매주 월요일 공연 없음
입 장 료 | VIP석 19만원, R석 16만원, S석 13만원
A석 8만원
문 의 | 클립서비스 1577-3363



마침내 초록마녀가 돌아온다. 전 세계 16개국, 7000만 명 이상 관람, 60억 달러 흥행. 지금도 박스오피스 기록을 경신 중인 ‘브로드웨이 센세이션’

고전 <오즈의 마법사>를 다른 시각으로 뒤집은 유쾌한 스토리 라이브로 경험하는 압도적인 무대가 펼쳐진다. 객석에 입장하는 순간 맞이하는 12.4M 거대한 타임 드래곤, 수천 개의 비누방울을 뿜어내는 글린다의 버블 슬라이딩과 무대 가장 높은 곳까지 치솟는 엘파바의 짜릿한 플라잉까지, 환상적인 세계가 준비되어 있다.

뮤지컬 퍼포먼스 세레나데
Falling in Love

일 시 | 11월 6일(목) 오후 7:30
동래문화회관대극장,
11월 12일(수)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 장 료 | 전석 무료
문 의 | 동래문화회관 051-550-6611
해운대문화회관 051-741-7651



2014년 창단한 ‘세레나데’는 다양한 매력의 26명의 소속 아티스트로 구성되어 있는 공연단체이며, 모든 관객들이 뮤지컬 공연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는 무대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무대는 뮤지컬 ‘렌트’의 <Seasons of Love>로 시작해서 남성 4중창 <Volare>, 영화 ‘드림걸즈’ <Dream Girls>, 뮤지컬 ‘킹키부츠’ <Land of Lola>, 뮤지컬 ‘영웅’의 <단지동맹>, <영웅>, <그 날을 기억하며> 등 총 12개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매 순간을 하이라이트로 장식하며 꽃처럼 아름다운 시간을 세레나데가 선물할 예정이다.

난타-부산

일 시 | 11월 26일(수)~30일(일)
수·목·금 오후 7:30, 토 오후 3:00, 6:00,
일 오후 3:00 **동서대학교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입 장 료 | R석 7만원, S석 5만원
문 의 | 파워엔터테인먼트 1600-3570



한국의 전통 사물놀이 가락을 서양의 공연양식에 접목하여 드라마화한 작품으로써 아무런 대사없이 소리와 움직임만으로 구성된 한국 최초의 비언어극이다.

세 명의 요리사가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즐겁게 요리를 준비하는 동안 지배인이 깜짝 등장한다. 잡채, 인절미, 크림케이크 등, 다짜고짜 요리 목록을 읊으며 예전에 없던 결혼식 파티를 준비하라는 명령이다. 낙산 주방장인 매니저의 조카는 잠시도 눈을 땔 수 없는 사고뭉치이다. 주어진 시간은 오직 한 시간! 과연 이 사촌사가 모여 완벽한 결혼 파티를 준비할 수 있을까? 불수록 추천하고 싶어지는 단 하나의 두드림. 당신을 위한 파티는 지금 다시 시작한다.

뮤지컬 해운: 푸른바다의 물결

일 시 | 11월 28일(금) 오후 7:30, 29일(토)
오후 5: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 장 료 | R석 3만원, S석 2만원
문 의 | 해운대문화회관 051-741-7651



일제강점기 해운대 어촌 주민들의 삶과 저항을 그려낸 창작 뮤지컬 <해운: 푸른바다의 물결>은 조선의 처절한 역사를 바탕으로 평범한 개인이 성장하고 변모하여 큰 역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담은 이야기로 ‘바다의 물결은 작은 바람에서 시작된다.’를 주제로하여 작은 움직임이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내듯, 평범한 사람들의 용기와 연대가 거대한 역사의 물결을 만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가극극

피터팬-부산

일 시 | 11월 1일(토) 오전 11:00, 오후 1:00,
3:00 **사상구다누리센터**
입 장 료 | 전석 3만원 (예매할인 1만원)
문 의 | 즐겨찾기 02-420-3005



각박해져만 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컴퓨터 문화와 이기주의적인 생활에 익숙해져 있어 날로 나약해져만 가는 현실의 안타

까움에 기획된 공연이다.

세계 모든 어린이들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동화 피터팬을 통해 어린이들의 정서함양과 자아 실현, 풍부한 상상력을 통한 창의력 발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총 5막 7장으로 구성된 ‘피터팬’은 장면의 변화가 많고 이색적인 줄거리와 다채로운 등장인물들이 가득한 밝고, 즐겁고, 환상적인 어린이 뮤지컬이다. 피터팬의 환상적인 이야기에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영원히 변하지 않기를 바라며 아름다운 추억으로 예쁘게 간직되길 바란다.

호두까기인형-부산

일 시 | 11월 9일(일) 오전 11:00, 오후 1:00,
3:00 **기장군청 차성아트홀**
입 장 료 | 전석 1만원
문 의 | 1588-7890



크리스마스 이브, 남매인 '마리'와 '프리츠'는 선물을 기대하고 있다. 두 사람은 할아버지 '드로셀마이어'에게 호두까기 인형을 선물로 받게 된다.

그날 밤, '마리'는 장난감 왕국을 파괴하려는 '쥐마왕'과 '호두까기 인형'의 놀라운 전투를 목격하게 된다. 얼떨결에 '마리'와 '프리츠'는 '호두까기 인형'을 따라 장난감 왕국을 지미기 위한 모험을 떠나게 된다. 과연 둘은 함께 왕국을 지켜낼 수 있을까? 생동감 넘치는 배우들의 화려한 춤선과 열정적인 라이브 노래로 현장감이 느껴지는 뮤지컬로 이해하기 쉽게 다가오는 스토리라인으로 어린이부터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뮤지컬이다.

어린이 뮤지컬 할머니 숲의 비밀

일 시 | 11월 11일(화)~12일(수) 오전 11:30
울속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 장 료 | 전석 5천원
문 의 | 울속도문화회관 051-220-5811~14



오늘날 우리는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음식은 넘쳐나고, 아이들은 그 속에서 쉽게 편식하고 남기는 습관에 노출되어 있다. 하지만 풍요 속에서 잊히기 쉬운 것이 있으니 바로 지구의 생태환경과 자연이 길러낸 건강한 먹거리의 소중함이다. 이 공연은 아이들이 풍요 속에서 놓치고 있는 음식의 가치와 환경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고, 음식을 아끼고 감사히 먹으며 지구를 지켜야 한다는 실천적 메시지를 전한다. '채소를 잘 먹고, 음식을 남기지 않고, 환경을 아끼는 습관'을 통해 지구의 미래를 함께 지켜갈 수 있음을 느끼도록 하는데 그 의도가 있다.

알사탕-부산

일 시 | 11월 29일(토)~30일(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 장 료 | 1층 동동이석 3만9천원, 2층 구슬이석 2만6천원
문 의 | ㈜쌍크브릿지 1533-7244



세계적인 작가 백희나의 그림책 <알사탕>이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줄 마법 같은 이야기가 뮤지컬로 실현된다.

유아 도서 부문 베스트셀러 작가 백희나와 어린이 공연 넘버원 제작진의 만남으로 어린이는 물론 어른까지 한달음에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게 만드는 기발한 상상력, 넘치는 유머, 그리고 가슴 뭉클한 감동까지 선사한다. 문방구에서 산 알사탕 한 봉지. 사탕 한 알을 입에 넣자, 원래는 들을 수 없던 소리가 들린다. "동동아~ 동동아~" 마법의 사탕이 들려주는 마음의 소리, 다음엔 또 누구의 소리가 들릴까? 마법 같은 이야기 속에서 마음이 말랑해지는 경험을 함께 보길 바란다.

콘서트

2025 김창옥 토크콘서트 시즌5

일 시 | 11월 2일(일) 오후 2:00, 6:00
백스코 오디오리움
입 장 료 | R석 8만8천원, S석 7만7천원, A석 6만6천원
문 의 | 티켓링크 1588-7890

2025 THE 신승훈 SHOW 'SINCERELY 35'

일 시 | 11월 7일(금) 오후 7:30
8일(토) 오후 6:00 **백스코 오디오리움**
입 장 료 | R석 16만5천원, S석 14만3천원
문 의 | ㈜월드쇼마켓 1566-5490

2025 코요태스티벌 : 흥

일 시 | 11월 29일(토) 오후 6:00
백스코 오디오리움
입 장 료 | R석 14만3천원, S석 12만1천원
문 의 | 티켓링크 1588-7890

영상

영상으로 만나는 미스터리 추리극 실종 법칙

일 시 | 11월 5일(수) 오후 7:00
영도문화예술회관 절영홀(소공연장)
입 장 료 | 전석 무료 (1인2매)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051-419-5571~4



영상으로 만나는 미스터리 추리극 <실종 법칙> 공연은 예술의전당 영상화사업의 일환으로 선보이는 작품이다.

대기업에서 승진을 앞둔 유진은 휴대폰을 꺼놓고 행방불명 된 지 24시간이 지났다. 언니 유영은 만우의 자취방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두 사람은 낯선 대화를 이어간다. 이번 공연은 한 사람이 사라진 후 드러나는 진실과 비밀을 통해 관객에게 긴장감과 울림을 전하는 작품이다. 관객들은 사건을 추리하는 동안 스스로를 돌아보며, 우리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다.

행사

부산일러스트레이션페어V.6

일 시 | 11월 21일(금)~23일(일)
백스코 제2전시장 4 HALL
입 장 료 | 성인 1만1천원, 청소년 6천원
문 의 | 오씨메이커스 02-2602-8602

- 전시분야

일러스트레이션, 회화, 그림책, 독립출판, 캐릭터 디자인, 그래픽디자인, 게임, 애니메이션, 웹툰, 캘리그래피

제202회 알바트로스 시낭송콘서트

일 시 | 11월 22일(토) 오후 3:00
영광도서 문화홀 9층
입 장 료 | 무료
문 의 | 010-6367-0149

- 출연

정길언 시인, 허영화 시인 외 회원 및 초대시인

김옥균의 클래식 인문학강좌 **클래식 인문학-바로크에서 낭만파까지**

일 시 | 9월 24일(수) ~ 12월 3일(수)

매주 수요일 오후 2:00

부산진구 평생학습관 강의실4

입 장 료 | 무료

문 의 | 부산진구청 평생학습관 051-605-4875

▼▼

프로그램

- 모차르트 오페라 [돈 조반니] 전막 감상
- 물의 도시 베니스와 작곡가 비발디의 생애와 음악
- 바로크시대의 음악의 어머니- 헨델의 대표작품 감상회
- 러시아 문화의 정수- 차이코프스키 비창교향곡, 교향곡 5번
- 베토벤의 유산- 본과 베를린 음악기행
- 9세기 낭만파 체코 작곡가 드보르자크의 생애와 음악
- 빛나는 보헤미아 프라하- 드보르자크, 스메타나 대표음악
- 베토벤 합창교향곡 발레공연 다큐멘터리[댄싱 베토벤]
- K아트 팝 가곡 싱얼롱, 가곡 부르기 등

김옥균의 클래식 뮤직 아카데미

일 시 | 매주 목요일 오전 11:00

다송뮤직 아트홀(UN평화공원 옆)

입 장 료 | 1개월 5만원

문 의 | 김옥균 010-6367-0149



전 MBC PD이자 클래식 음악해설가 김옥균의 해설로 진행되는 '클래식뮤직 아카데미'는 불면증과 우울증 완화에 도움을 주는 클래식 감상과 서양음악사 특강, 가곡 부르기, 연주회 실황 영상까지, 클래식 입문자도 즐길 수 있는 힐링 강좌다.

프로그램

- 클래식음악영화 [루이스 베토벤]
-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 [K-art pop 가곡] 특집
- 베토벤 [교향곡 8번] 공연 실황
- 그리그 페르귤트 모음곡
- 쇼팽의 탄생지 폴란드 음악다큐 기행
- 오페라와 뮤지컬의 차이점

11월 오페라바움

해설이 있는 클래식 & 오페라 감상회

일 시 | 매주 월요일·금요일 오후 2:00,

토요일 오후 2:00, 7:00

일요일 오전 10:00 오페라바움

입 장 료 | 전석 2만 5천원

문 의 | 오페라바움 실장 010-4205-1039



▼▼

11월에는 매주 월요일 고전-낭만주의 음악, 금요일에는 동구-러시아 특집 오페라, 매주 토요일에는 직장인을 위한 특별 편성으로 사전해설과 참여자의 자유토론·감상소감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

- 오페라 / 야나체크 "예누파"(7~8일), 브리튼 "베네치아에서의 죽음"(14~15일)
- 림스키코르사코프 "사드코"(21~22일), 보로딘 "이그르공"(28~29일)
- 콘서트 / 브람스 "교향곡 3번"(3,8일), 프로코피예프 "바이올린 협주곡 1번"(10,15일)
- 프랑스 바로크 음악(17,22일), 스트라빈스키 "페트루슈카"(24,29일)

11월 아카데미

시네바움(CINEBAUM)

일 시 | 세부 일정 참고

시네바움(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225)

문 의 | 010-2774-3455(문자 예약)

▼▼

3일(월) 오후 7:00

형식에서 벗어나기: 설치와 개념의 실험정신

10일(월) 오후 7:00

픽셀아트와 과정철학: 디지털 시대의 공존법

책과 사람을 만나는 여정

안내: 최종규(사전도서관·책박물관 대표)

1일(토) 오후 3:00/북천동 금목서가

8일(토) 오후 3:00/보수동 대영서점

17일(월) 오후 7:00

상영작: 물 위의 음표, 해변의 발견

참석: 김지환(영화감독, 소리그림 대표)

진행: 김영광(영화평론가)

24일(월) 오후 7:00 상영작: 평화

참석: 박진용(영화감독)

진행: 김영광(영화평론가)

정기프로그램 매월 첫 목요일(11/6) 오후 5:00

전시

S.N.A. EXHIBITION 시리즈

"주현 초대展 관조: 끝과 시작 그 간극으로부터"

일 시 | 11월 6일(화)~29일(토) 오전 10:00~

오후 6:00 영도문화예술회관 선유갤러리

입 장 료 | 무료

문 의 | 051-419-5571~4



작품 「관조」는 우리들의 삶이 언제나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지만, 어느 한순간조차 같지 않으며, 참나의 순간순간이 모여 만들어지는 일상을 담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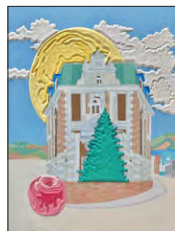
반복되는 듯한 삶 속에서 무심하고 사소한 일상의 소중한 가치와 무한하지 않은 우리의 삶에 대한 탐구이다. 작가 주현은 동양화의 드로잉 매체가 현대 미술 속에서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지를 실험적으로 탐구한다. 그의 작업은 단순한 선의 나열을 넘어 시간과 공간을 관조하는 태도와 삶을 바라보는 시선을 담아낸다. 또한 단순하나 형상에 머무르지 않고 평범한 일상의 시간을 예술적 텍스트로 전환하여 무심히 지나치는 순간의 아름다움을 다시금 환기한다.

서재하 개인전 **비사건처리과: 기록되지 않은 순간을 기록합니다**

일 시 | 11월 8일(토)~23일(일) 낭만시간연구소

입 장 료 | 무료(평일 예약 필수)

문 의 | 010-5954-2544



▼▼

일상 기록청 산하 비사건처리과는 '아무 일 없었던 하루'의 파편들을 관찰하고 그날의 공기와 움직임, 사라진 기억을 비사건 기록 파일로 보존한다. 이번

전시는 그 아카이브 중 하나인 『사과와 땅콩잼』 기록 파일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한끼의 식사, 어떤 말을 하지 않았던 순간, 매번 보이는 풍경처럼 기억되지 못한 감각의 조각을 재구성한 보고서이다. 이 비사건들을 감각적으로 재편집함으로써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졌던 시간'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 경계에서 가장 많은 것을 품은 시간은 아무 일도 없던 시간이다. 그리고 지금 그 '사건 없음'을 다시 읽기 시작한다.

전지적 관객 시점 · 오늘도 공연장에 갑니다

뜨락에서 만난 친친탱고

2025 시민뜨락축제

글 남세현 동래구 연안로

시원한 바람이 부는 9월의 어느 날, 2025 시민뜨락축제에서 센텀아트홀을 대표해서 공연을 펼친 친친탱고를 만났다. 집 안에 있는 평평한 빈터라는 뜻의 뜨락. 부산시민회관 앞 광장에서 매년 매달 펼쳐지는 시민뜨락축제에서 부산의 다양한 음악 장르를 선보이는 아티스트들의 공연을 감상할 수 있어 좋았다. 작년 따뜻한 봄에 만났던 친친탱고를 올가을 다시 만나 반가웠다.

달맞이 등 EP 앨범 곡뿐만 아니라 Tango del Mar, 돛 등 올 11월 발매되는 1집 정규 앨범 수록곡들로 꽉 채운 30분 남짓의 공연이었다. 반도네오니스트 김종완님, 피아니스트 이안나님,



바이올리니스트 강소연님, 퍼커셔니스트 이영훈님, 그리고 언젠가 합류해 주실 비올리스트 정하람님. 각자의 개성으로 하나의 소리를 만들어내는 유쾌하고 즐거운 에너지가 무대를 꽉 채운다. 너무 좋다고 외쳐주신 분, 브라비를 외쳐주신 분, 앵콜곡에서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다 같이 박수 쳐 주신 모든 관객들이 있어 행복했다.

프리다 칼로: 레플리카전 관람 후기

프리다 칼로 레플리카전

글 구민경 부산 해운대구

내가 알고 있던 프리다 칼로는 강렬한 자화상으로 유명한, 자의식이 강한 화가이자 멕시코 전통을 사랑한 예술가였다. 그러나 이번 *프리다 칼로: 레플리카전*을 통해 만난 그녀는 단단하면서도 상처받은 영혼이었다. 비록 복제작품이었지만, 실제로 접하지 못했던 다양한 작품들을 가까이에서 마주하니 숨결까지 전해지는 듯했다.

전시장에는 그녀의 성장 배경과 예술적 여정을 설명하는 글이 곳곳에 놓여 있었다. 그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니, 트레이드마크인 일자눈썹과 콧수염조차 자신의 고통과 정체성을 표현한 언어였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소아마비와 교통사고, 남편 디에고의 불륜, 수차례의 수술... 그녀의 삶은 상처로 점철되어 있었지만, 프리다는 그 고통을 빛으로 꿰매며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었다. 그녀의 자화상은 단순한 얼굴이 아니라 '자기 존재에 대한 선언'이었고, 그 용기는 지금도 많은 여성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준다.

처음엔 거칠게만 느껴졌던 그녀의 시선이 이제는 묵직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작품의 배경을 알고 바라보니, 그 안에 숨어 있던 생의 온기가 느껴졌다. 마지막 체험 부스에서 그녀의 색으로 직접 칠하며, 잠시나마 프리다가 되어본 시간이 오래 남는다.



공학자, 쇼스타코비치를 만나다

하창식 지음
문창별 / 2만 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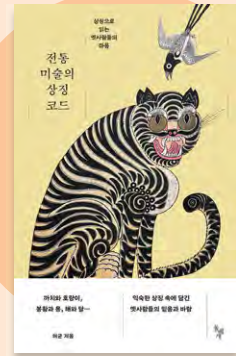
공학자이자 수필가인 하창식 부산대 교수가 융합적 시선으로 예술 혹은 예술가를 다룬 세 번째 에세이집. 이번에는 쇼스타코비치를 만난다. 저자는 융합적 시선으로 책을 읽고, 그림, 영화, 음악을 즐긴다. 공학자가 본업인 탓에, 일반 문학 비평가나 음악 칼럼니스트, 도슨트(Docent) 또는 영화 비평가들과 달리, 공학자 특유의 분석적 눈으로 예술을 접한다. 저자는 쇼스타코비치에 대해 알게 되면서 '20세기에 부활한 베토벤'이라고 생각했다. 베토벤은 '난청'이라는, 음악가에게 치명적인 육체적 고통을 겪었다. 쇼스타코비치는 전체주의적 공산 정권 구조련의 스탈린 체제 아래, 매일 매일을 삶과 죽음의 언저리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이들에게는 자신들의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음악으로 이겨내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쇼스타코비치의 삶과 음악은 육체적 고난을 딛고 환희를 전한 베토벤과 닮았다. 쇼스타코비치 서거 50주년에 바치는 에세이집이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미술사

유홍준 지음
놀와 / 3만 6,000원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세상에 널리 알리는 데 힘써 온 유홍준 교수가 한국 미술을 처음 접하는 이들도 그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더 쉽게 풀어 쓴 한국미술사. 이후 이 책이 해외에도 소개되기를 바라며 '외국인'을 제목에 넣었으나, 오로지 외국인'만'을 위해 쓴 책은 아니다. 한국미술이 오히려 서양미술보다 낫설 수 있는, '한국인'들을 위한 입문서이자 교양서이기도 하다. 이 책은 선사미술, 고분미술, 공예, 불교미술, 도자, 회화 등 장르를 우선하는 구성을 택했다. 엄선하여 수록한 유물과 사진으로 한국미술의 진면목을 알 수 있다. 책의 첫머리를 장식한 글 '한국미술사의 흐름'은 선사시대부터 근대까지 한국미술의 전개 과정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다. 전체 책의 구성에서는 한국미술의 각 장르를 더 충실하게 보여주는 데 집중하였으나, 한편으로는 각 장르를 이해하는 데 배경지식으로서 유용할 한국미술사의 기초를 이 글을 통해 먼저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전통 미술의 상징 코드 -상징으로 읽는 옛사람들의 마음

허균 지음
돌베개 / 2만 2,000원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성공을 두고 한국적 무속 전통이 어떻게 세계적 문화 코드로 작동할 수 있는지 분석하는 시각도 활발하게 따른다. 작품 속에서 중요한 설정으로 등장하는 '혼문'은 길상·벽사의 개념과도 닮아 있다. 그 외에도 '케데헌'에는 많은 상징적 요소가 녹아 있다.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 그것을 통해 삶의 의미와 질서를 찾으려는 보편적 욕망이 작품 속 한국적 상징과 잘 이어져 있다. 삶의 안녕과 행복을 바라는 마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변함이 없다. 옛사람들은 나쁜 기운을 막고 복을 불러들이기 위해 그림·조형물·건축물에 다양한 상징을 담았다. 귀신은 두려워하지만 동시에 삶을 지켜주는 존재였고, 죽음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여정의 시작이었다. 이 책은 길상과 벽사, 삶과 죽음, 공간과 천문관 속에 담긴 전통의 지혜를 풀어내며,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여전히 이어지는 상징의 문화적 힘을 보여준다.

November 2025



부산문화회관 2025 아카데미

부산문화회관 아카데미 <번역가의 서재>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글 박민희 교육전시팀장

지난해 한 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에 이어 '번역'이 다시 관심을 끄는 계절이 왔다. 한국 최초, 아시아 여성작가 최초라는 수식어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 선포 등 어수선했던 연말 분위기로 인해 그 상의 가치를, 영예를 오롯이 새길 충분한 여유가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 올 한 해의 아카데미를 기획하면서 그 시간을 다시 기록하고자 '번역가의 서재'와 '노벨문학상 강독 오디션'을 준비하게 되었다.

K팝, K푸드, 뷰티가 열풍인가 싶더니 어느새 '케데헌(케이팝 데몬 헌터스)'이란 글로벌 현상이 등장했다. '케데헌' 현상은 단지 한국의 대중문화가 세계 곳곳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현상을

넘어, 한국이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상징한다. 전 세계 각지에서 한국어 배우기 열풍도 더해지고 있다고 하니 그야말로 K컬처 시대 중심에 있다. 그런 측면에서 9월 28일부터 시민회관에서 진행중인 국립한글박물관 순회전시인 <근대한글연구소>가 더욱 의미 있게 느껴진다.

우리의 문자, 한글을 통해 세계 유수의 작품들을 국내에 소개한 대표적인 번역가 10분을 초청하는 '번역가의 서재' 프로그램에서는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는 물론이고 특수어(튀르키예어, 폴란드어)까지 포함하며, 일부 번역자들은 에세

이, 소설, 연구서 등을 발간한 작가이기도 하다. 이분들이 번역한 도서 목록들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청소년 권장 도서에서부터 베스트셀러 작품까지 품격 있는 서재가 완성되는 듯 하다.

가장 먼저 10월 21일(화) ‘문학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의 주제로 『접시꽃 당신』,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로 유명한 시인이자,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도종환 문학가의 강연을 시작으로 이 프로그램의 문을 연다.

이어서 10월 22일(수)에는 불문학자이자 고려대 명예교수인 김화영 번역가의 ‘**김화영의 번역 수첩**’ 강연이 있다. 알베르 카뮈 전집(전 20권)을 비롯해 장 그르니에, 미셸 투르니에 작품 등 110권 이상을 번역했고 프랑스 정부 문화훈장·교육훈장을 받았다.

10월 23일(목)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튀르키예·아제르바이잔학과 이난아 교수의 ‘**이스탄불 작가 오르한 파묵, 어떻게 읽을까?**’라는 주제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오르한 파묵과의 약 30여 년의 번역 인연에 대해 소개한다.

10월 24일(금)에는 문학평론가이자 번역가인 김옥동의 ‘**번역가의 길**’에 대한 강연이 이어진다. 그는 주옥같은 명작 『노인과 바다』, 『위대한 개츠비』, 『무기여 잘있거라』, 『동물농장』,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앵무새 죽이기』 등을 번역했다.

10월 31일(금)에는 ‘**문학 번역, 당신의 언어가 창 너머로 도착할 때**’라는 주제로 김남주 번역가의 강연이 시작된다. 독자에게 오랜 세월 친숙한 번역가로 로맹 가리, 가즈오 이시구로, 프링수왈즈 사강 등의 작품이 그의 손길을 거쳤다.



부산문화회관 2025 아카데미



부산문화회관 2025 아카데미

11월 07일(금)에는 한국외대 폴란드학과 교수인 최성은 번역가의 ‘**문학을 옮긴다는 것 - 폴란드 문학번역가의 솔직한 수다**’를 주제의 강연은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비스와바 침보르스카와 올라 토카르추크의 작품을 번역했던 폴란드 문학의 사랑에 대해 시민들과 소통할 것이다.

11월 14일(금)에는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파이 이야기』, 『우리는 사랑일까』, 『행복한 사람 타사튜더』 등을 번역한 주인공 공경희를 만난다. ‘**번역, 세상을 잇는 다리**’라는 주제로 40년 가까이 작업한 다양한 번역의 풍경을 독자들에게 들려줄 것이다.

11월 21일(금)에는 이화여대 통번역대학원 교수이자 번역가로 활동하는 정영목의 ‘**사람이 하는 번역**’ 강연이 준비되어 있다. 그는 인공지능 시대에 번역을 하는 것과 번역을 읽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며 번역과 관련된 모든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그의 대표적인 번역서로는 알랭 드 보통의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불안』, 『여행의 기술』 등이 있다.

11월 28일(금) 독일어 번역가 박종대의 ‘**“행복”이라는 말이 독일어에서 왔다고?**’가 준비되어 있다. 지금까지 『만들어진 승리자들』, 『데미안』, 『우연한 불행』, 『메르켈의 자유』, 『바르톨로메는 개가 아니다』 등 200여 권을 번역했으며 『특성 없는 남자』로 21회 한독문학번역상을 받았다.

12월 03일(수)에는 일본 소설을 즐겨 읽는 독자들에게 아주 익숙한 김남주 번역가로부터 무라카미 하루키, 요시모토 바나나,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를 중심으로 한 ‘**번역의 뒤편길**’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번역가의 서재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 기념
국립한글박물관 <근대한글연구소> 전시연계
세계적인 문학작품들의 번역가 대향연(大饗宴)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 신청기간 | 9. 16.(화)~선착순

| 신청방법 | 홈페이지 www.bscc.or.kr(아카데미>수강신청)

| 수 강 료 | 각 강좌별 20,000원

* 마니아 패키지: 전 강좌(총 10개) 신청시 50% 할인(100,000원)

연번	일시·장소	강사	주제	주요 약력 및 번역서
1	10.21.(화) 14시~16시 챔버홀	도종환 시인,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회의원	문학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	- 『접시꽃 당신』, 『내가 사랑하는 당신은』, 『흔들리며 피는 꽃』 등 시집 - 『너 없이 어찌 내게 향기 있으랴』, 『사람은 누구나 꽃이다』 등 산문집 - 2014 신석정문학상, 2017 박용철문학상 등 수상
2	10.22.(수) 14시~16시 챔버홀	김화영 문학평론가, 번역가	김화영의 번역 수첩	- 『알베르 카뮈 전집(전 20권)』, 『마담 보바리』, 『좁은 문』, 『어린 왕자』, 『어두운 상점들의 거리』 등 110 여권 - 프랑스 정부 문화훈장(오피시에), 프랑스 정부 교육훈장(오피시에)
3	10. 23.(목) 14~16시 챔버홀	이난아 한국외대 튀르키예· 아제르바이잔학과 교수, 번역가	이스탄불 작가오르한 파묵, 어떻게 읽을까?	- 『내 이름을 발강』 등 60편 이상의 튀르키예 문학 작품 번역 - 김영하의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등 6편의 한국문학 작품을 튀르키예어로 번역
4	10. 24.(금) 14~16시 챔버홀	김옥동 문학평론가, 번역가	번역가의 길	- 『노인과 바다』, 『무기여 잘 있거라』, 『동물농장』, 『위대한 개츠비』,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왕자와 거지』, 『톨 소여의 모험』 등 번역 - 2011년 한국출판술상 대상 수상
5	10. 31.(금) 14~16시 컨퍼런스홀	김남주 번역가	문학번역, 당신의 언어가 창 너머로 도착할 때	- 『마담 보바리』,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새들은 페루에 가서 죽다』, 『녹턴』, 『슬픔이여 안녕』, 『나를 보내지 마』 등 번역 - 『나의 프랑스식 서재』, 『사라지는 번역자들』 저자
6	11. 07.(금) 14~16시 컨퍼런스홀	최성은 한국외대 폴란드학과 교수, 번역가	문학을 읽는다는 것 - 폴란드 문학 번역가의 솔직한 수다	- 『방랑자들』, 『태고의 시간들』, 『죽은 이들의 뼈 위로 쟁기를 끌어라』, 『기묘한 이야기』, 『솔라리스』 등 번역 - 폴란드 정부로부터 2012년 십자 기사 훈장, 2024년 십자 장교 훈장 수상
7	11. 14.(금) 14~16시 컨퍼런스홀	공경희 번역가	번역, 세상을 잇는 다리	-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 『파이 이야기』, 『우리는 사랑일까』,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행복한 사람 타사 튜더』 등 번역
8	11. 21.(금) 14~16시 컨퍼런스홀	정영목 이화여대 통역번역 대학원 교수, 번역가	사람이 하는 번역	- 알랭 드 보통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불안』, 『여행의 기술』, 『눈먼 자들의 도시』, 『호밀밭의 파수꾼』 등 번역 - 『소설이 국경을 건너는 방법』 등 저자
9	11. 28.(금) 14~16시 컨퍼런스홀	박종대 번역가	‘행복’이라는 말이 독일어에서 왔다고?	- 『데미안』, 『수레바퀴 아래서』, 『우연한 불행』, 『토마스 만 단편선』, 『위대한 패배자』, 『특성 없는 남자』 등 번역 - 2024년 21회 한독문학번역상 수상
10	12. 03.(수) 14~16시 챔버홀	김남주 번역가	번역의 뒤편길	- 무라카미 하루키, 요시모토 바나나, 히가시노 게이고 등 일본문학 번역가 - 『세계의 끝과 하드보일드 원더랜드 1·2』, 『키친』, 『티타새』, 『하치의 마지막 연인』, 『가면산장 살인사건』 등 번역

01

10.21.(화)
14시-16시**문학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
챔버홀, 2만원

도종환

시인,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회의원

- 『접시꽃 당신』, 『내가 사랑하는 당신은』, 『흔들리며 피는 꽃』 등 시집
- 『너 없이 어찌 내게 향기 있으랴』, 『사람은 누구나 꽃이다』 등 산문집
- 2014 신석정문학상, 2017 박용철문학상 등 수상

02

10.22.(수)
14시-16시**김화영의 번역 수첩**
챔버홀, 2만원

김화영

문학평론가, 번역가

-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
- 『알베르 카뮈 전집(전 20권)』, 『마담 보바리』, 『좁은 문』, 『어린 왕자』, 『어두운 상점들의 거리』 등 110 여권
- 프랑스 정부 문화훈장(오피시에), 프랑스 정부 교육훈장(오피시에)

03

10.23.(목)
14시-16시**이스탄불 작가 오르한 파묵, 어떻게 읽을까?**
챔버홀, 2만원

이난아

한국외대 튀르키예·아제르바이잔학과 교수, 번역가

- 『내 이름을 빨강』 등 60편 이상의 튀르키예 문학 작품 번역
- 김영하의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등 6편의 한국문학 작품을 튀르키예어로 번역

04

10.24.(금)
14시-16시**번역가의 길**
챔버홀, 2만원

김육동

문학평론가, 번역가

- 『노인과 바다』, 『무기여 잘 있거라』, 『동물농장』, 『위대한 개츠비』,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왕자와 거지』, 『툼 소여의 모험』 등 번역
- 2011년 한국출판학술상 대상 수상

05

10.31.(금)
14시-16시**문학번역, 당신의 언어가 창 너머로 도착할 때**
컨퍼런스홀, 2만원

김남주

번역가

- 『마담 보바리』,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새들은 페루에 가서 죽다』, 『녹턴』, 『슬픔이여 안녕』, 『나를 보내지 마』, 『함머 클라비어』 등 번역
- 『나의 프랑스식 서재』, 『사라지는 번역자들』 저자

06

11.07.(금)
14시-16시**문학을 옮긴다는 것 - 폴란드 문학 번역가의 솔직한 수다**
컨퍼런스홀, 2만원

최성은

한국외대 폴란드학과 교수, 번역가

- 『방랑자들』, 『태고의 시간들』, 『기묘한 이야기』, 『솔라리스』, 『죽은 이들의 뼈 위로 정기를 끌어라』 등 번역
- 2012년 십자 기사 훈장, 2024년 십자 장교 훈장 수상(폴란드 정부)

07

11.14.(금)
14시-16시**번역, 세상을 잇는 다리**
컨퍼런스홀, 2만원

공경희

번역가

-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파이 이야기』,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 『우리는 사랑일까』, 『행복한 사람 타샤 튜더』, 『무지개 물고기』 등 번역
- 북에세이 『아직도, 거기 머물다』 저자

08

11.21.(금)
14시-16시**사람이 하는 번역**
컨퍼런스홀, 2만원

정영목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교수, 번역가

- 알랭 드 보통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불안』, 『여행의 기술』, 『눈먼 자들의 도시』, 『호밀밭의 파수꾼』 등 번역
- 『소설이 국경을 건너는 방법』 등 저자
- 제3회 유영번역상, 제53회 한국출판문화상(번역 부문) 수상

09

11.28.(금)
14시-16시**‘행복’이라는 말이 독일어에서 왔다고?**
컨퍼런스홀, 2만원

박종대

번역가

- 『데미안』, 『수레바퀴 아래서』, 『토마스 만 단편선』, 『우연한 불행』, 『만들어진 승리자들』, 『늑대의 시간』, 『메르켈의 자유』, 『위대한 패배자』, 『바르톨로메는 개가 아니다』, 『특성 없는 남자』 등 번역
- 2024년 21회 한독문학번역상 수상

10

12.03.(수)
14시-16시**번역의 뒷안길**
챔버홀, 2만원

김난주

번역가

- 무라카미 하루키, 요시모토 바나나, 히가시노 게이고 등 일본문학 번역가
- 『세계의 끝과 하드보일드 원더랜드 1·2』, 『키친』, 『티티새』, 『하치의 마지막 연인』, 『가면산장 살인사건』 등 번역

BSCC

P R O G R A M

(재)부산문화회관·부산시립예술단 2026 상반기 공연프로그램 안내

예매 방법

온라인 예매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에서 24시간 예매 가능합니다.

전화예매 | 대표번호 051-607-6000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주말 및 공휴일 제외)

티켓수령 | 관람 당일 공연장 로비 매표소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매 취소 및 변경

취소·변경 안내는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 또는 전화(051-607-6000)로 예매 취소나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매는 공연 전일 17시에 종료되며, 취소는 공연 전일 17시까지 가능합니다. 이후, 취소 및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취소내역은 홈페이지의 '마이 페이지'에서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수료 티켓환불규정에 따라 수수료가 일부 발생할 수 있으며, 공연 당일에는 취소, 변경,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구분	취소수수료	비고
공연 7일 전~2일 전까지	티켓 가격의 10% 공제 후 환불	예매 당일 취소 시,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단, 공연 당일 불가) ※ 예매/취소마감은 공연 전일 17시
공연 1일 전~취소마감 17시까지	티켓 가격의 20% 공제 후 환불	
취소마감 17시 이후부터 공연당일	취소 및 환불 불가	

※ 프로그램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매·문의 : 051-607-6000

2026. 1-6월

January - June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 **문화** 부산문화회관 / **시민** 부산시민회관

부산문화회관

고마워, 내 이야기 들어줘서

연극 <빵아>

문화 | 중극장 2025. 11. 14.(금)-16.(일) 금요일 7:30pm,
토요일 일요일 2:00pm
R석 60,000원 S석 40,000원
• 극작 | 김은성
• 연출 | 김태형
※관람연령 | 14세 이상 관람



현대무용의 혁신 그 자체

알렉산더 에크만의 <해머> 에테보리 오페라 댄스컴퍼니

문화 | 대극장 2025. 11. 21.(금) 7:30pm, 22.(토) 3:00pm
VIP 100,000원 R석 80,000원 S석 60,000원 A석 40,000원
• 예술감독 | Katrin Hall
• 안무 | Alexander Ekman
※관람연령 | 14세 이상 관람



부산 시민들이 만드는 꿈의 무대

<2025 제아음악회>

문화 | 대극장 2025. 12. 31.(수) 7:30pm
R석 30,000원 S석 20,000원 A석 10,000원
• 연주 | (재)부산문화회관 시민오케스트라
※관람연령 | 7세 이상 관람



따뜻한 감성동화 대한민국 대표 가족뮤지컬

가족뮤지컬 <구름빵>

문화 | 중극장 2026. 1. 23.(금)-24.(토)
금요일 10:30am, 2:00pm, 토요일 11:00am, 2:00pm
R석 40,000원 S석 20,000원
• 프로듀서 | 정유란
• 연출 | 이태린
• 극본 | 서희정
※관람연령 | 전체관람가



당신의 삶이 영화가 되는 시간

시네마 파라디소 <Begin Again>

문화 | 중극장 2026. 3. 14.(토) 2:00pm
R석 55,000원 S석 44,000원
• 출연 | 홍진호(첼로), 박현수(보컬), 조윤성(피아노),
석다연(드럼), Sean Pentland(베이스)
※관람연령 | 7세 이상 관람



두 대의 피아노, 그 이상의 전율!

피아니스트 이혁&이효 듀오 <베토벤 합창 : 신들의 불꽃>

문화 | 중극장 2026. 3. 26.(목) 7:30pm
R석 70,000원 S석 50,000원 A석 30,000원
• 출연 | 피아니스트 이혁, 피아니스트 이효
※관람연령 | 7세 이상 관람



※『예술의초대』11월호에 소개된 이혁&이효 듀오 콘서트가 연주자 사정으로 취소되었습니다.
관람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와 욕망, 권력에 눈먼 자들의 광기

연극 <칼로막베스>

문화 | 중극장 2026. 4. 4.(토)-5.(일) 3:00pm
R석 70,000원 S석 50,000원 A석 30,000원
※관람연령 | 13세 이상 관람가



사실 그 날, 웅궁에선 기록에 남지 않은
비밀스러운 사건이 벌어졌다!

가족뮤지컬 <토장군을 찾아라!>

문화 | 사랑채 2026. 5. 2.(토) - 7. 25.(토)
평일 10:30am, 토요일 및 공휴일 11:00am, 2:00pm
*일요일 및 월요일 공연 없음
전석 30,000원



부산시민회관

젊은이들의 아름다운 선율, 부산의 미래를 울린다!

2025 대학 교향악축제

시민 | 대극장 2025. 11. 26.(수)-30.(일)
평일 7:30pm, 주말 5:00pm
전석 10,000원
• 출연 | 경성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부산대학교, 인제대학교
※관람연령 | 7세 이상 관람



2024년 서울미래연극제 초연, 작품상·연출상·연기상 수상

연극 <오합마백씨행장 완판본>

시민 | 소극장 2025. 11. 28.(금) 7:30pm, 29.(토) 2:00pm
R석 40,000원 S석 20,000원
• 연출, 출연 | 오치운
※관람연령 | 14세 이상 관람



놓칠 수 없는 겨울 발레

국립발레단 <호두까기인형>

시민 | 대극장 2025. 12. 5.(금) 7:30pm, 6.(토) 2:00pm
VIP석 100,000원 R석 80,000원 S석 60,000원
A석 40,000원
※관람연령 | 48개월 이상 관람



우리 크리스마스에 불까요?

대니 구 원터 콘서트 <HOME>

시민 | 대극장 2025. 12. 27.(토) 5:00pm
R석 80,000원 S석 60,000원 A석 40,000원
※관람연령 | 7세 이상 관람



기억이 불러온 가상은 현실의 위로일까, 망상일까 연극 <시물라시옹>

시민 | 소극장 2026. 1. 16.(금)-17.(토)
금요일 7:30pm, 토요일 3:00pm
전석 50,000원
• 연출 | 이태린
• 작가 | 최양현
• 출연 | 송철호, 신사랑, 유연, 안창현, 임지영, 송예준
※관람연령 | 7세 이상 관람



부산 클래식의 저력, 음악적 드라마의 완성 Sound of Busan: 올 댓 차이콥스키

시민 | 대극장 2026. 2. 27.(금), 6. 19.(금),
8. 21.(금) 7:30pm
R석 50,000원 S석 30,000원 A석 20,000원
• 출연 |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부산네오파하모닉오케스트라,
유나이티드코리아오케스트라
※관람연령 | 7세 이상 관람



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라보’의 클래식 상자 - 하이든>

시민 | 소극장 2026. 2. 28.(토) 11:00am, 2:00pm
전석 30,000원
• 출연 | 라보(시간여행 가이드), 챔버오케스트라
※관람연령 | 30개월 이상(1인 1티켓 소지)



시대를 넘어 사랑받는 발레의 정수 발레 <백조의 호수>

시민 | 대극장 2026. 3. 19.(목)-20.(금) 7:30pm
VIP석 120,000원 R석 100,000원 S석 60,000원
A석 30,000원
• 출연 | 미정
• 음악 | 표트르 일리치 차이콥스키(Pyotr Ilyich Tchaikovsky)
• 안무 | 유리 그리고로비치 Yuri Grigorovich
※관람연령 | 7세 이상 관람
※추후 티켓 오픈

추후공개

진짜 내 안의 나를 찾아서 뮤지컬 <인사이드 미>

시민 | 소극장 2026. 3. 28.(토) 2:00pm, 5:00pm
R석 50,000원 S석 30,000원
• 연출 | 서홍석
• 음악·안무 | 이윤희
※관람연령 | 7세 이상 관람



데뷔 70주년을 맞은, 건반위의 구도자 백건우 피아노 리사이틀

시민 | 대극장 2026. 4. 3.(금) 7:30pm
R석 100,000원 S석 70,000원 A석 50,000원
• 출연 | 백건우
※관람연령 | 7세 이상 관람



동서양이 어우러진 특별한 무대 살롱 드 국악 I - 첼로가야금

시민 | 소극장 2026. 4. 10.(금) 7:30pm
R석 50,000원 S석 30,000원
• 출연 | 김 솔 다니엘(첼로), 윤다영(가야금)
※관람연령 | 7세 이상 관람



무속음악의 펑키(funky)함을 전하다 살롱 드 국악 II - 추다혜차지스

시민 | 소극장 2026. 4. 17.(금) 7:30pm
R석 50,000원 S석 30,000원
• 출연 | 추다혜(리더, 보컬), 시문(기타), 김재호(베이스), 김다빈(드럼)
※관람연령 | 7세 이상 관람



제45회 서울연극제 자유경연작 부문 ‘최우수상’ 수상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 The Clown>

시민 | 소극장 2026. 4. 24.(금)-25.(토) 금요일 7:30pm,
토요일 2:00pm
전석 40,000원
• 원작 | 윌리엄 셰익스피어
• 연출 | 홍성연
• 출연 | 강나리, 구옥분, 서안권, 신재열, 류찬
※관람연령 | 7세 이상 관람



하추핑과 함께하는 클래식 공연! <블링블링 캐치! 티니핑 심포니>

시민 | 대극장 2026. 5. 2.(토) 5:00pm
R석 88,000원 S석 77,000원 A석 66,000원
• 출연 | 지휘자 김성진, 디토 오케스트라, 뮤지컬 배우 6인
※관람연령 | 24개월 이상 관람(1인 1티켓 소지)



화류비련극의 레전드가 온다 화류비련극 <홍도>

시민 | 대극장 2026. 6. 12.(금)-13.(토)
금요일 7:30pm, 토요일 3:00pm
R석 70,000원 S석 50,000원 A석 30,000원
• 원작 | 임선규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 각색/연출 | 고선웅
※관람연령 | 13세 이상 관람(중학생 이상)



집착에 눈 먼 자들이 벌이는 그로테스크한 난장
창극 <살로메>

시민 | 대극장 2026. 8. 29.(토) 3:00pm
R석 80,000원 S석 60,000원 A석 40,000원

- 출연 | 김준수 외 (추후공개)
- 원작 | 오스카 와일드 Salome
- 극본 | 고선웅
- 연출 | 김시화

※ 관람연령 | 13세 이상 관람(중학생 이상)



독일 투어 프리뷰 콘서트

MUSICA VIVA

낙동아트센터 2025. 9. 17.(수) 7:30pm

- 지휘 | 홍석원
- 바이올린 | 정원영
- 비올라 | 닐스 뮌케마이어



공연계 최고 권위의 상 “TONY AWARDS!” 6관왕 수상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시민 | 대극장 일정 및 가격 추후 공지

- 작·작사 | 박천후 Hue Park
- 작·작곡·편곡 | 윌 애런슨 Will Aronson



시민의 일상에 예술을 더하다!

<2026 시민트락축제(상반기)>

시민 | 야외광장 2026. 4-5월 예정 12:10pm

무료



독일 초청 연주회 - 무직페스트 베를린 2025 폐막공연

Musikfest Berlin

베를린 2025. 9. 23.(화) 8:00pm

- 지휘 | 홍석원
- 피아노 | 벤 킴



독일 초청 연주회 - BR 무지카 비바

MUSICA VIVA

빈 2025. 9. 25.(목) 8:00pm

- 지휘 | 홍석원
- 바이올린 | 강별
- 비올라 | 닐스 뮌케마이어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실내악 시리즈 IV
동행(同行)

문화 | 중극장 2025.11. 5.(수) 7:30pm



제625회 정기연주회

RACHMANINOFF

문화 | 대극장 2025.11.14.(금) 7:30pm

- 지휘 | 시몬 에델만
- 피아노 | 우용기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특별공연

※ **문화** 부산문화회관 / **시민** 부산시민회관

부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메인콘서트 IV

소리, 승천

부산콘서트홀 2025. 9. 13.(토) 5:00pm

- 지휘 | 홍석원
- 피아노 | 벤 킴



제198회 정기연주회

광복80주년 기념음악회 <Song of Arirang>

문화 | 대극장 2025. 9. 18.(목) 7:30pm

- 지휘 | 이기선
- 합창 | 부산시립합창단, 대구시립합창단, 해운대소년소녀합창단
- 연주 | UKO



특별연주회

합창으로 하나되는 부산 <제36회 부산합창제>

문화 | 대극장 2025. 10. 28.(화)-10. 30.(목) 7:00pm

- 지휘 | 이기선, 임희준



제199회 정기연주회

송년 칸타타

문화 | 대극장 2025. 12. 4.(목) 7:30pm

- 지휘 | 이기선
- 연주 | UKO



부산시립무용단

제192회 정기공연

부산시립무용단 DoDream 두드림

문화 | 대극장 2025. 11. 7.(금) 7:30pm, 11. 8.(토) 3:00pm

- 연출 | 이정운



특별공연

홀로홀출

문화 | 중극장 2025. 12. 5.(금) 7:30pm, 12. 6.(토) 3:00pm

- 예술감독 | 이정운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31회 정기연주회

New Composition Series III

위대한 유산

문화 | 대극장 2025. 9. 30.(화) 7:30pm

- 지휘 | 이동훈



제232회 정기연주회

New Composition Series IV

부산 국악 작곡 콩쿠르

문화 | 중극장 2025. 10. 28.(화) 7:30pm

- 지휘 | 이동훈



특별연주회

제50회 청소년 협연의 밤

꿈과 감성이 있는 젊은 음악회

문화 | 중극장 2025. 11. 21.(금) 7:30pm



제233회 정기연주회

2025 송년음악회

부산-강릉 KTX 개통 기념 <이음> 국악 콘서트

문화 | 대극장 2025. 12. 18.(목) 7:30pm

- 지휘 | 이동훈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77회 정기연주회

문화 | 대극장 2025. 9. 12.(금) 7:30pm

- 지휘 | 백승현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67회 정기연주회

평화의 노래 Song of Joy

문화 | 대극장 2025. 9. 13.(토) 5:00pm

- 지휘 | 천경필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

제36회 부산청소년합창제

문화 | 대극장 2025. 10. 31.(금) 7:00pm-11. 1.(토) 3:00pm

- 출연 | 부산시내 중·고등학교 합창단 및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제168회 정기연주회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꿈꾸며

문화 | 대극장 2025. 12. 13.(토) 5:00pm

- 지휘 | 천경필





광복

제92회 정기공연

광복80주년 부산시립무용단 스페셜



Do Dream

부산
시립
무용단

연출/안무
이정운

2025.11.7 FRI 19:30
11.8 SAT 1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부산문화회관
주관 부산시립예술단
제작 부산시립무용단

예매 www.bscc.or.kr
티켓 R석 20,000원 / S석 10,000원
문의 051-607-6000(ARS 1번)

비즈니스 성공을 위해 함께 합니다

(재) 부산문화회관 법인회원 멤버십

법인회원을 위한 비즈니스 멤버십은 문화 혜택과 더불어 회관의 홍보 채널을 제공합니다.

한 장의 카드로 혜택을 모으고, 문화를 즐기고, 기쁨을 나눕니다.

기업의 품격을 높여줄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비즈니스 멤버십에 가입하세요.

**비즈니스
멤버십
주요
혜택****부담은 줄이고
문화는 풍성하게**

공연과 전시(20~50%), 아카데미 수강(10%), 회관 주차장(50%)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혜택과
홍보를 한 번에**회관의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을 이용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월간 <예술의초대>, 회관 내 DID, 회관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기업을 홍보하세요.**비즈니스
멤버십
등급별**

등급 (가입기간 1년)	루비 레드 (Ruby Red)	에메랄드 그린 (Emerald Green)	사파이어 블루 (Sapphire Blue)
연회비	5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

공통혜택

공연 초대권 제공(등급별 상이) | 공연 및 전시 할인(20~50%) | 아카데미 수강료 할인 | 월간지 <예술의초대> 매월 발송 | 회원라운지 무료 이용(음료 및 다과 제공) | 주차요금 할인(50%) | 제휴업체 할인(사정 상 변경, 조정될 수 있음) | 회원대상 초청 이벤트 실시(별도계획에 의함) | 법인회원 네임 플레이트 제작 및 비치(대극장 로비 벽면) | 법인회원 현판 제공(법인회원 기업 설치) | 초대권 제공(협의 공연) | 문화회관 주차장 정기이용 등록

등급별 추가 혜택

회관 홈페이지 배너 광고	3개월	2개월	1개월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초대> 광고	1회	-	-
회관 내 DID 법인 홍보	2개월	1개월	-
회관 공식 SNS 홍보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토리, 블로그)	3개월	2개월	1개월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 가입 기간(1년)
- 월간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우송
- 공연정보(SMS) 제공(대관공연 제외)
- 부산문화회관 주차요금 50% 할인
- 정기회원 카드발급 우송(10일 이내)
- 선예매 서비스 제공(일부 공연 제외)
- 문화예술아카데미 수강료 10% 할인

*차량번호 등록 시 할인 적용(1대에 한하며, 신청 후 7일 이내 등록)

- 정기회원 전용 라운지 이용(대극장 3층/회원카드 제시 시/음료 등 제공/무료 및 일부공연 제외)
- 부산 시내 외부 공연 및 대관공연 입장료 **할인**(조최 측 협의에 한함)

VIP SPECIAL MEMBER



연회비 3만원
초대권 2매
(부산시립예술단 가입단체 공연 2매)
할인매수 2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시립예술단공연(5개 단체) 중
가입 단체 초대권 2매 제공
 -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중
가입 단체 지정된 객석 수, 선착순 마감
 -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
(전하 사전예약, 선착순 마감)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4매 증정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
(전사)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30%)

* 회원가입 취소 시 가입한 날로부터 5일 이내(입장권 구입 시 취소 불가)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혜택

알렉산더 에크만의 <해머>

예테보리 오페라 댄스컴퍼니 **종료**

2025년 11월 21일(금) 오후 7:30

11월 22일(토)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회차별 30매)

연극 <오함마백씨행장 완판본>

2025년 11월 28일(금) 오후 7:30

11월 29일(토) 오후 2: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회차별 30매)

국립발레단 <호두까기인형> **종료**

2025년 12월 5일(금) 오후 7:30

12월 6일(토) 오후 2: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회차별 20매)

대니 구 윈터 콘서트 <HOME> **종료**

2025년 12월 27일(토) 오후 5: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20매)

2025 제아음악회 **종료**

2025년 12월 31일(수)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40매)

다양한 할인혜택으로 문화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제도는 높은 할인율과 초대권 증정 등 다양한 혜택으로 보다 많은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 가입하시면 지정 기획공연 중 관람권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람권 사용이 가능한 공연은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초대>나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통해 공지됩니다. 게재된 공연은 2025년 예매 가능한 기획공연으로 공연예매 시작과 함께 온라인 또는 전화로 예매 가능하며 선착순 마감입니다.



연극 <시물라시옹>

2026년 1월 16일(금) 오후 7:30
1월 17일(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회차별 20매)

가족뮤지컬 <구름빵>

2026년 1월 23일(금) 오전 10:30, 오후 2:00
1월 24일(토) 오전 11:00, 오후 2: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10매)

Sound of Busan : 올 댓 차이콥스키

2026년 2월 27일(금) 오후 7:30
6월 19일(금) 오후 7:30
8월 21일(금)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회차별 20매)

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라보'의 클래식 상자 - 하이든>

2026년 2월 28일(토) 오전 11:00, 오후 2: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회차별 20매)

시네마 파라디소 <Begin Again>

2026년 3월 14일(토) 오후 2: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10매)

피아니스트 이혁 & 이혁 듀오

<베토벤 합창: 신들의 불꽃>

2026년 3월 26일(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20매)

뮤지컬 <인사이드 마>

2026년 3월 28일(토) 오후 2:00, 오후 5: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회차별 10매)

백건우 피아노 리사이틀

2026년 4월 3일(금)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10매)

연극 <칼로막베스>

2026년 4월 4일(토) 오후 3:00
4월 5일(일)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10매)

살롱 드 국악 I - 첼로가야금

2026년 4월 10일(금)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20매)

살롱 드 국악 II - 추다혜차지스

2026년 4월 17일(금)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20매)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 The Clown>

2026년 4월 24일(금) 오후 7:30
4월 25일(토) 오후 2: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회차별 10매)

블링블링 캐치! 티니핑 심포니

2026년 5월 2일(토) 오후 5: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20매)

화류비련극 <홍도>

2026년 6월 12일(금) 오후 7:30
6월 13일(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회차별 20매)

창극 <살로메>

2026년 8월 29일(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20매)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051-607-6000

* 1인 1매에 한해 예매 가능하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공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회장 장문호
(주)천영스틸 대표이사



명예회장 도용복
(주)사라토가 회장



명예회장 최수기
(주)휴넥트 회장



명예회장 변원탄
의료법인 양산병원 이사장

* 자문위원



권홍사
(주)반도건설



김창환
국제아트센터협동조합 이사장



김충석
(주)코팩스 회장



박정오
(주)삼정기업 회장



이근철
(주)삼정 이사장



이용흠
(주)일신설계 회장



이원우
(주)한성테크 회장



최삼섭
(주)대원플러스그룹 회장

* 부 회장



권정미
고신의료원
임상교수



김정기
(주)경동건설
대표이사



박정삼
백송건설
회장



박재복
지원건설(주)
회장



손명진
(전)바르게살기운동
부산광역시협의회 여성회장



임미정
(주)창창아이씨티
대표



조홍수
후소산기(주)
대표이사

김태진
류용주
손명찬
오권석

(주)플라시스템 대표이사
삼신교통(주) 회장
서원건설산업(주) 대표이사
(주)성원 회장

임말섭
정문흠
정상배

(주)미성하이텍
(주)태영버스 회장
한국라이언기초건설(주) 회장

* 이사회원

강대일
강서룡
곽국민
권한상

웰딩시스템 대표
(주)효승테크 대표이사
(주)파크랜드 대표이사
부경대학교 교수

김기호
김성우
김암우
김현태

(주)이디에스 보안물류 대표이사
(재)해뜨락 요양병원 이사장
세무법인 중추 대표이사
삼명무역 대표

보람 있는 후원, 명예로운 모임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가입안내

GUIDE A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 기본 예우

-  후원회 전용 룸 이용
-  대극장 좌석 네이밍
-  예술의초대 소식지 발송
-  연(분기 또는 반기) 후원회원 대상 음악회 개최
-  후원 회원명단 게재 (후원회 홈페이지, 월간지 등)
-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무료 관람 제공 (동반 1인 포함 / 사전 신청자에 한함)
-  후원회 멤버십 카드 발급
-  회원패 증명
-  무료 주차 혜택 제공 (본인 차량에 한함)

■ 회원별 예우

구분	가입비	연회비 (익년도부터)	법인/ 개인	기획공연 및 전시 무료 초대		아카 데미	좌석 네이밍 (대극장)
				기획공연(연간)	전시		
부회 장	500 이상	200	법인/ 개인	- 기획공연 8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 (30~50%)	본인· 배우자 무료	본인· 배우자 무료	2개 좌석
이사 회원	300	100		- 기획공연 6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 (30~5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50% 할인	
일반 회원	100	50	개인	- 기획공연 4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 (3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10% 할인	1개 좌석

- ※ 법인회원은 300만원부터 가능하고, 후원회원 예우는 개인 및 법인의 대표와 배우자에 한함.
- ※ 공연(기획공연, 예술단공연) 무료초대는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하여야 하며, 조기매진 시 초대권 제공 불가함.
- ※ 일부 공연의 경우 공동주최 등의 사유로 예우사항(할인율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전시, 아카데미(1강좌에 한함)의 경우 반드시 사전 신청자에 한하며 내부 사정에 따라 예우사항 등은 조정될 수 있음.

가입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고객센터(607-6072)

김홍재 (전)연제구의장
김홍재 (주)식스데이 대표이사
서현석 한국고무산업 대표이사
신한춘 (주)금정화운 대표이사
윤철원 (주)정우 대표이사
이성규 김해주차장 대표
이수영 (주)유한 대표이사
이은석 (주)엘제이 이앤에스 대표이사
이진영 돌고래마취통증의학과의원 원장
임정덕 예술과부산 대표이사
장세비 우리은행 부산금융센터 및 부산영업 그룹장
정연택 디씨엔(주) 대표
정용환 서번산업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조기종 조기종치과의원 원장
조종래 라이프온(주) 대표이사
허정은 (주)제이세라믹 대표이사
황성환 부산제2항운병원 원장

＊ 일반회원

강득용 (주)프리미엄에셋 대표이사
계승균 부산대학교 교수
김말순 인천요양병원 대표이사
김영수 세종월드건설 대표이사
김중부 다올테크 대표이사
김진홍 동우개발(주) 회장
김 철 온종합병원 산부인과
김희규 효성의약품(주) 대표이사
문민우 명인제약
박성복 대동병원 이사장
박성환 세종기획 이사
박혜빈 구포성심병원 이사장
박홍근 삼강종합건설(주)
성원기 손내과의원 원장
손혜경 하나유치원 원장
안금주 경성대학교 교수
안진우 세무법인 인성
양은진 세무법인 프로텍 세무사
이경칠 통통샤인 정신건강의학과
이상수 엘가 대표
이성임 굿엔프랜드주식회사
이수민 르네상스피부과 원장
이에리카정애 명성피서리 주식회사
이종원 이현숙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임은자 (사)서부산경제발전연구원 원장
정명선 정민섭산부인과 원장
정민섭 (전)국회의장
정의화 숙편한내과 원장
조성락 문우당서점 해광출판사 대표
조준형 (주)일신케미칼 사장
하정태 법률사무소 담헌 변호사
한원우 허혜영

※ 회원명 가나다순

연극

오함마백씨행장완판본



2025.

11.28. 금. 7:30pm

11.29. 토. 2:00pm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관람대상 14세 이상 관람 입장료 R석 40,000원 5석 20,000원

문의 051) 607-6000 (ARS 1번)

작 이용훈 연출/출연 오치운 무대 황경호

음향 이현석 그래픽 황가림 PD 차보경

제작 씨앗프로젝트 주최/주관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예술의초대>는 언제나 독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예술의초대>는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가입하시면
무료로 구독 가능합니다.

정기회원이 아닌 경우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민회관을
비롯 금정문화회관, 영도문화예술회관, 을숙도문화회관,
해운대문화회관 등 구(區) 문화회관,
그리고 서면 영광도서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술의초대>에 공연·전시·행사 일정을 게재하려면 **전월 15일까지**

관련 내용 및 사진(포스터)을 **E-mail(book2580@bscc.or.kr)**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 단, 부산지역에서 열리는 공연·전시·행사에 한해 가능합니다.

<예술의초대>에서는 매월 유료 지면광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유료광고 게재를 원하시면
고객지원팀(607-6071)으로 문의 바랍니다.

(재)부산문화회관 뉴스레터 낱말퍼즐과 함께 다양한 문화예술 정보를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퍼즐풀기

- 2025. 10. 27.(월)~11. 12.(수)
- 정답 및 당첨 발표 : 2025. 11. 21.(금)
- ※ 정답 및 당첨자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월간지 <예술의초대> 지면을 통해 발표됩니다.
- ※ 기프티콘은 기재하신 휴대전화번호로 발송됩니다.

2025년 10월호 낱말퍼즐 당첨자 명단

010-****-6476

010-***-2011

010-****-4506

010-****-0595

010-****-6701

COUPON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입장권 20% 할인

부산광역시 중구 구덕로34번길 4
1588-2757

COUPON



공간 소극장

입장권 20% 할인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지하 242
(지하철 2호선 대연역사 내)
051) 611-8518

COUPON



(부산송도) 베스트웨스턴 플러스호텔

예약방법 : 호텔 홈페이지 예약하기 ⇨
프로모션 코드입력 "CORMEM"
(https://bwplusbusan.com/)

부산광역시 서구 송도해변로 97
051) 977-8888

COUPON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 쿠폰 소지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예매 후 티켓 수령 시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COUPON



공간 소극장

- 쿠폰 소지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예매 후 티켓 수령 시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COUP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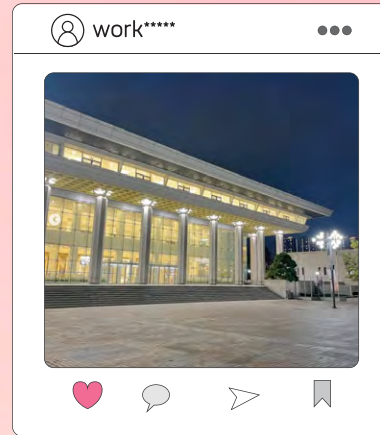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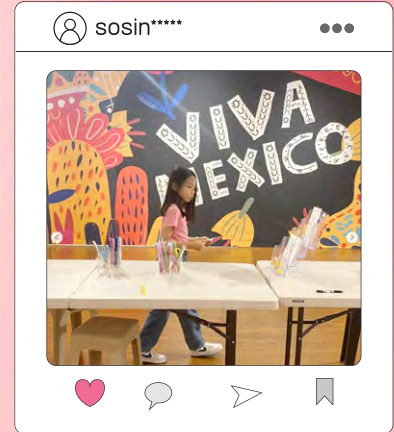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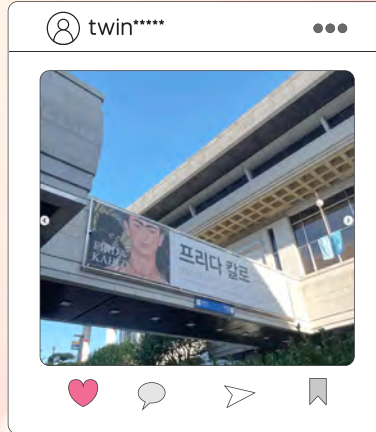


(부산송도) 베스트웨스턴 플러스호텔

- 홈페이지 예약으로만 진행되며
여행사 판매가의 5%를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다녀왔습니다!

#방문 인증 당첨자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다녀왔습니다!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민회관에서 공연, 전시, 아카데미 등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는 모습을 후기와 함께 SNS에 인증해주세요!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중 한 곳 이상에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 초대권 또는 기프트콘을 드립니다!

(재)부산문화회관 공식 SNS 채널을 팔로우하세요!



@bsculturalcenter_official



facebook.com/busanculturalcenter



@배시시TV



(재)부산문화회관

2025년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신규단원 모집(3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에서는
부산 지역 청소년 문화예술 발전에 주역이 될
참신하고 유능한 신규단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 전형개요

- **전형일시** : 2025. 11. 8.(토) 12:30~ (추첨+실기+면접전형)
※ 지원자 현황에 따라 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
- **전형장소** :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연습실
- **모집정원 및 부문** : 00명
- **전형곡** : 자유곡, 공통) ①발성테스트 ②애국가 1~4절 ③음감테스트

1. 단원 모집 개요

- **응시 자격** : 노래에 소질이 있고 소년소녀합창단 활동에 적극적이고 성실히 임할 수 있는 부산시 거주 **초등학교 4학년 ~ 중학교 3학년**
(※ 25년 9월 학기 기준)
- **모집 인원** : 00명
- **모집 조건**

공연출연 및 연습참여	✓ 주 3회 연습 참여 - 초등학교 ~ 중학교 : 화, 목(17:30~20:00), 토(10:00~12:30) ※ 내부사정에 따라 연습일정은 변동 가능 ✓ 공연 편성 시 공연 출연
혜택	✓ 연습 출석 시 : 간식 및 교통비(연주단원) 제공 ✓ 연주에 관련된 연주복 및 단체복 제공 ✓ 공연 활동 시 : 자원봉사 시간 부여 ✓ 우수단원 표창 ✓ 해외공연 참가 기회 부여 (우수단원 우선 참여) ✓ 외부공연 참여 시 소정의 공연수당 지급

2. 일정 및 방법

● 전형일정

공고기간	접수기간	시험구분
2025.9.30.(화) ~ 10.14.(화)	2025.10.15.(수) ~ 10.28.(화) (※17:00 마감)	실기 및 면접전형
시험일시	전형장소	합격자발표
2025.11.8.(토) 13:00 ~ ※ 12시30분까지 대기실 입실 완료	부산문화회관 소년소녀합창단 연습실	2025.11.11.(화) 15:00 (예정)

- 서류접수 마감시간 : 2025.10.28.(화) 17:00까지이며,
이후 시간은 접수되지 않음

● 과제

구분	세부내용
실기전형	자유곡 악보 제출(*응시원서와 함께 + 4P 이내 PDF파일) ※ 반주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반주자가 진행 ※ 당일 전형 시에 자유곡 악보를 출력해서 가지고 올 것
	공통 1. 발성 테스트 2. 애국가 1~4절 외워서 부르기 3. 음감 테스트 : 피아노로 치는 3~4개 연결음을 따라 부르기
면접전형	응시자 면접 : 자기소개 및 특기 소개 ※ 당일 전형 시에 부모님은 전형 장소 밖에서 대기

※ 합격자 선정 기준

심사위원 (상), (중), (하) 평가하여 (하)를 받지 않은 응시자

3. 원서 접수 및 유의 사항

● 응시원서 접수방법

✓ 접수방법

- ① 해당 공고문 첨부파일「응시원서」 다운로드 및 작성
- ② 2025.10.28.(목) 17시까지 e-mail 접수 : thjiang77@bscc.or.kr
- 첨부파일 및 메일 제목 : “2024 응시원서_홍길동(응시자 이름)”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 / 접수시간까지 확인된 메일만 접수인정

✓ 준비서류 : 응시원서 1부, 자유곡 악보(4p 이내) 1부

- 전자우편으로 응시원서 접수 후, 접수번호 개별 회신
- 전형당일 : 재학증명서(본인 확인용)

● 유의사항

- ✓ 신규단원 O/T : 2025.11.13.(목) 18시30분 소년소녀합창단 연습실
- 최종 합격단원 및 단원 보호자 1명 동반

-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예술단운영팀 051-607-3131

2025년 부산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BPO SYMPHONIC SEASON 2025

RACHMANINOFF

라흐마니노프 / 피아노 협주곡 제2번

라흐마니노프 / 교향적 무곡

*

지휘 시몬 에델만 / 피아노 우용기

625

2025.11.14.(금) PM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www.bscc.or.kr

국립발레단
KOREAN NATIONAL BALLET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국립발레단 호두까기인형 The Nutcracker



2025. 12. 5.(금) 7:30pm, 12. 6.(토) 2:00pm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출연 | 국립발레단 관람연령 | 48개월 이상 VIP 100,000원 R 80,000원 S 60,000원 A 40,000원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051-607-6000

금융을 편리하게
미래를 풍요롭게

문화예술로 쌓아온 58년 부산은 행복합니다

문화로 웃음을 키웠습니다
예술로 일상을 빛냈습니다

부산의 행복이 문화예술로
더 커질 때까지
지난 58년처럼, 멈추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BNK가 함께 가겠습니다

BNK 부산은행



Busan Moru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Busan Fireworks Festival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Busan Comedy Festival



Busan Rock Festival



Busan Biennale

[이 광고는 생성형 AI로 제작되었습니다]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금융 **BNK** 부산은행